

# 요소시장

미시경제학

조남운

# 주제

- 생산요소 시장
- 다양한 시장 구조에서의 요소시장
- 소득분배

# 생산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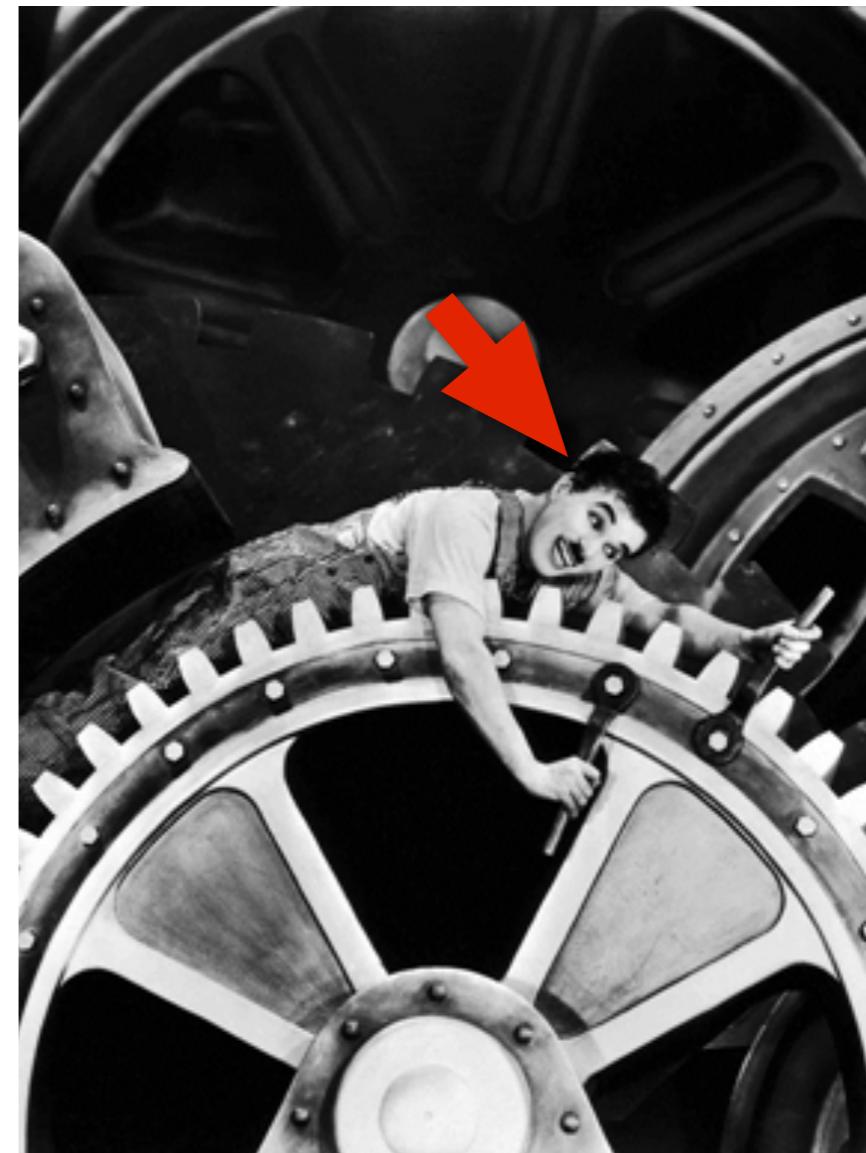
# Production Factor

-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상품
  - 노동력
  - 자본
  - 토지 등

# 노동력

# Labor Pow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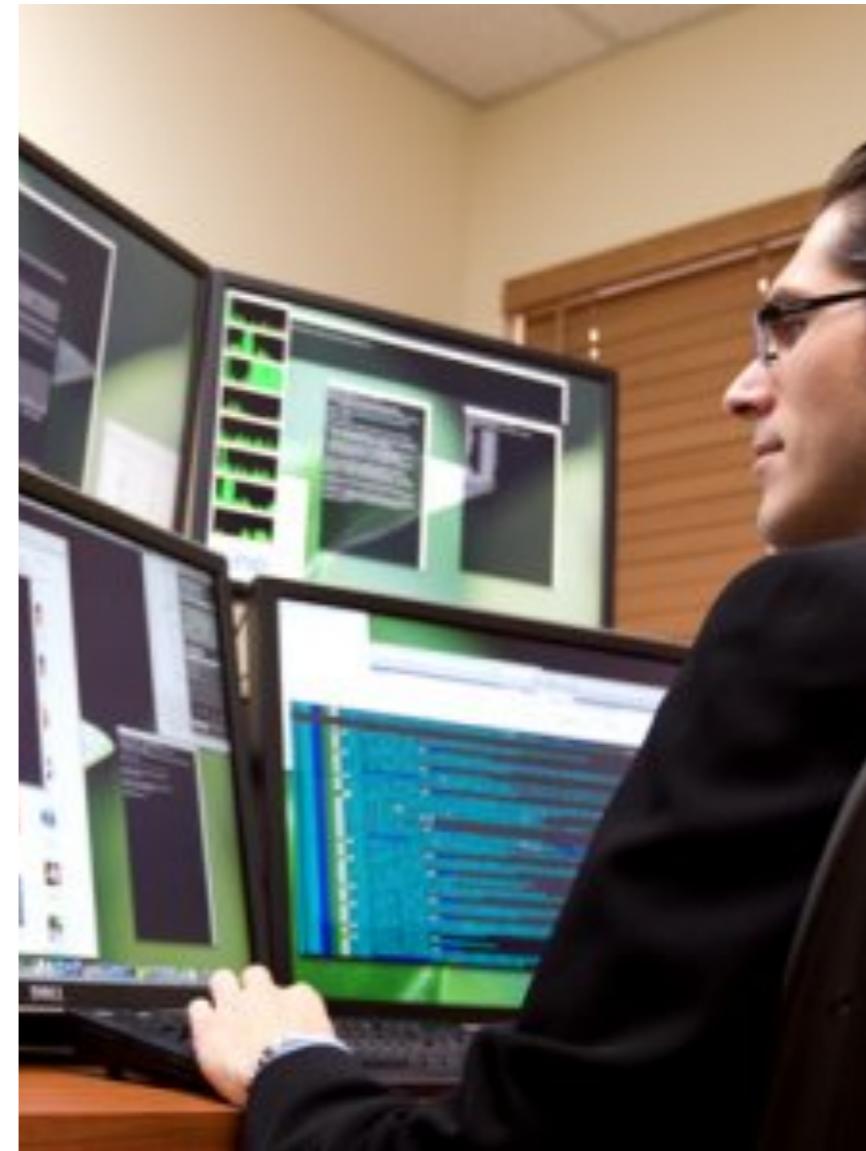
- 노동력: 노동할 수 있는 능력
  - 공급자: 노동자, 수요자: 기업
- 노동력의 가격: 임금
- 소유자: 노동자(노동은 인간의 고유능력)
  - 참고) 동일한 내용의 생산능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하면 노동력, 말(horse)이 하면 자본(도구)



# 인적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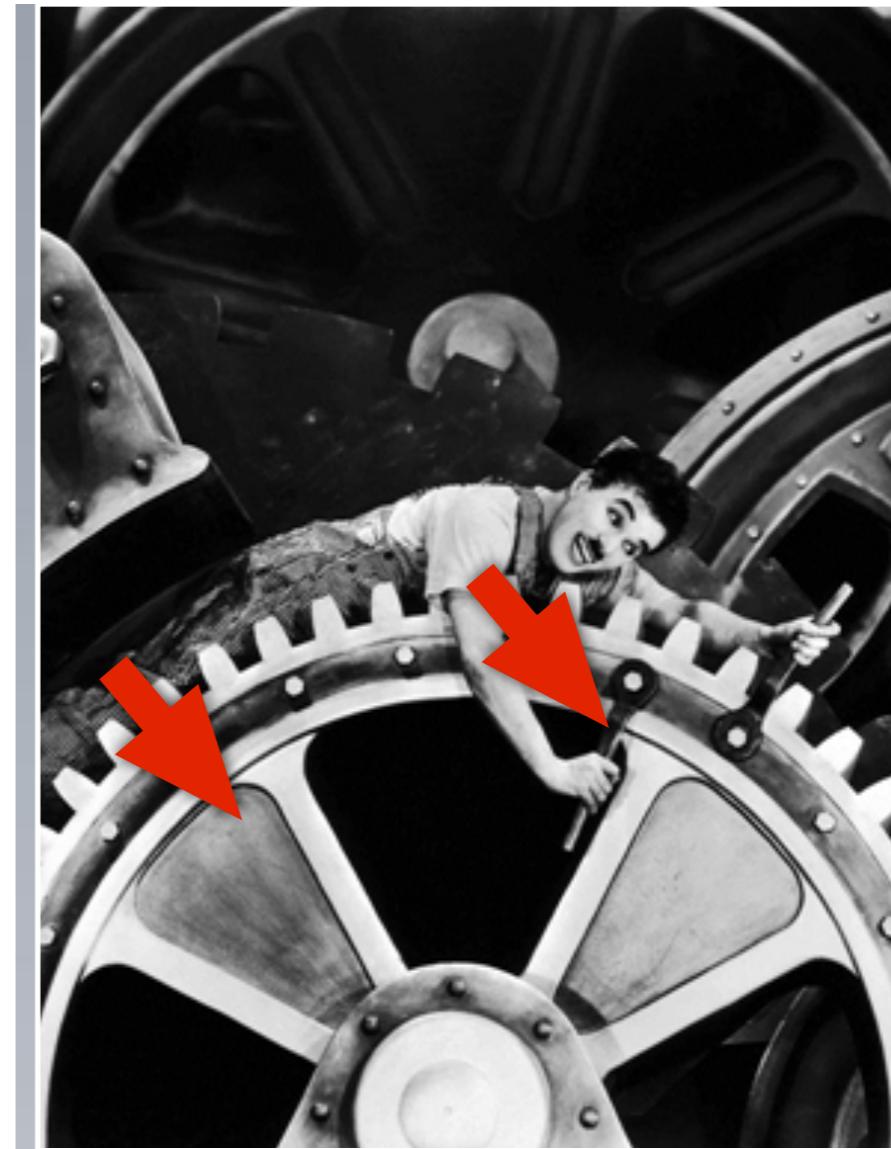
# Human Capital

- 인적자본: 체화된 기술 (skill), 능력을 노동자에 체화된 일종의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
  - 예) 워드프로세서 기술을 갖춘 사무노동자, C++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래머



# 자본(실물자본) (Real) Capital

- 생산하기 위해 생산된 상품
- 소유자: 자본소유자(현대에는 경계애매)
-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 과정을 통해 상품을 생산
  - 고정자본(간접결합): 건물, 기계, 도구 등
  - 유동자본(직접결합): 원료 등
- 자본의 가격: 이윤



# 토지 Land

- 인간 노동의 산물은 아니지만, 생산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
  - 토지의 가격: 지대 (rent)
  - 소유자: 지주
- 상품의 속성상 희소성이 유발되는 경우에도 일종의 지대가 발생: 경제적 지대(Economic Rent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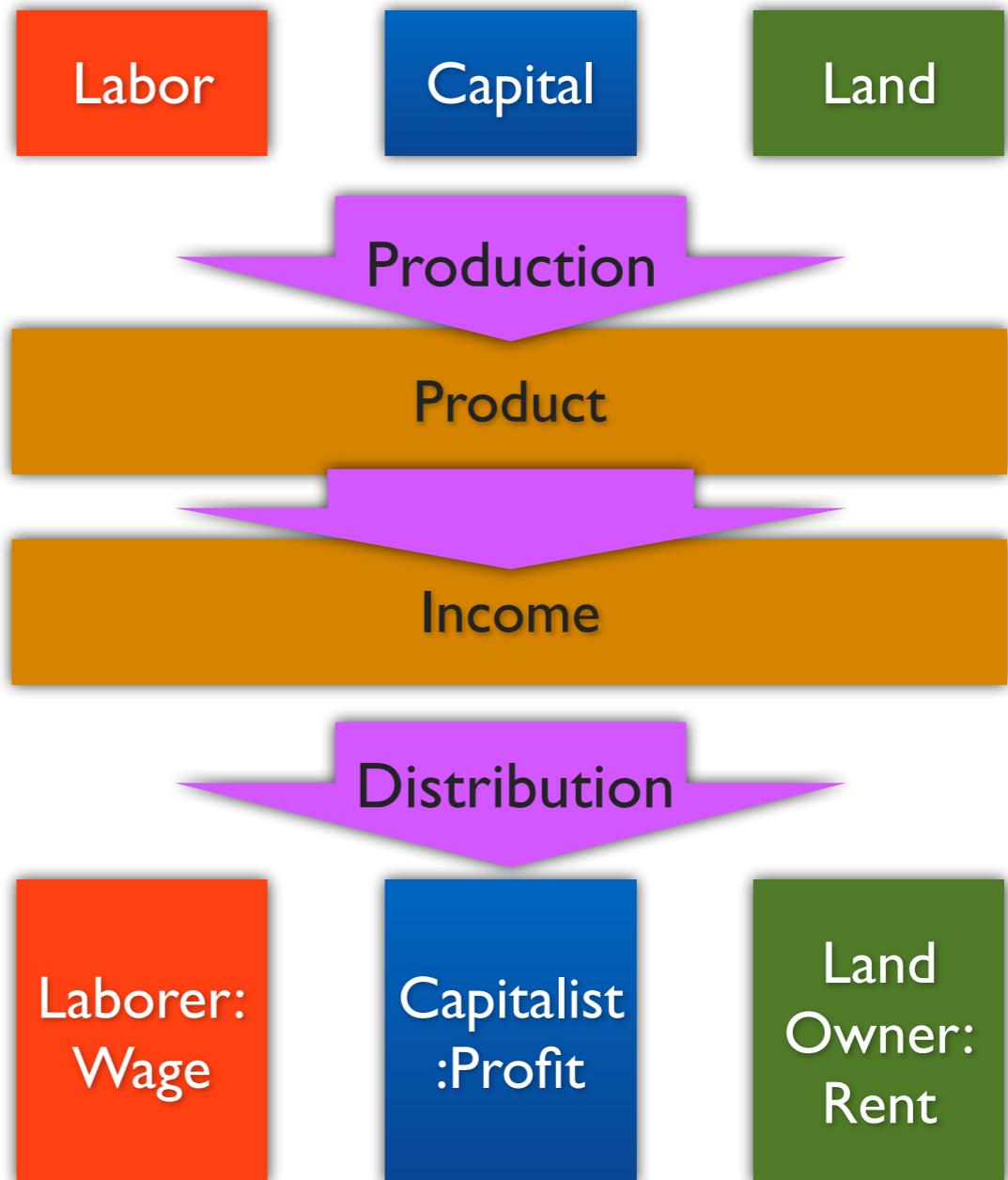
# 생산요소의 거래 Trade of Production Factors

- 생산요소의 거래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
- 일반적 최종재 시장과 요소시장과의 차이:
  - 요소시장의 수요는 유발수요
    - 기업들의 산출량 결정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
  - 반면, 소비시장에서의 수요모델에서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선호에 기반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

# 요소별 소득분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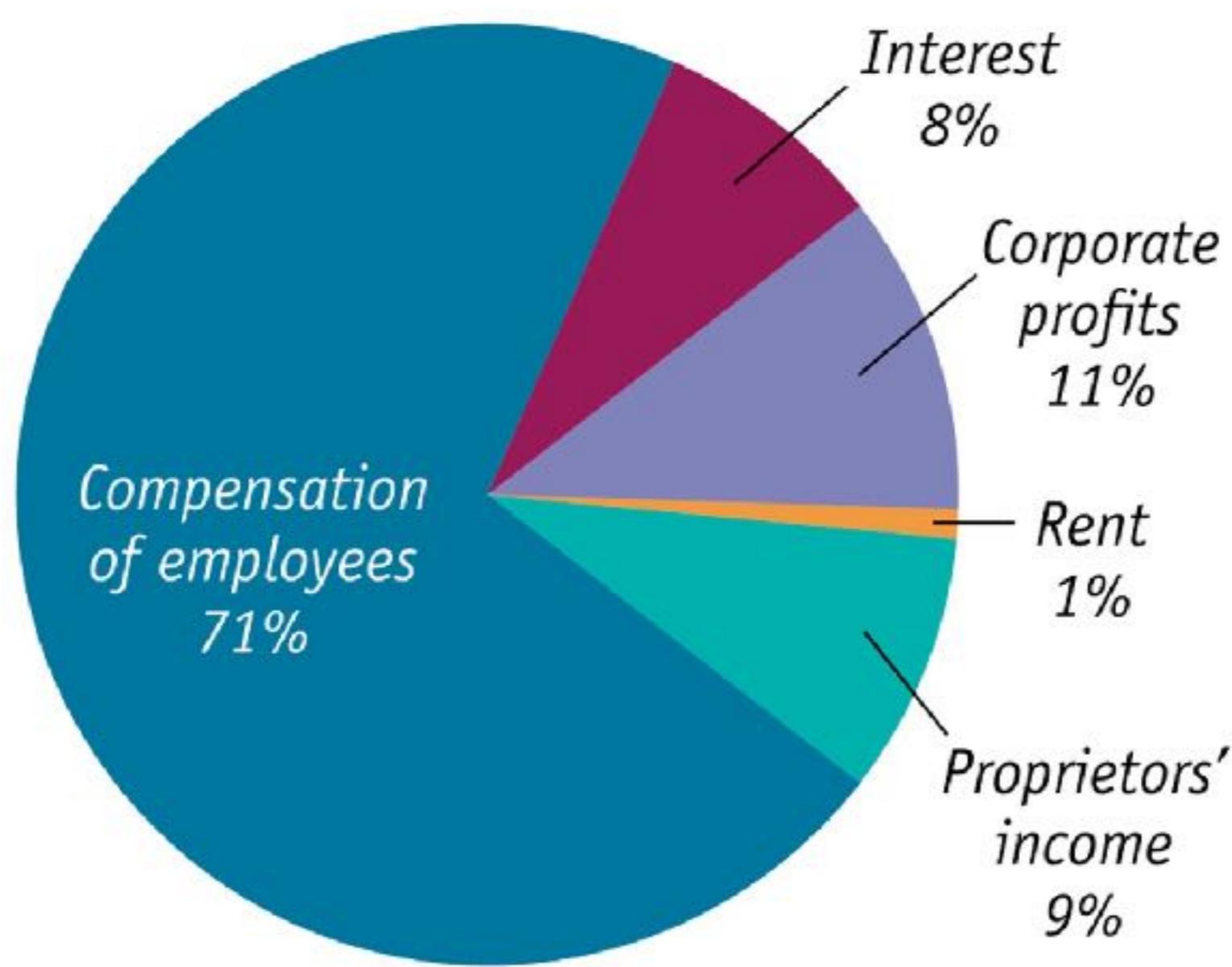
## Factor Distribution of Income

- 핵심 질문:
  - 한 경제의 총소득은 어떻게 노동소유자, 자본소유자, 토지소유자에게 분배되는가?



# 미국의 요소소득분배

## Factor Distribution of Income, US 2004



# 요소수요

# 단기요소수요함수

$$\arg \max_{L,K} \Pi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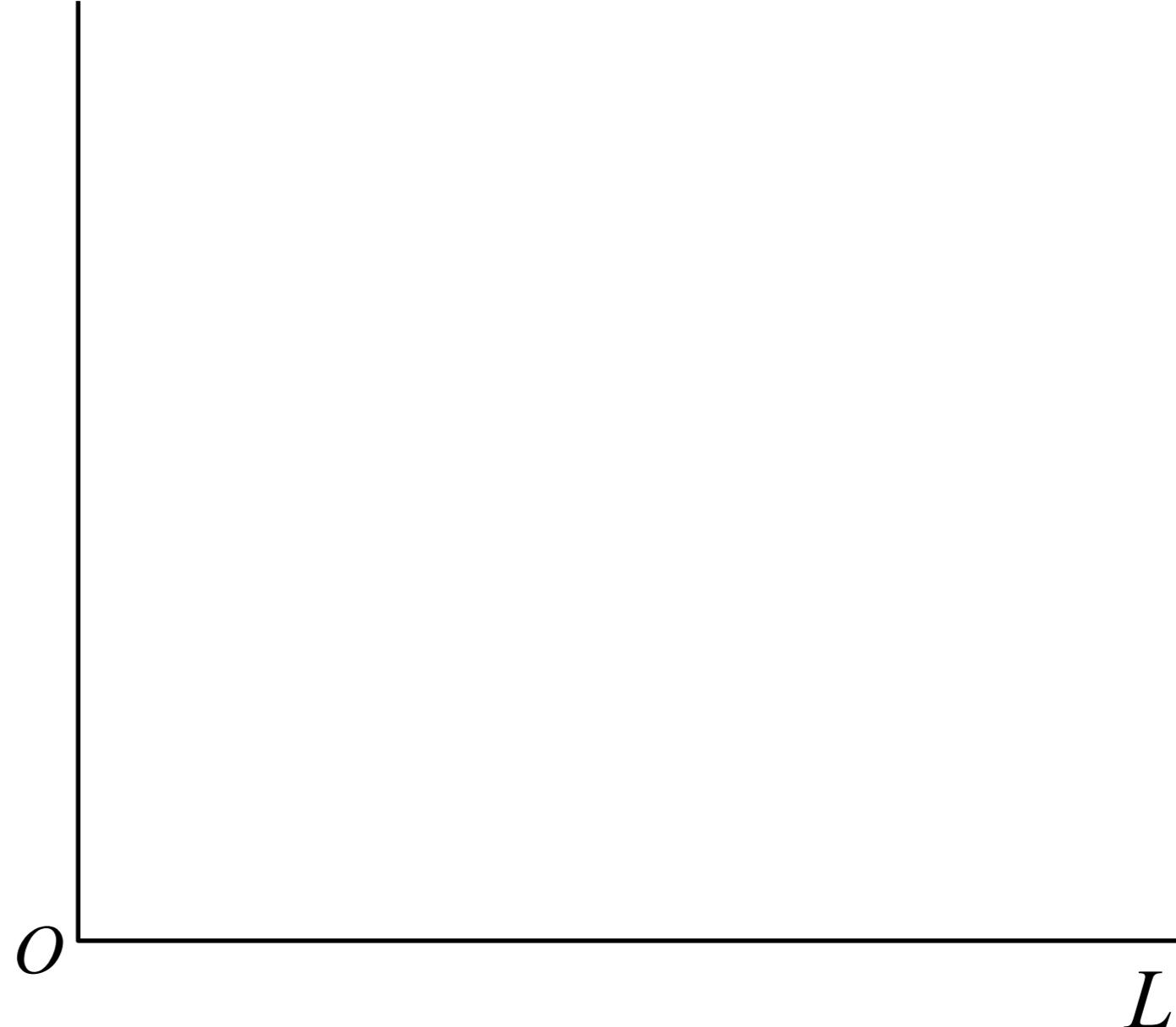
- 완전경쟁기업(가격수용자)의 이윤

$$\Pi = pF(L, K) - (wL + rK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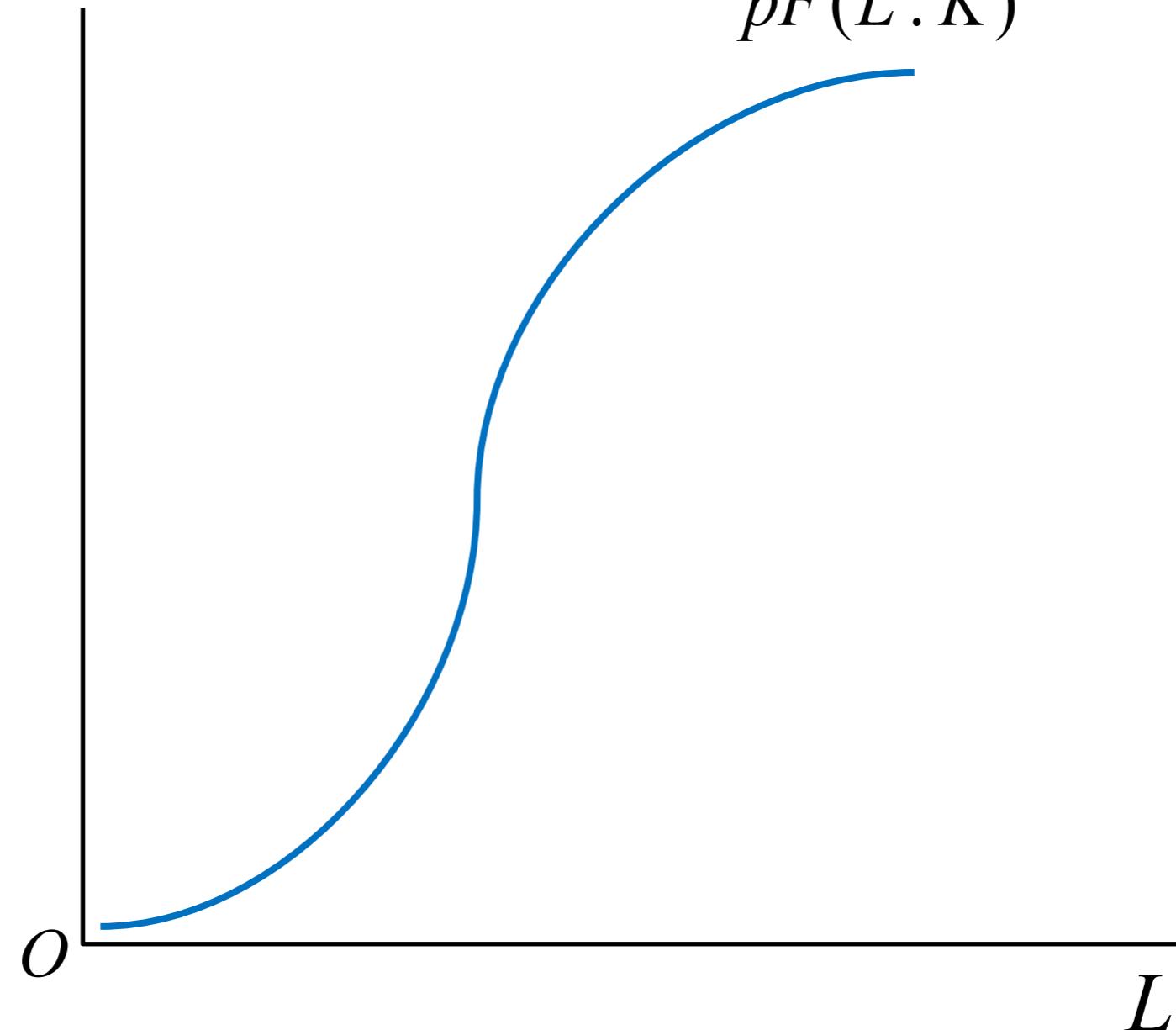
- 가변요소가 노동 하나만 있는 경우 (단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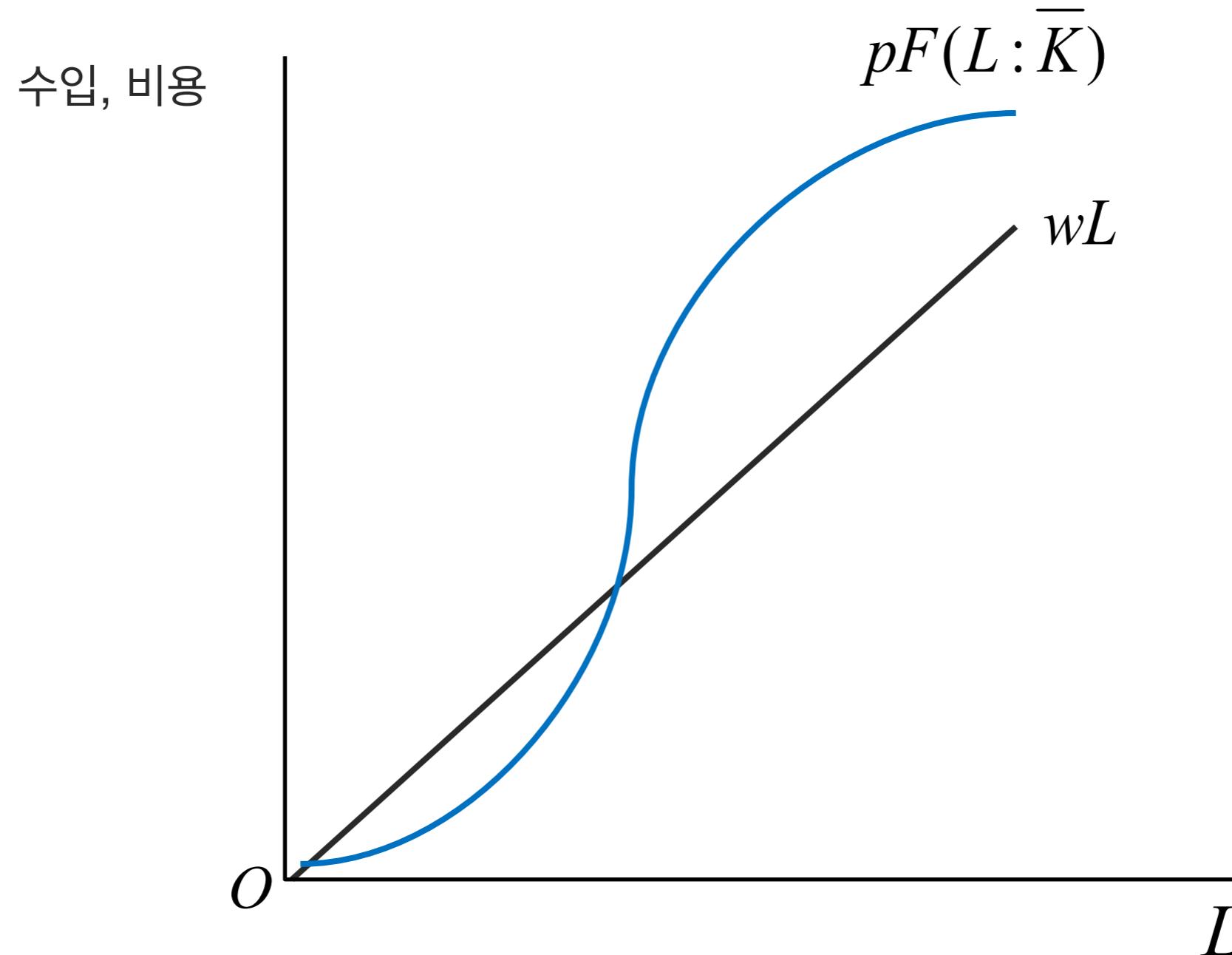
$$\Pi = pF(L : \bar{K}) - (wL + r\bar{K}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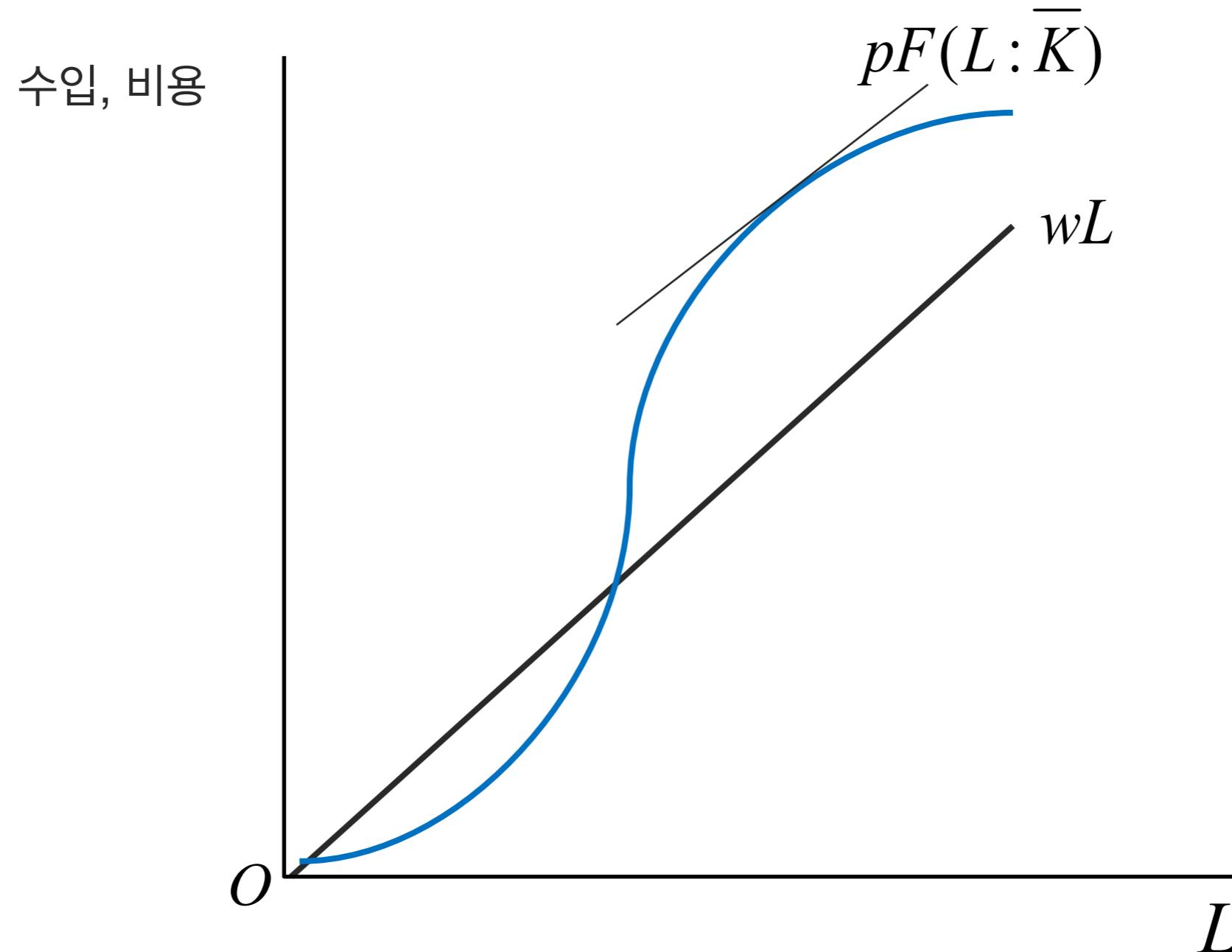
수입, 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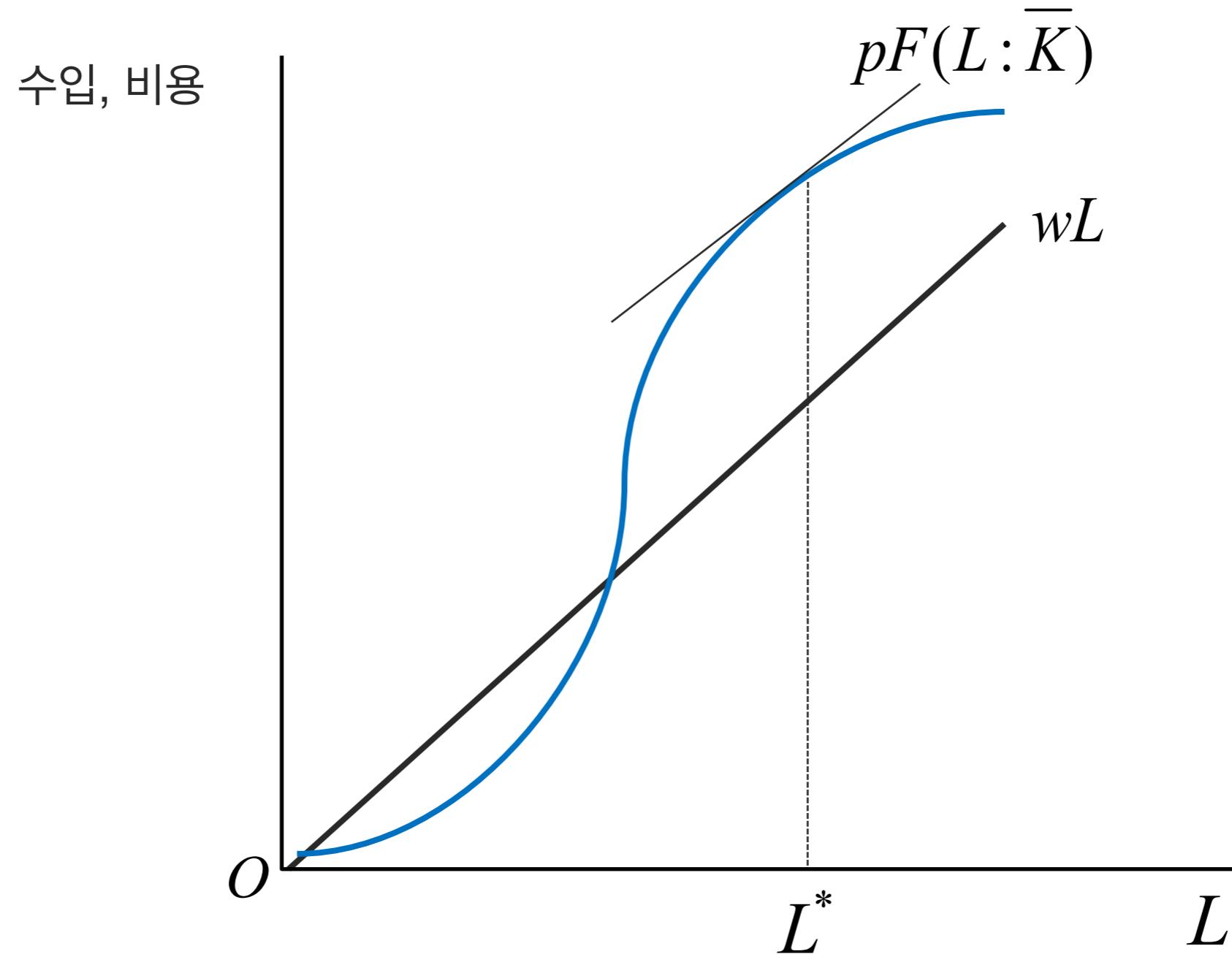


수입, 비용  $pF(L : \bar{K})$









# 단기 이윤극대화 문제의 1계조건

- 완전경쟁기업의 노동투입량에 대한 이윤극대화 1계조건

$$pMP_L(L : \bar{K}) = w$$

- 좌변: 노동 투입량에 대한 수입의 변화
  -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$MRP_L$
  - 노동의 한계생산가치  $VMP_L$

# 2계조건

- 완전경쟁기업의 노동투입량에 대한 이윤극대화 2계조건
  - 수입곡선이 오목, 즉 생산함수가 오목, 즉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

# Value of the Marginal Product of L(VMPL)

- MPL의 의미: 노동자를 한 명 추가로 고용했을 때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양
- 여기에 생산물의 가격( $P$ )를 곱하면 노동자를 한 명 추가로 더 고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생산 물의 가격을 알 수 있음: VMPL
  - VMPL: MPL의 가치
  - $VMPL \equiv P \times MPL$

#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VMPL

-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하면 산출량은  $MPL$ 만큼 증가
- 늘어난 생산량을 시장에 판매하면 수입이  $pMPL$ 만큼 증가
-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, 기업의 한계편익
- 임금( $w$ )은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했을 때, 기업의 한계비용
- $VMP_L > w$ 이면 노동 투입 증가
- $VMP_L < w$ 이면 노동 투입 감소
- 따라서 노동 투입량 결정은  $VMP_L = w$

# 최적고용모델의 일반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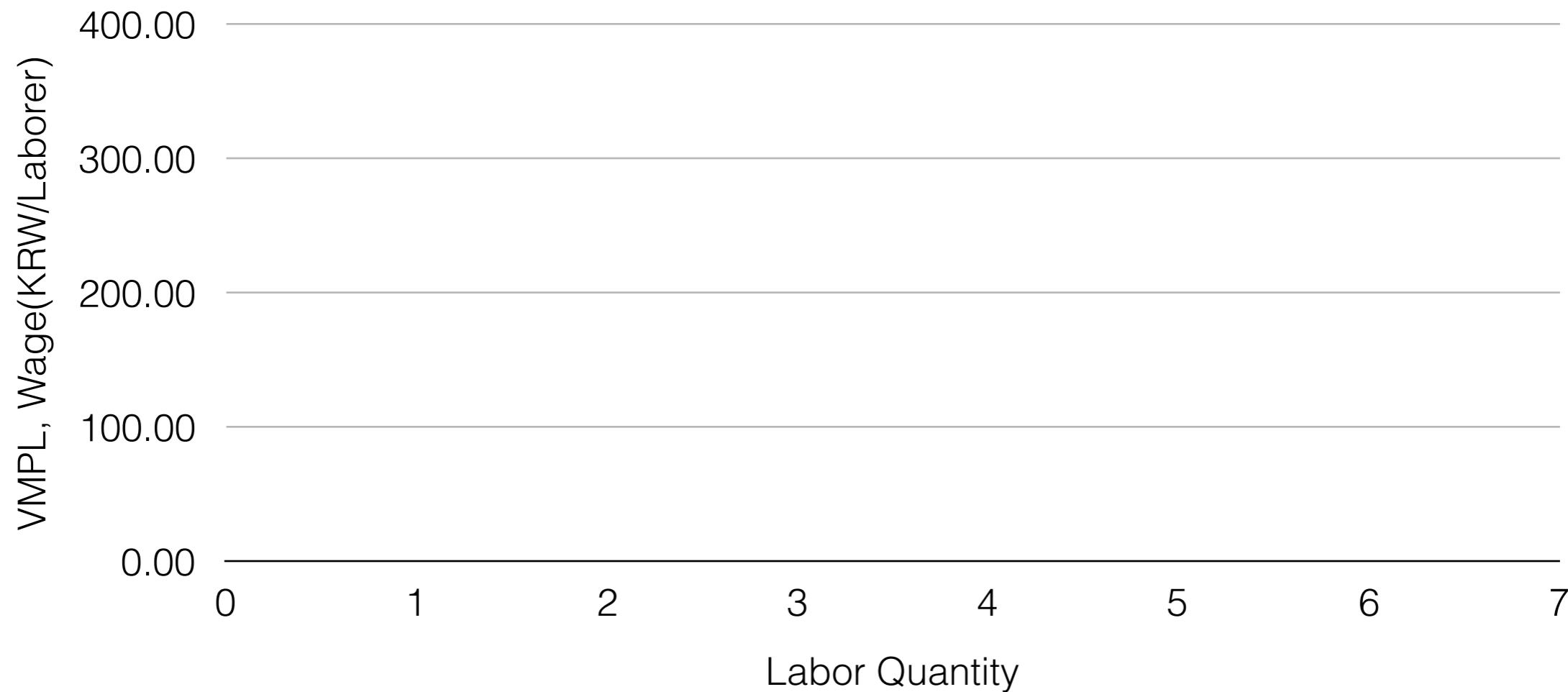
## Generalization

- $VMPL(L^*)=W$  인  $L^*$ 이 최적이라는 이론은 다른 생산요소에도 적용 가능
  - 노동( $L^*$ ): 노동의 비용( $W$ )= $VMPL(L^*)$
  - 자본( $K^*$ ): 자본의 비용(Profit)= $VMPK(K^*)$
  - 토지( $M^*$ ): 토지의 비용(Rent)= $VMPM(M^*)$
  - ... i번째 요소의 최적투입량: i요소가격 = $VMPI(x_i^*)$

# 최적고용량→노동수요곡선 Graphical Explan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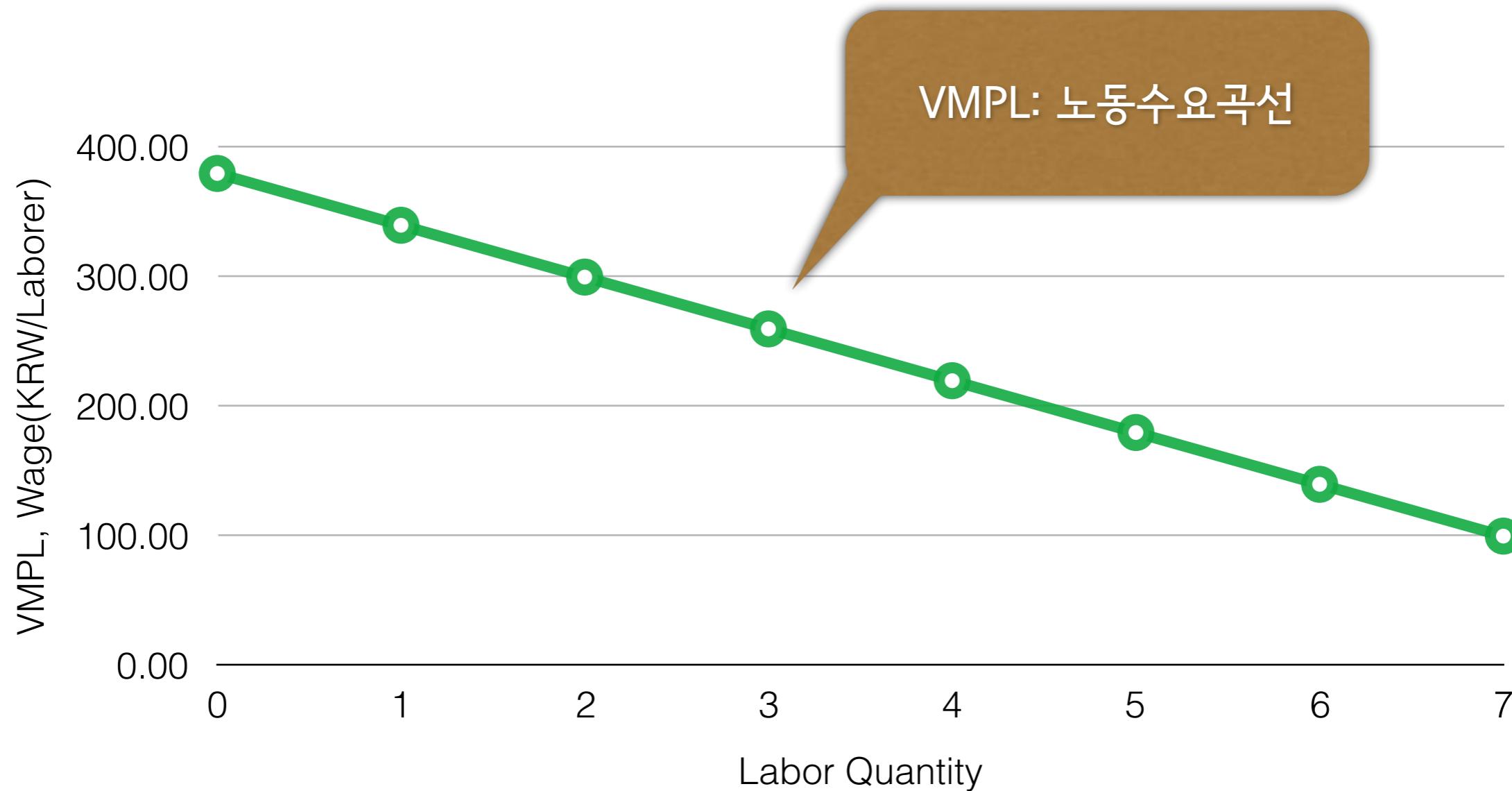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## Graphical Explan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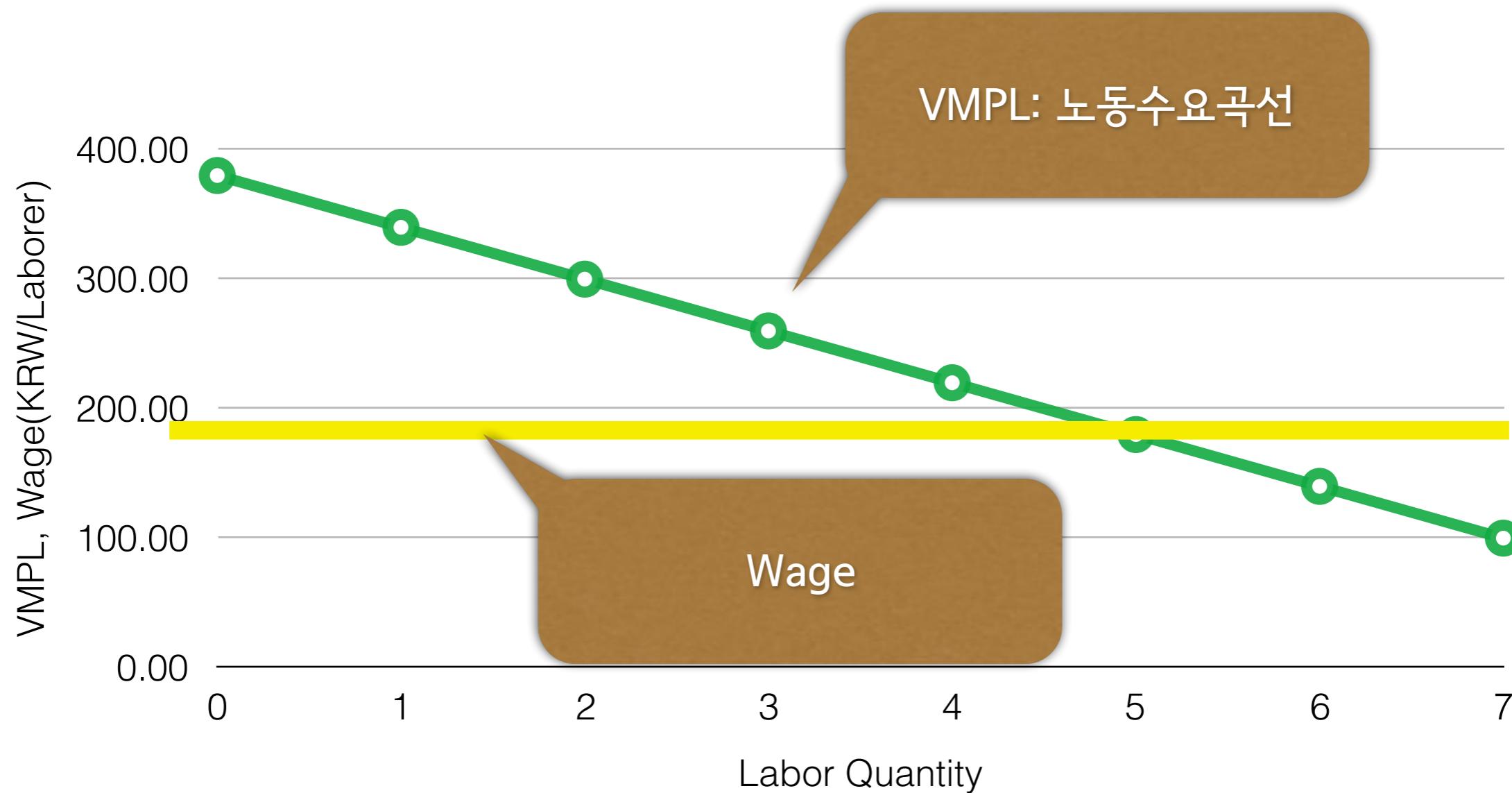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## Graphical Explan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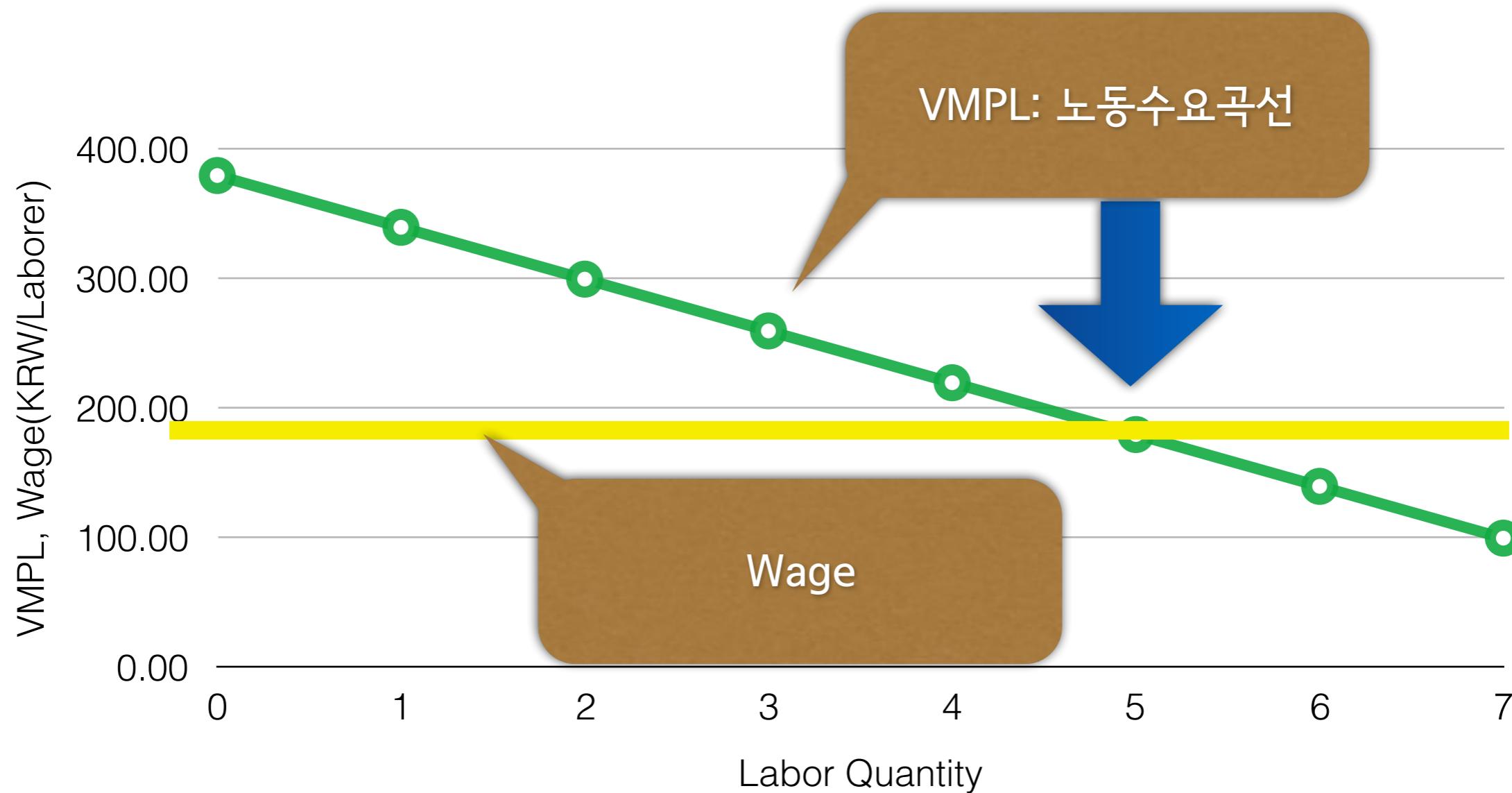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## Graphical Explan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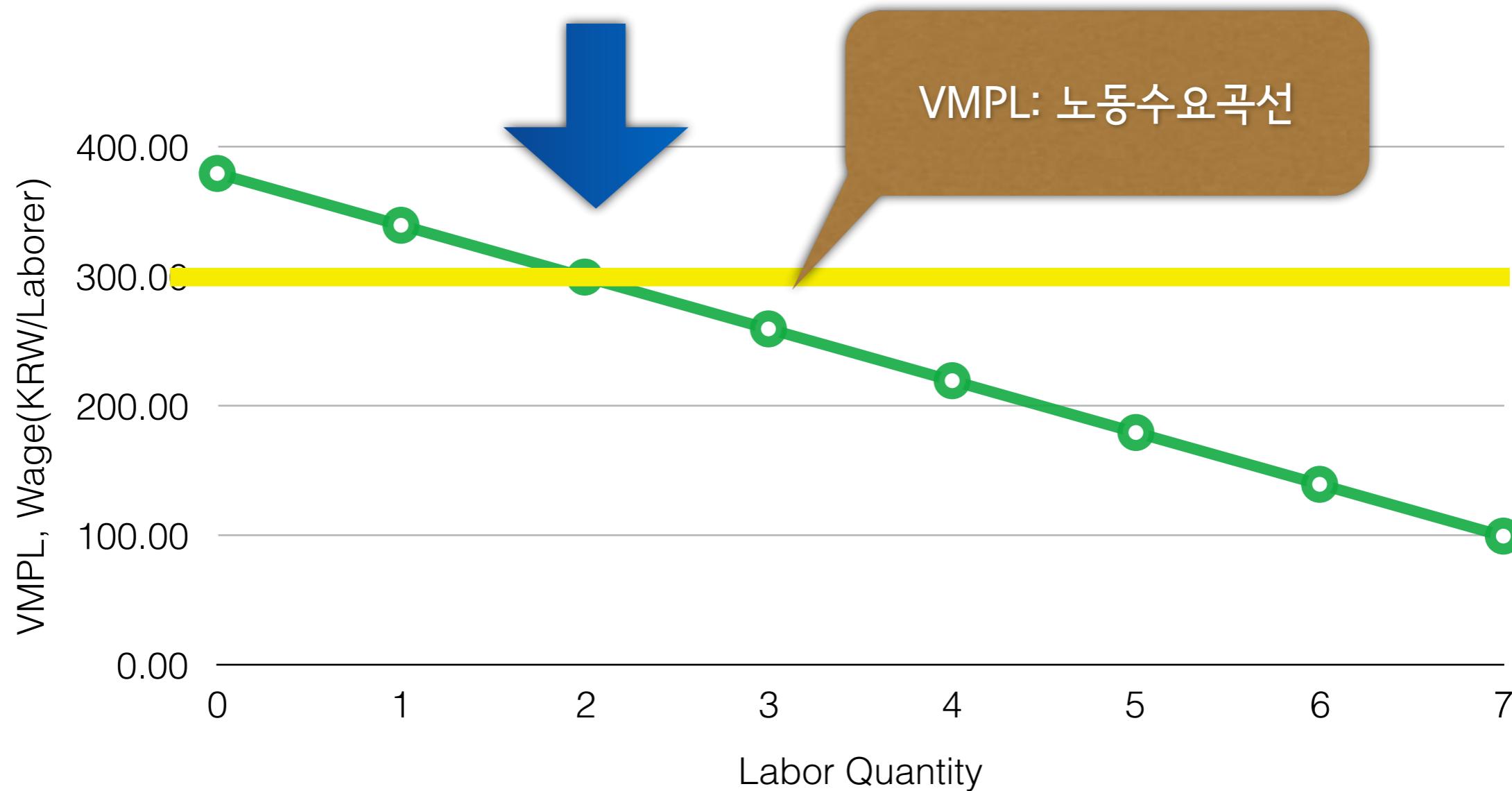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## Graphical Explan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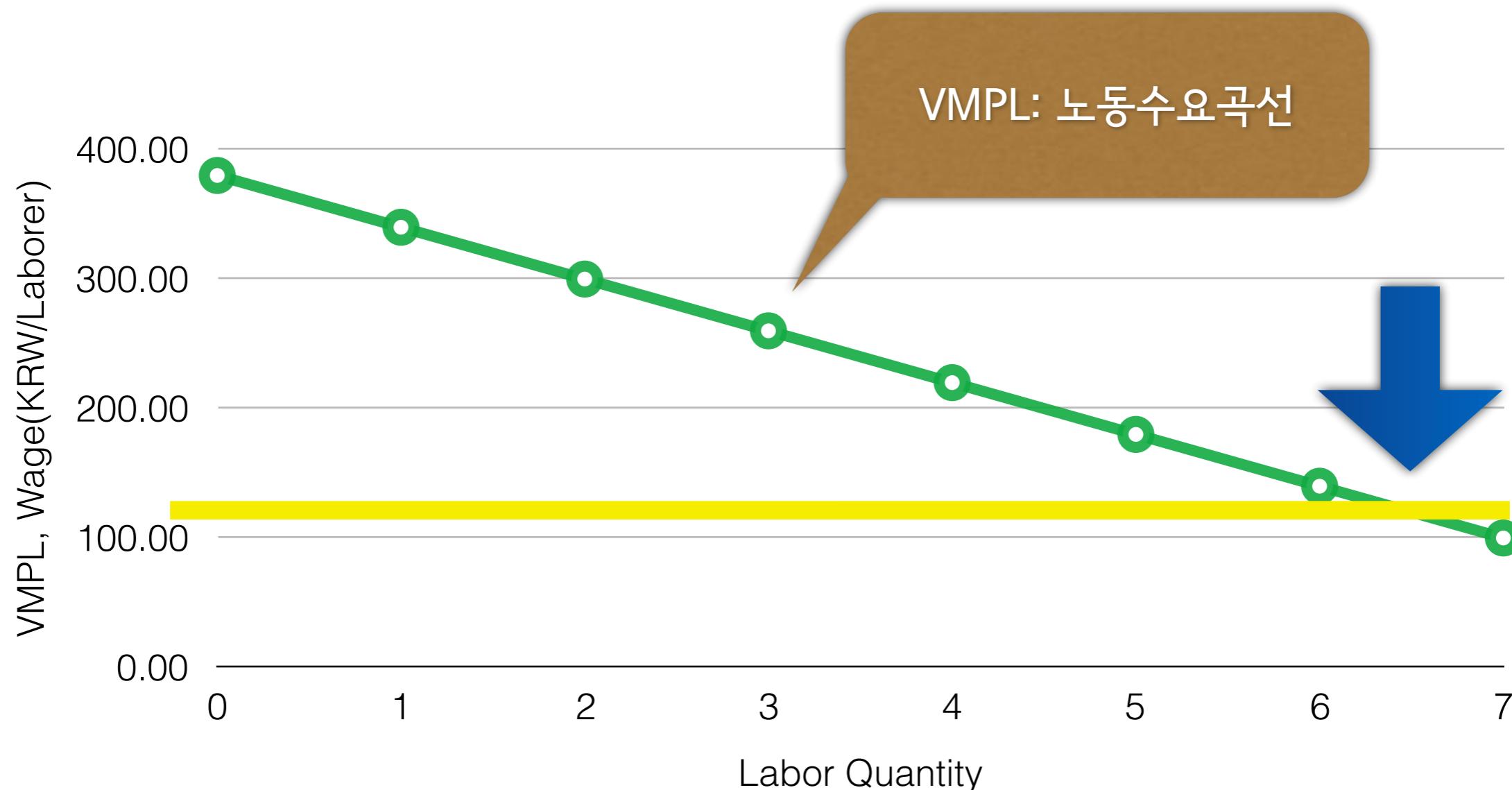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## Graphical Explan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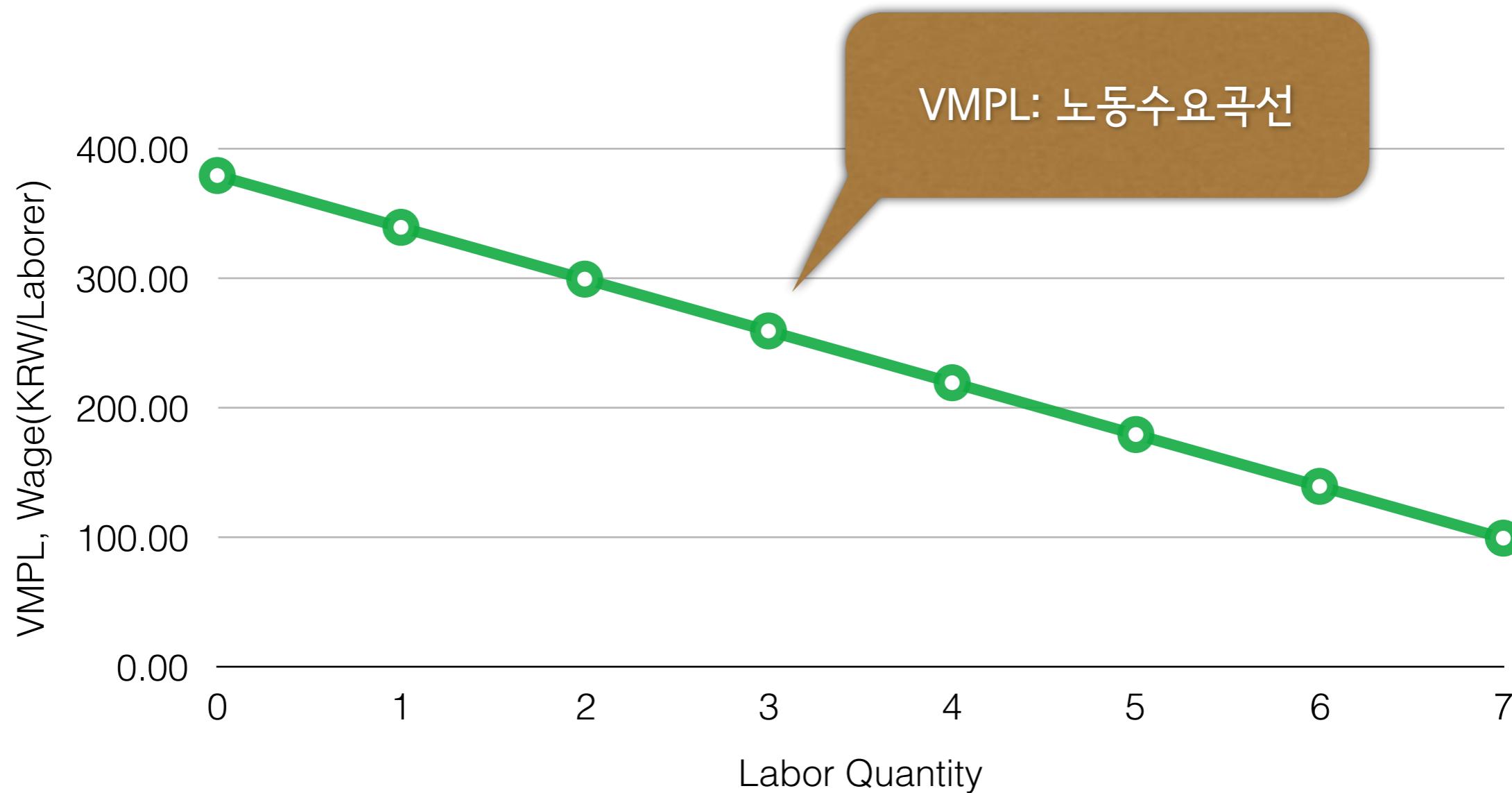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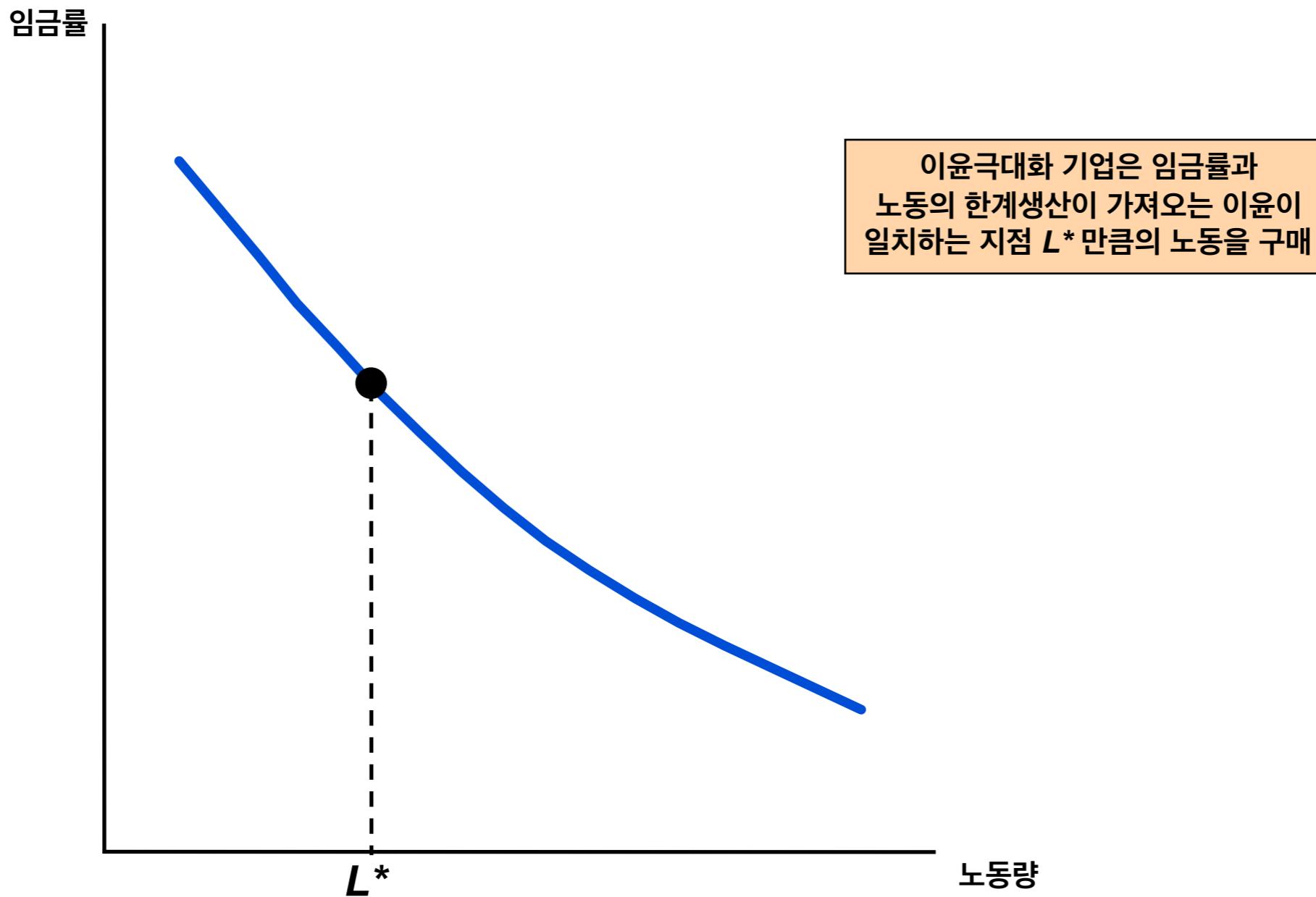
## Graphical Explan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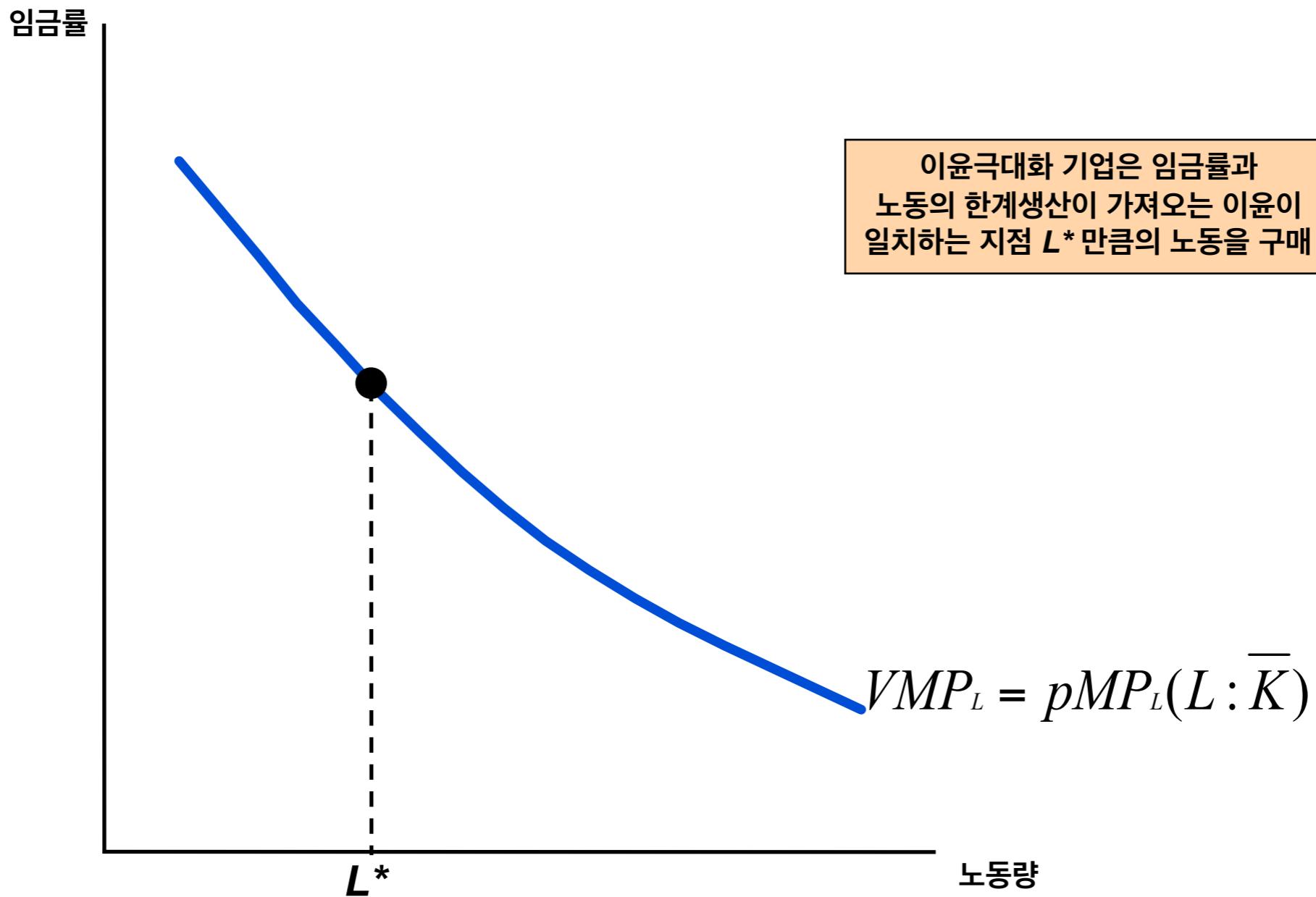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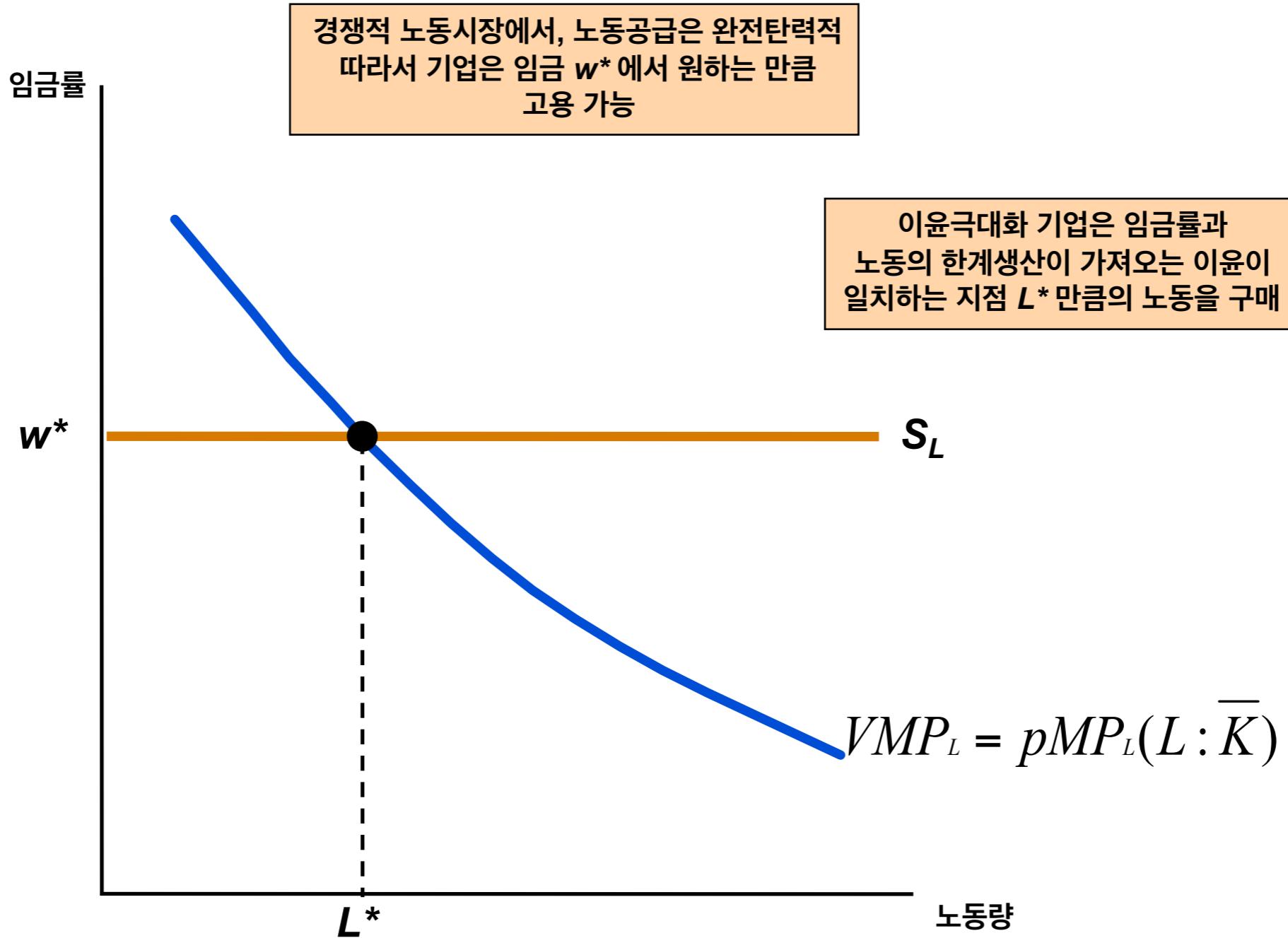
# 최적고용량 → 노동수요곡선

## Graphical Explanation









# VMPL의 결정요소

- $VMP_L$ 을 결정하는 변수
  - 산출물 가격  $p$ , 고정요소  $K$ , 생산함수의 형태
  - 단기노동수요함수
$$L^* = L(w, p, \bar{K})$$
  - $w$  상승하면  $L^*$  감소
  - $p$  상승하면  $VMP_L$  곡선 상승, 즉 노동 수요 증가
  - $K$  증가하면, 대부분의 경우 노동 한계생산 증가,  $VMP_L$ 곡선 상승

# 장기요소수요함수

- 가변요소가 두 개

$$\Pi = pF(L, K) - (wL + rK)$$

- 이윤극대화 1계 조건

$$pMP_L(L, K) - w = 0$$

$$pMP_K(L, K) - r = 0$$

- $pMP_L(L, K)$ : 노동의 한계생산가치,  $VMP_L$
- $pMP_K(L, K)$ : 노동의 한계생산가치,  $VMP_K$

# 장기 이윤 극대화 2계조건

- 생산함수가 이윤극대화 점 근방에서 ( $L$ ,  $K$ )에 대해 오목함수
- 노동의 한계생산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 ( $F_{LL} < 0$ ,  $F_{KK} < 0$ )
- $F_{LL}F_{KK} - F_{LK}F_{KL} > 0$

# 장기요소수요함수

$$L^* = L(w, r, p)$$

$$K^* = K(w, r, p)$$

# 장기요소수요함수의 특성

- 요소가격의 영향
  - $VMP_L$ 과  $VMP_K$  곡선은 각각 자본의 양과 노동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도출
  -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이므로,
  - 요소가격의 변화에 의한 요소수요의 변화를 파악하려면
  - 모든 요소의 투입량 변화를 같이 고려해야 함

# 요소가격의 대체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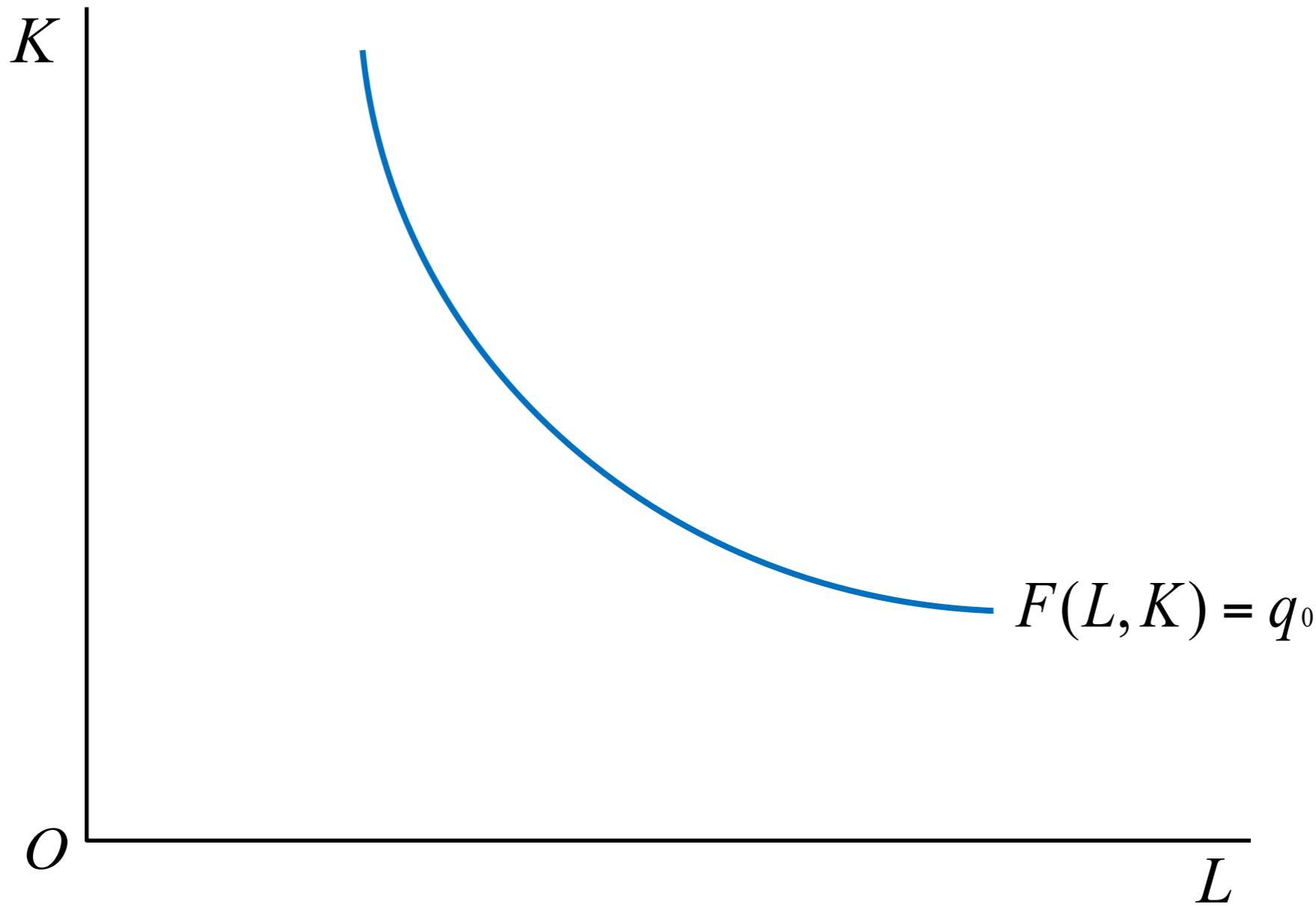
- 요소가격의 변화 = 대체효과 + 산출량 효과
  -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할 때, 요소가격이 변화하면 비용을 극소화하는 요소 투입량이 변화할 것
  - 요소가격의 변화에 의한 조건부요소수요 함수의 변화
  - 생산요소가 가격이 상승하면 항상 그 생산요소의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

# 요소가격의 수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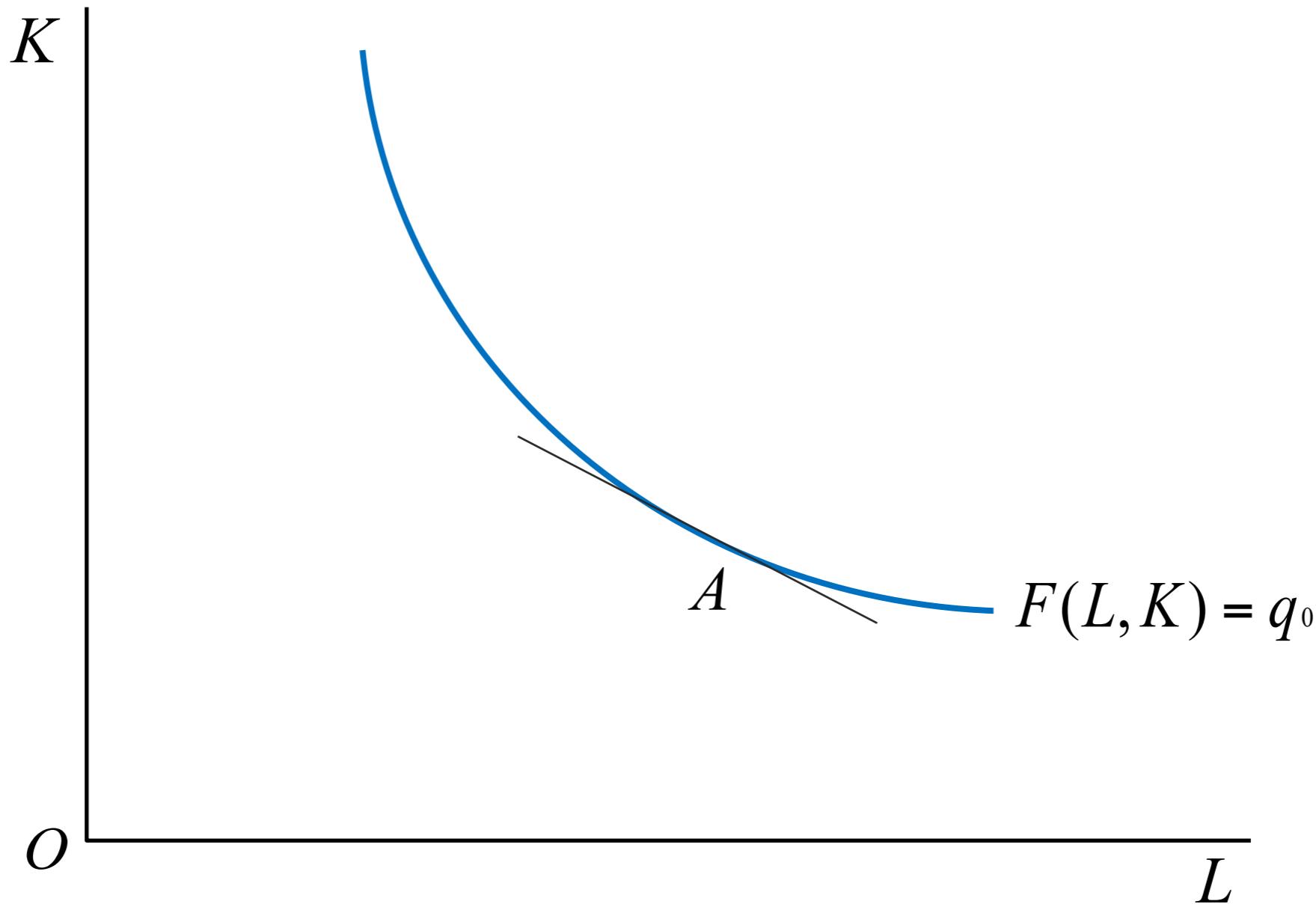
- 요소가격 변화 → 한계비용 변화 → 이윤극대화 산출량 변화
- 산출량의 변화로 인해 요소수요가 변하는 효과
  - 정상투입
  - 한계비용 상승 → 산출량 감소 → 요소수요 감소
  - 열등투입
  - 한계비용 하락 → 산출량 증가 → 요소수요 감소
  - 생산요소 가격 상승시 항상 요소수요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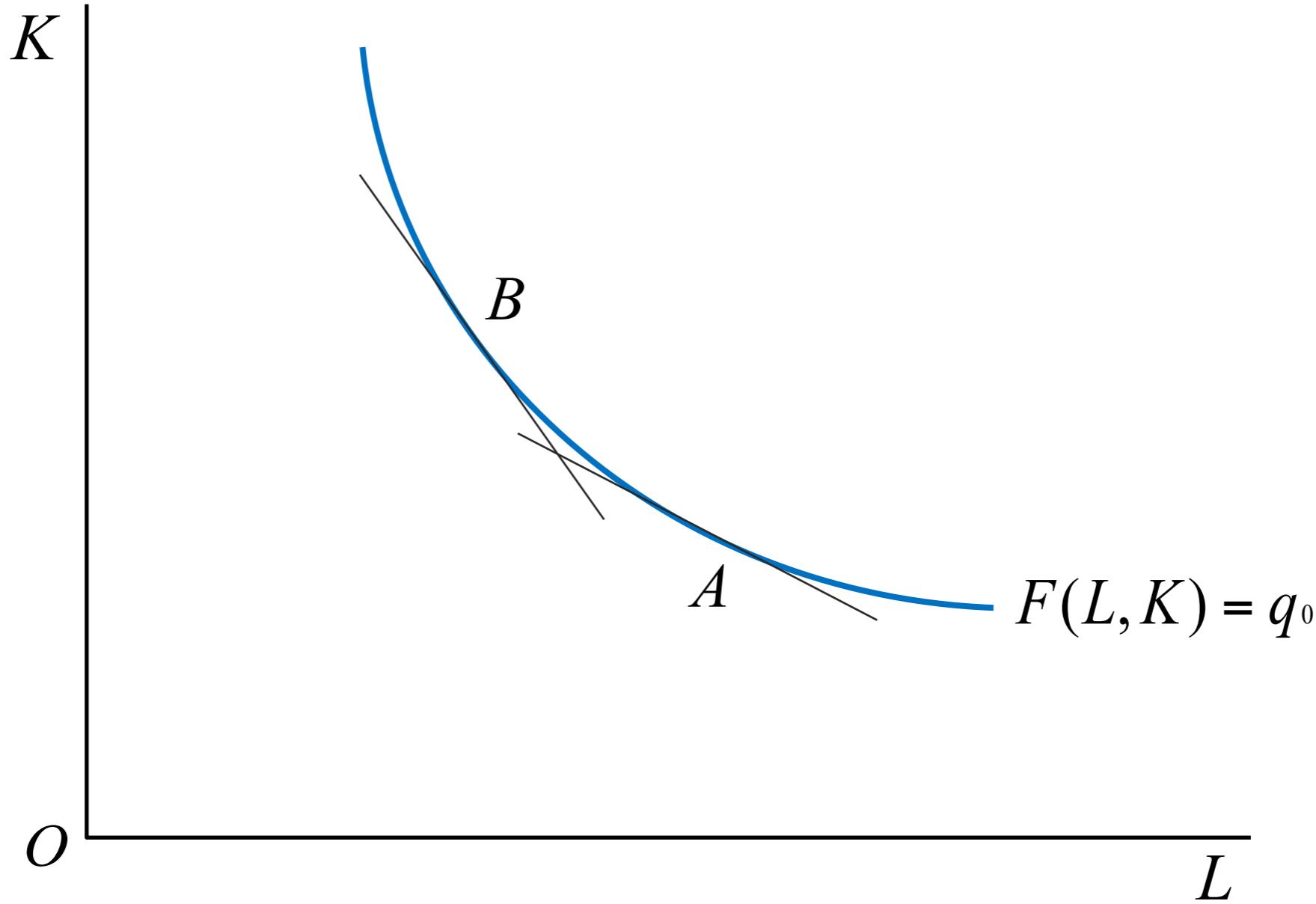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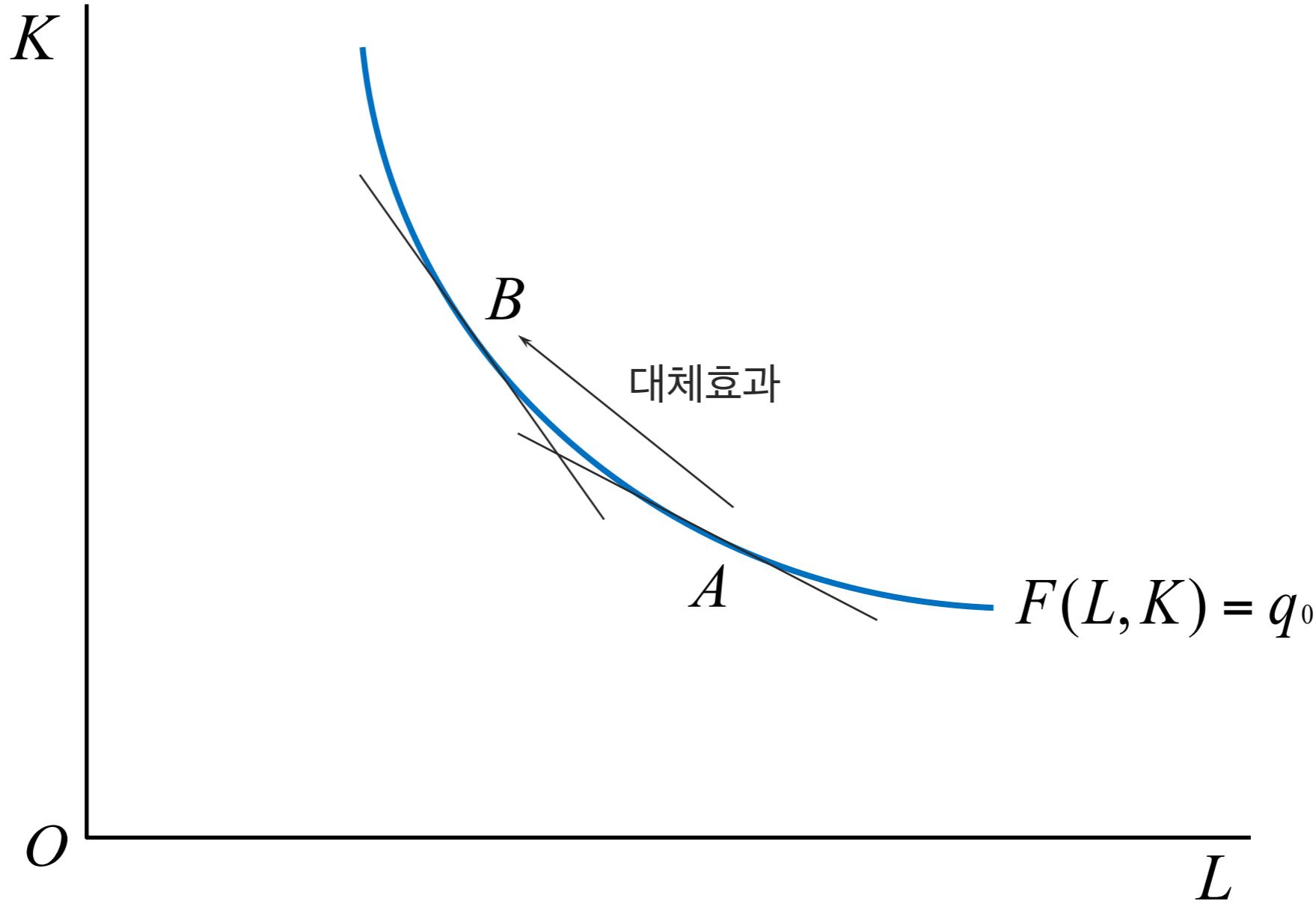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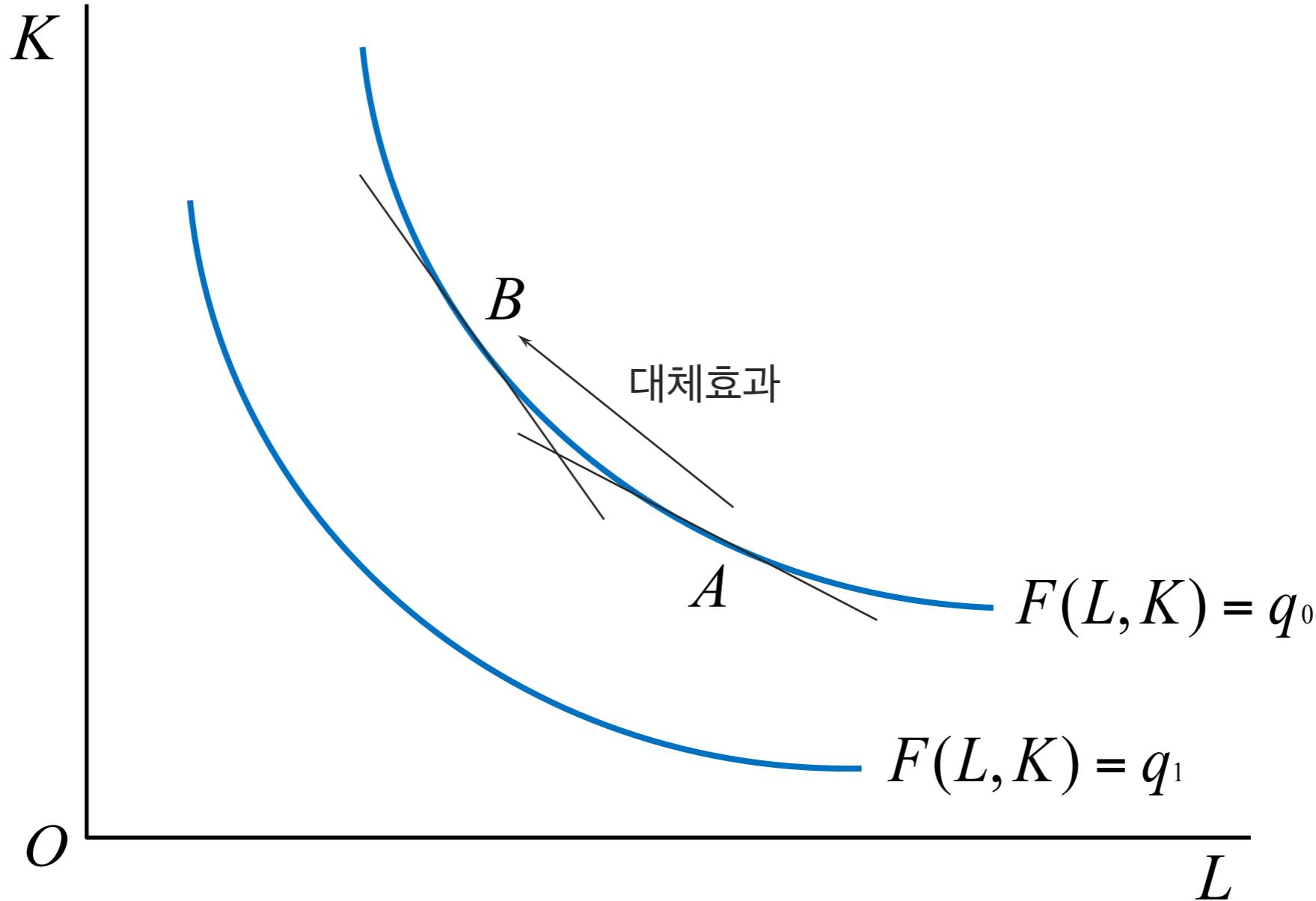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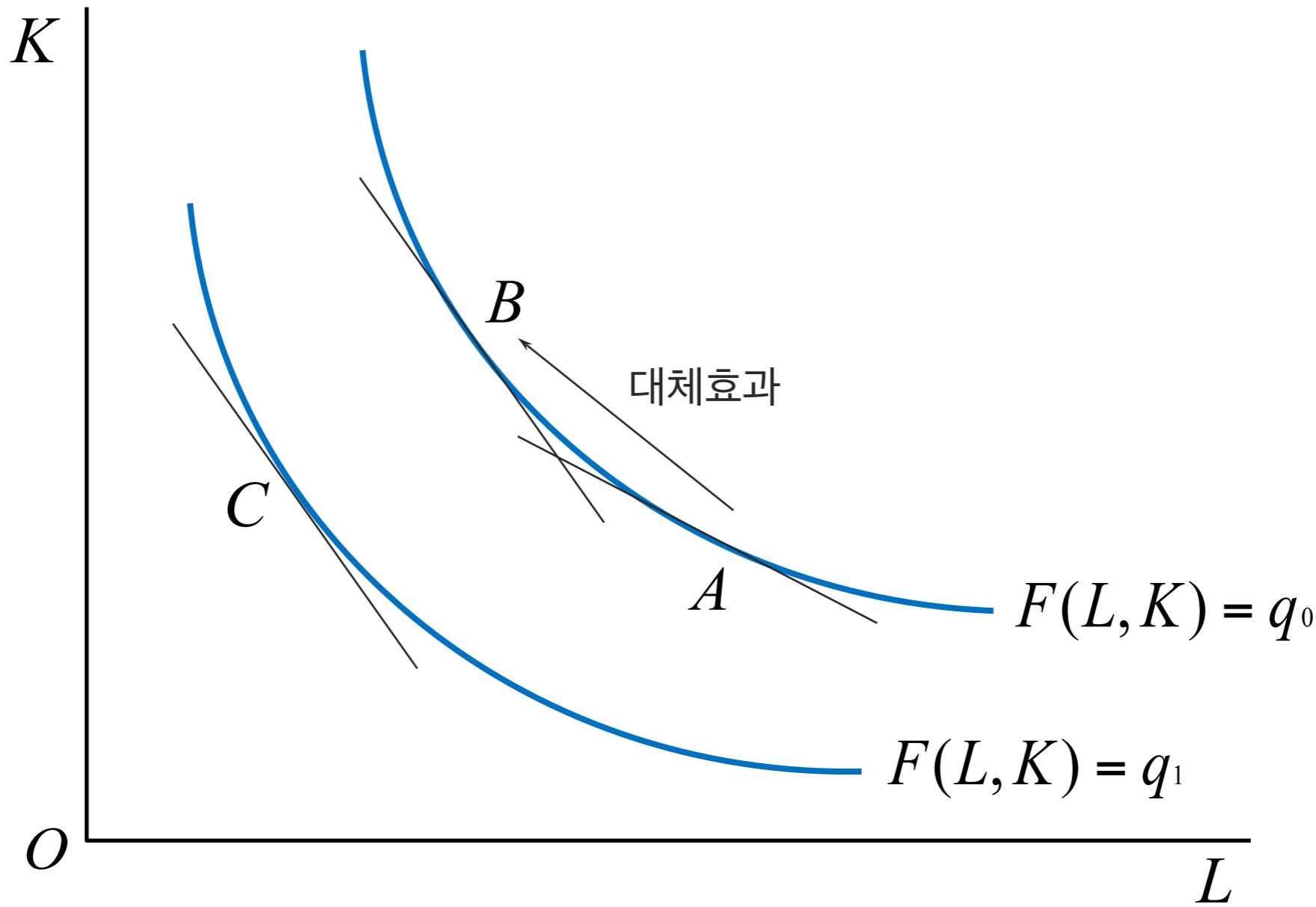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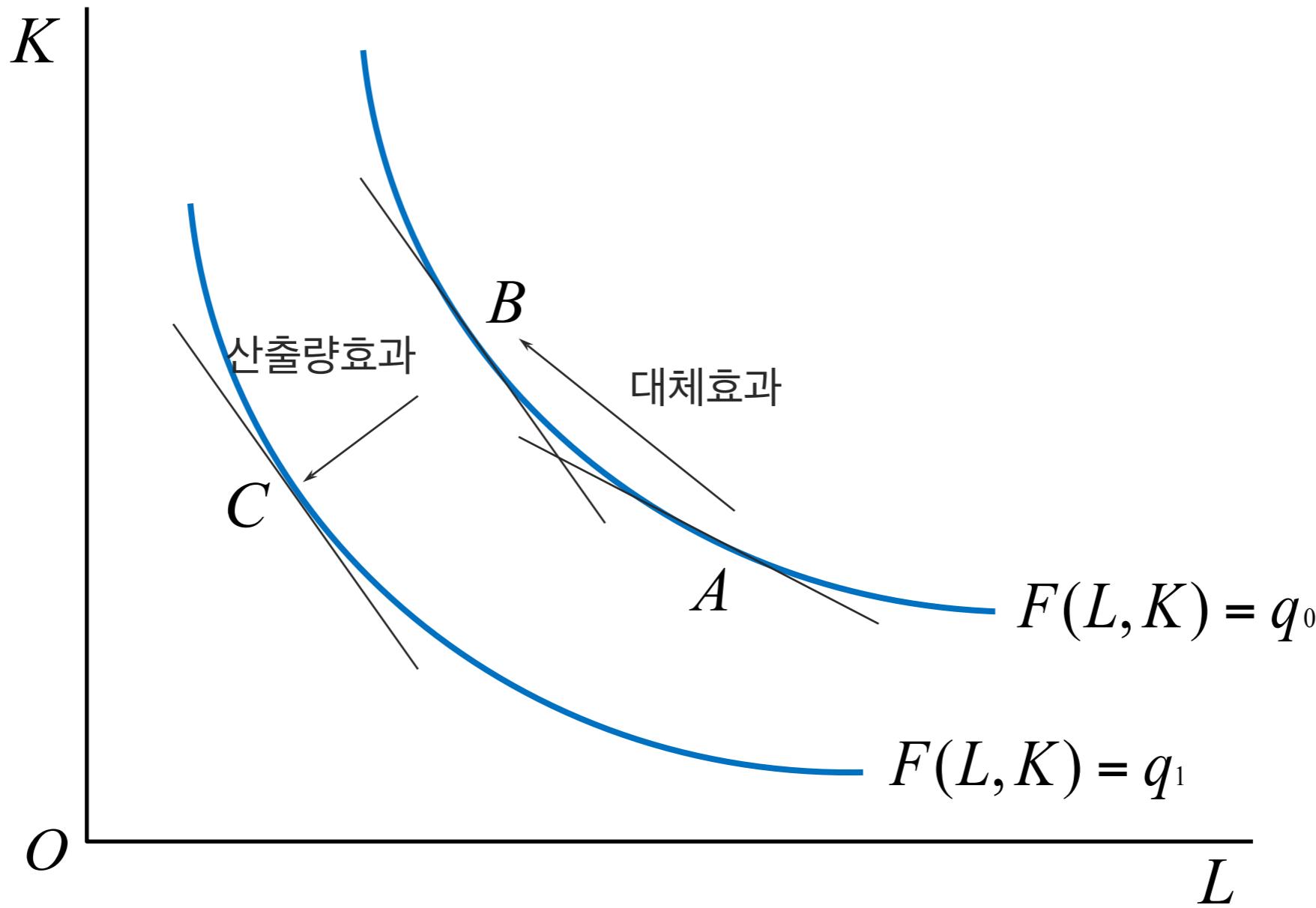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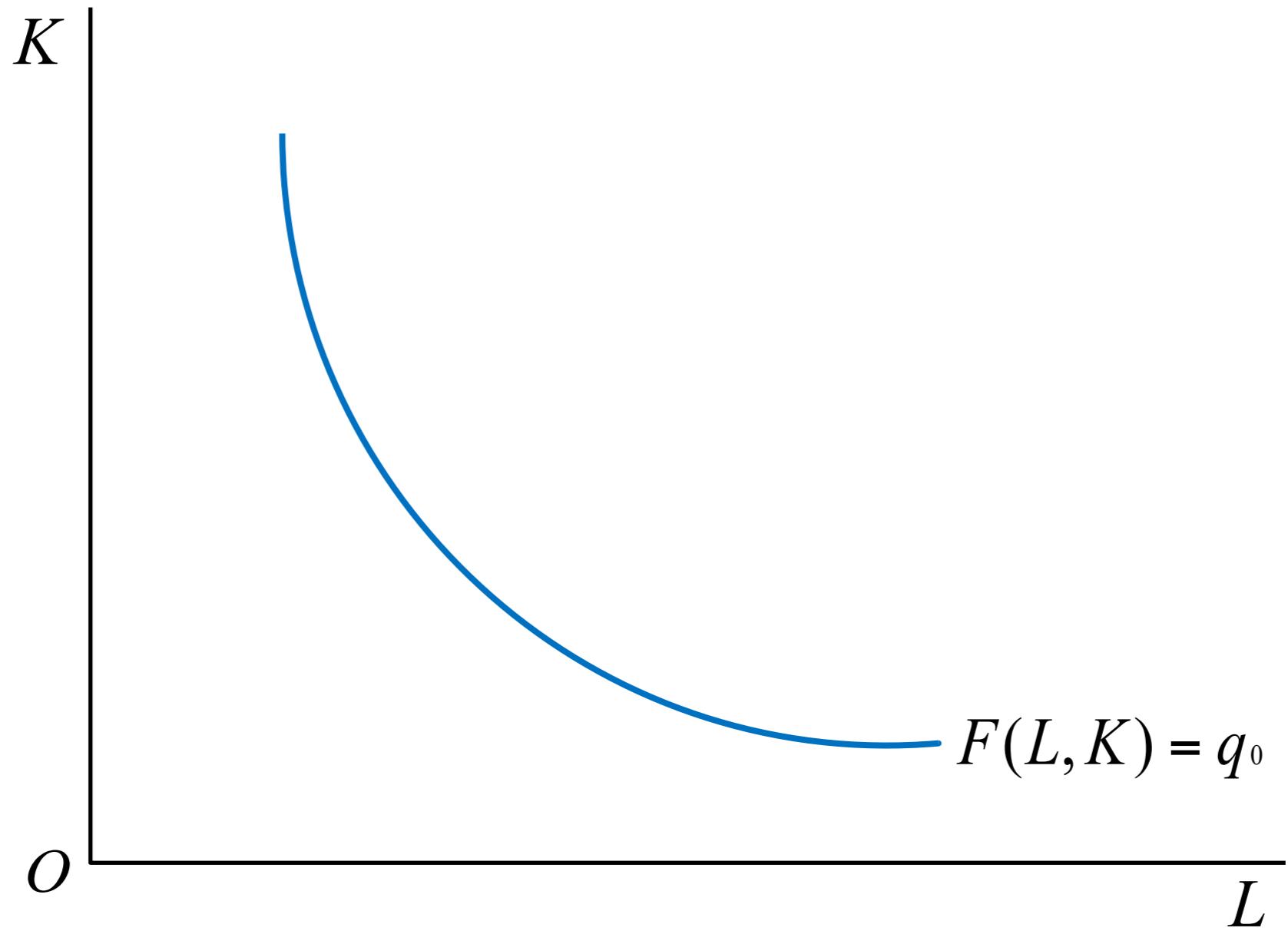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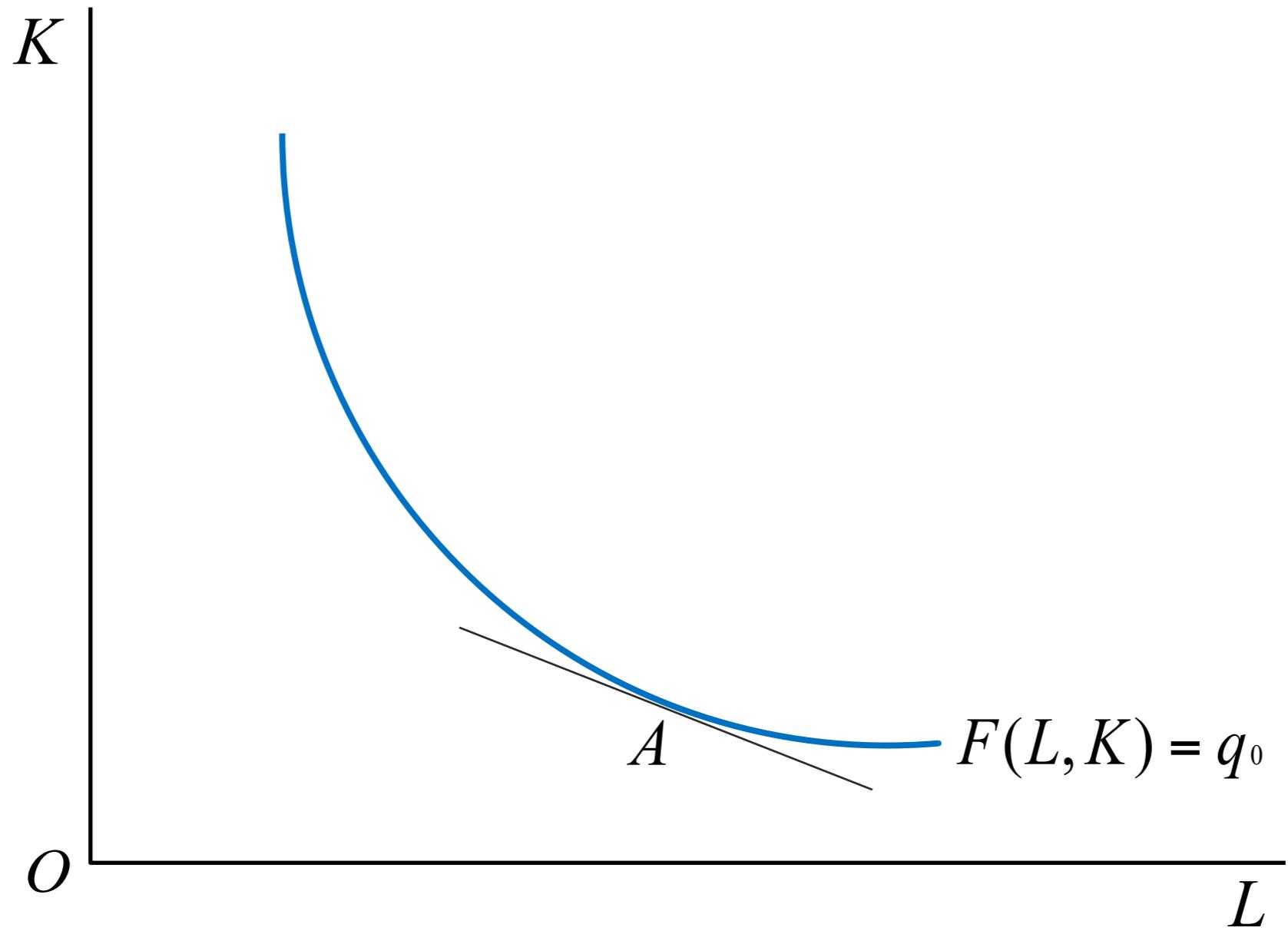
(a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정상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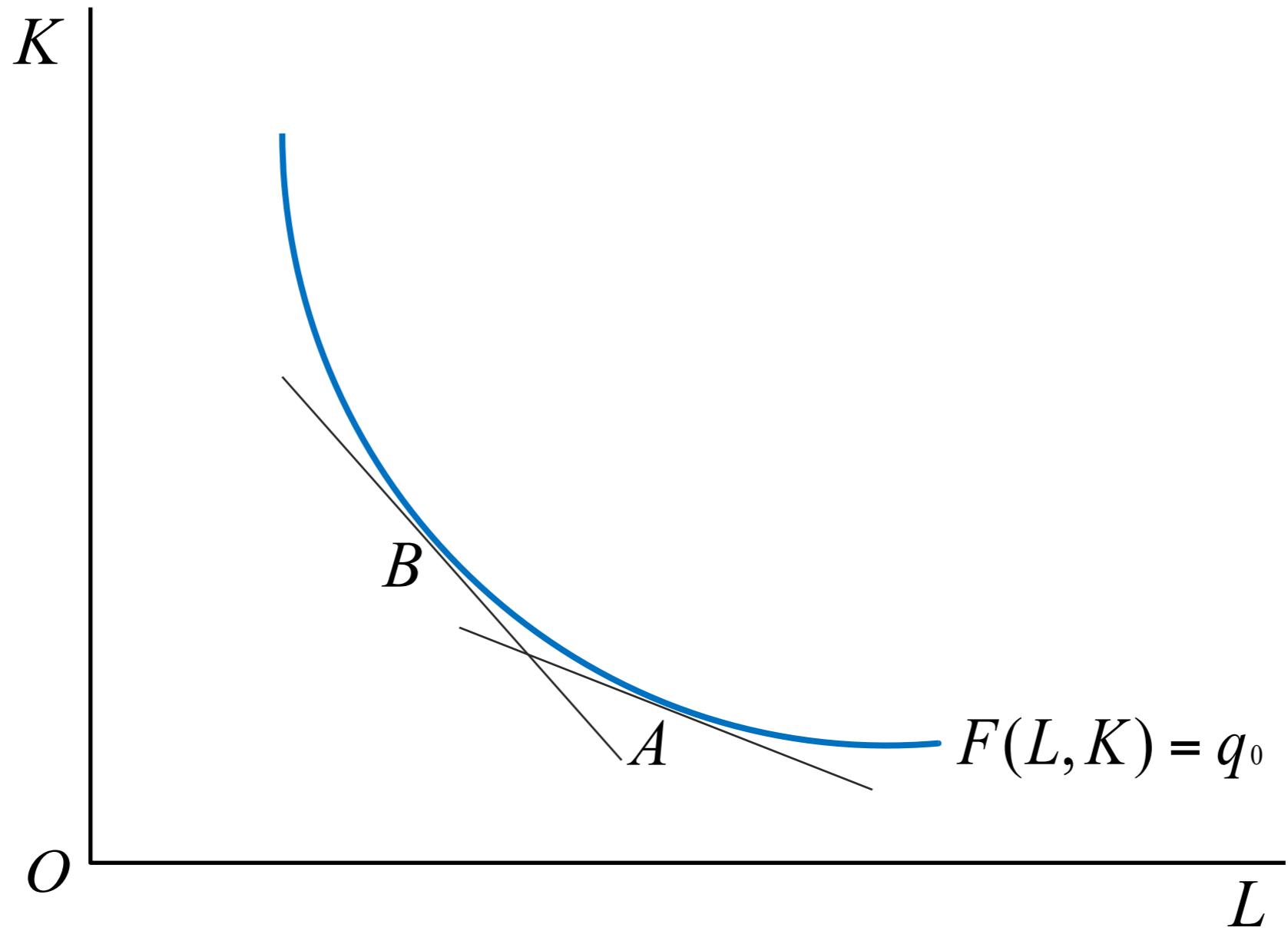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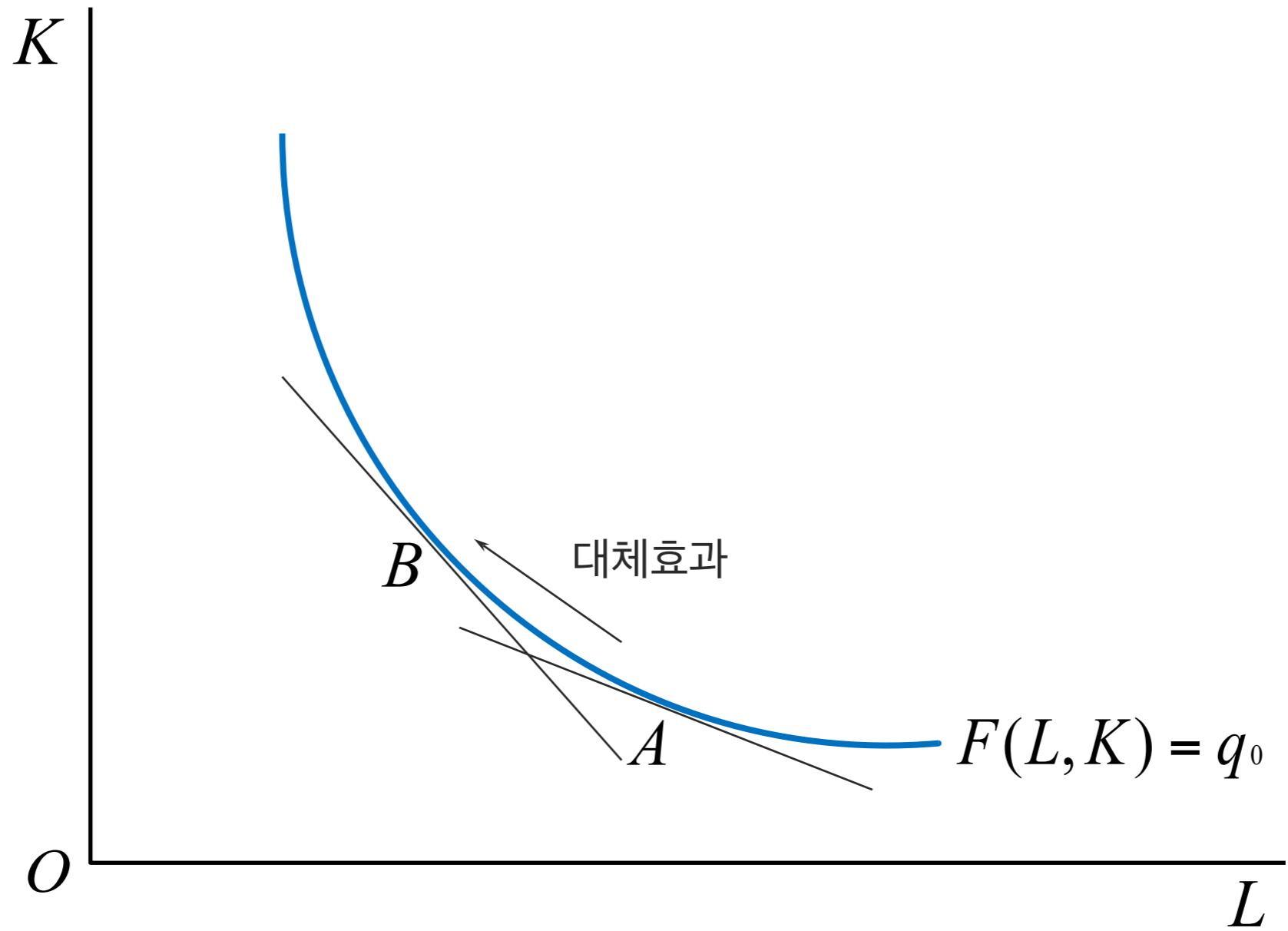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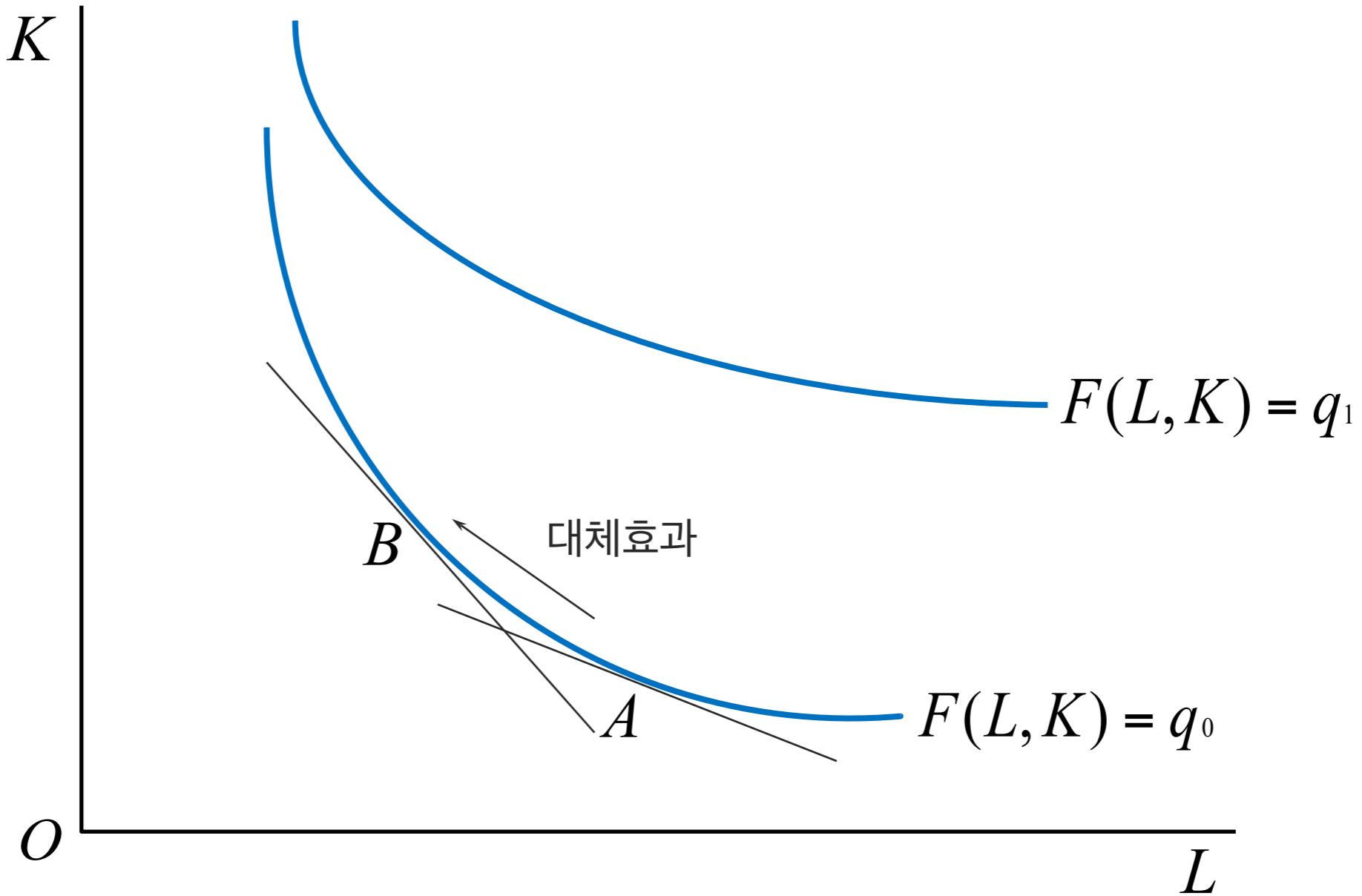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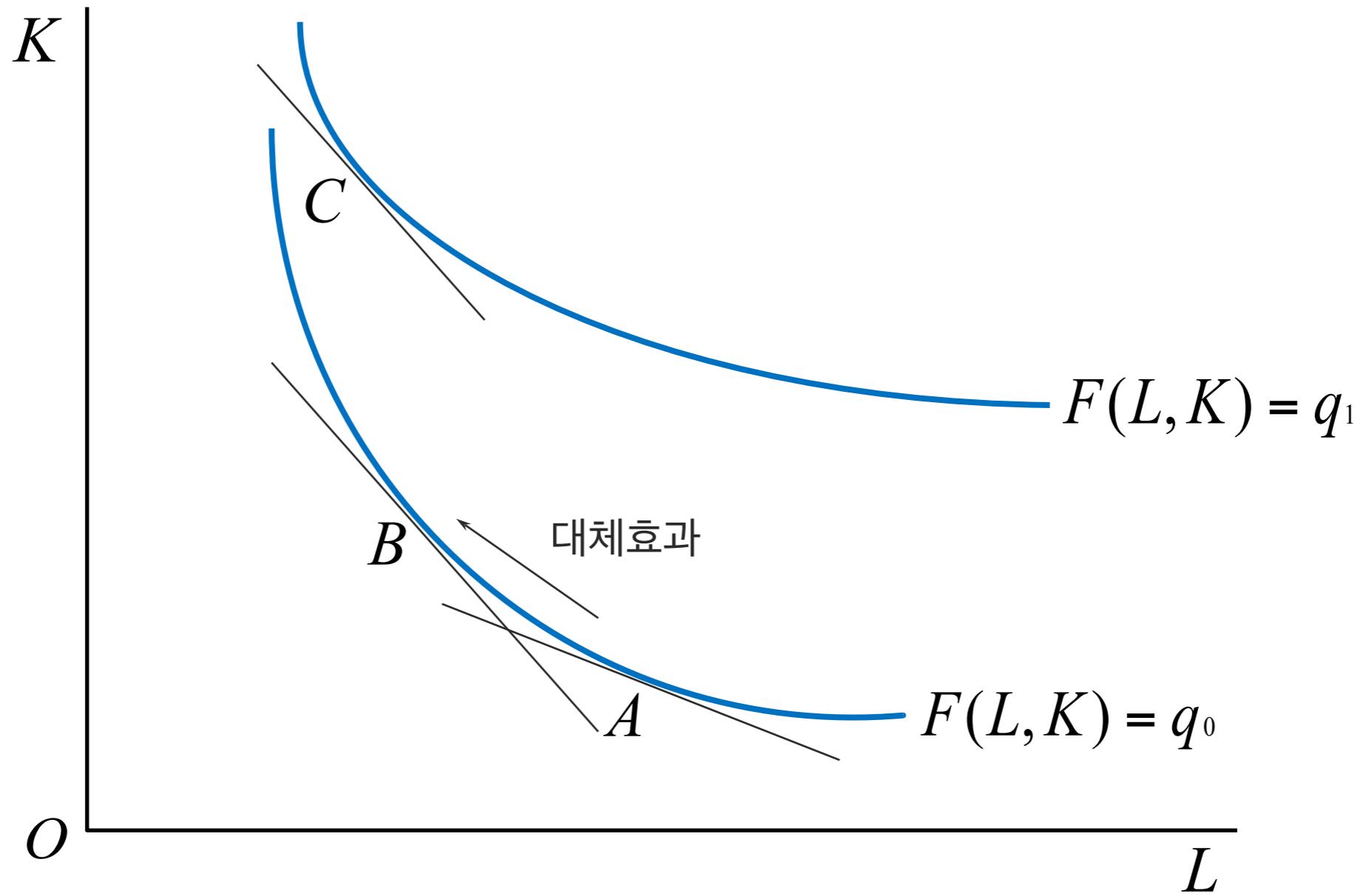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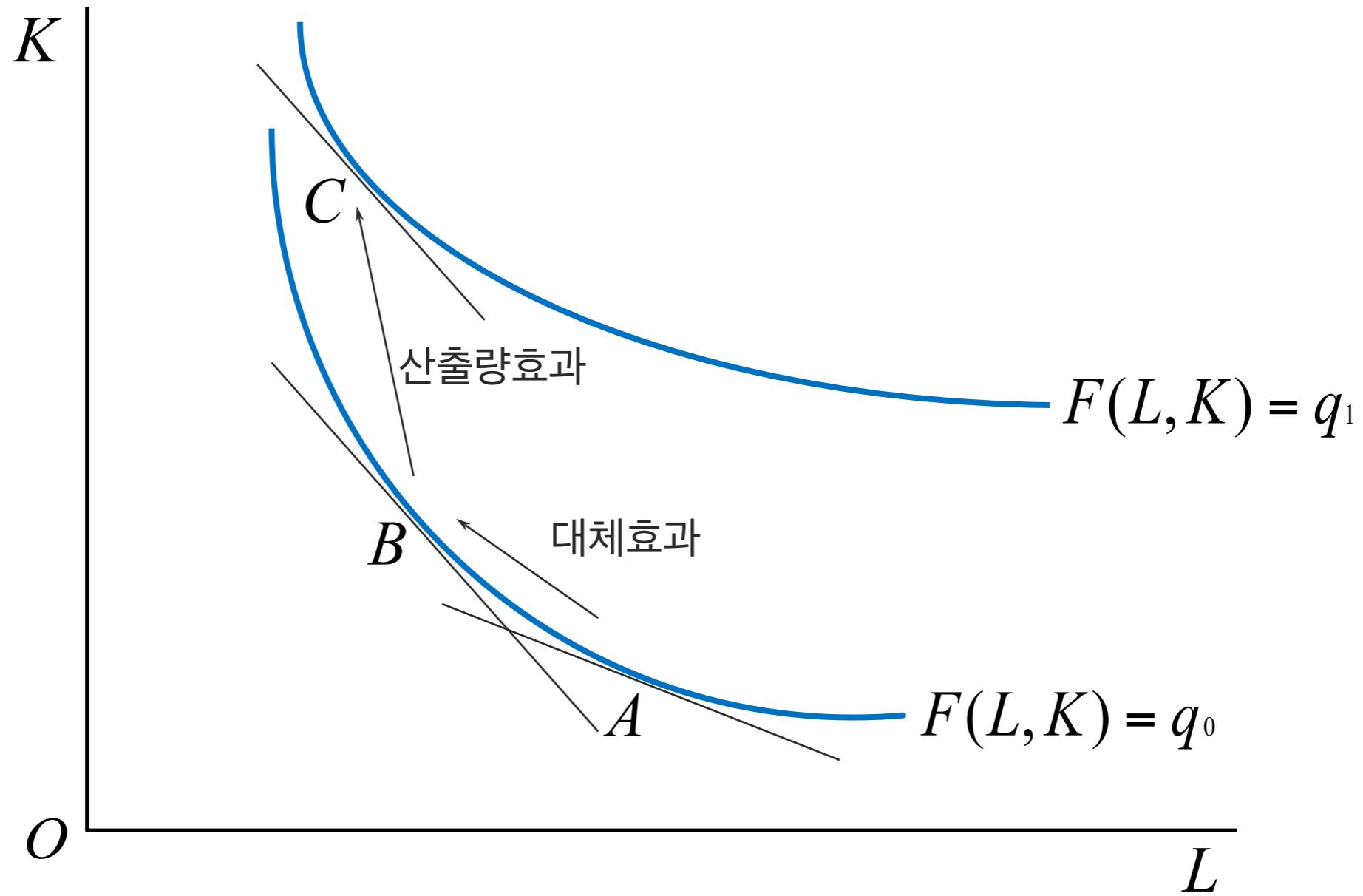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

(b) 임금상승시 노동의 요소수요는 감소함 : 열등투입

# 산출물 가격( $p$ )의 영향

- 대체효과는 없고, 산출량 효과만 발생
- 산출물 가격 상승 → 이윤극대화 산출량 증대
- 정상투입 → 수요 상승
- 열등투입 → 수요 감소

# 기술 진보의 영향

- 기술 진보의 성격에 따라 요소 수요의 변화가 다름
- 단기, 노동의 한계생산을 일정하게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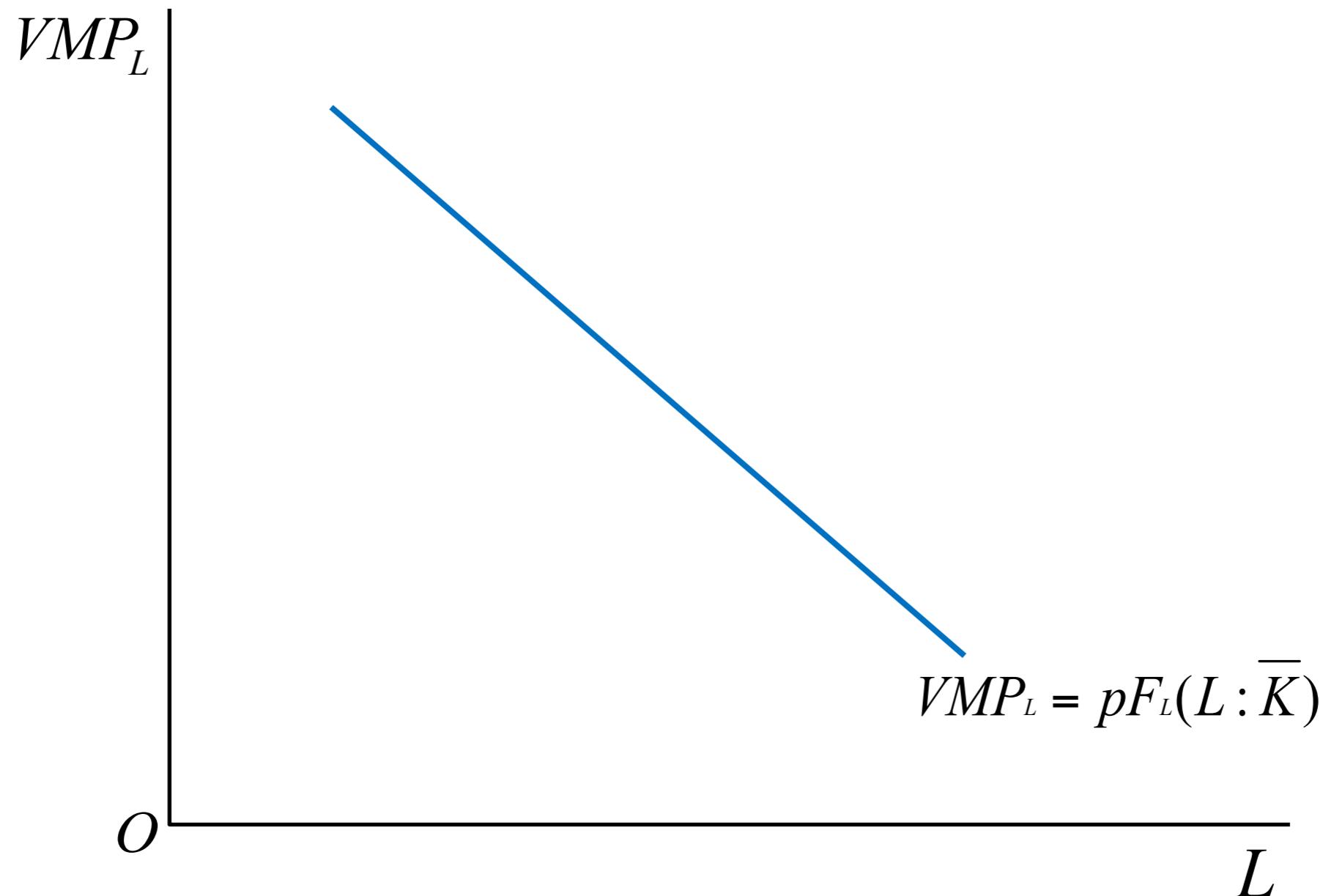
$$q = F(L : \bar{K}) \rightarrow q = AF(L : \bar{K})$$

- A배 만큼 산출량 증가  $\rightarrow VMP_L$ 이 A배 만큼 상승  $\rightarrow$  노동 수요 증가
- 노동의 한계생산이
  - 초기에는 크게 증대,
  - 노동 투입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급격히 감소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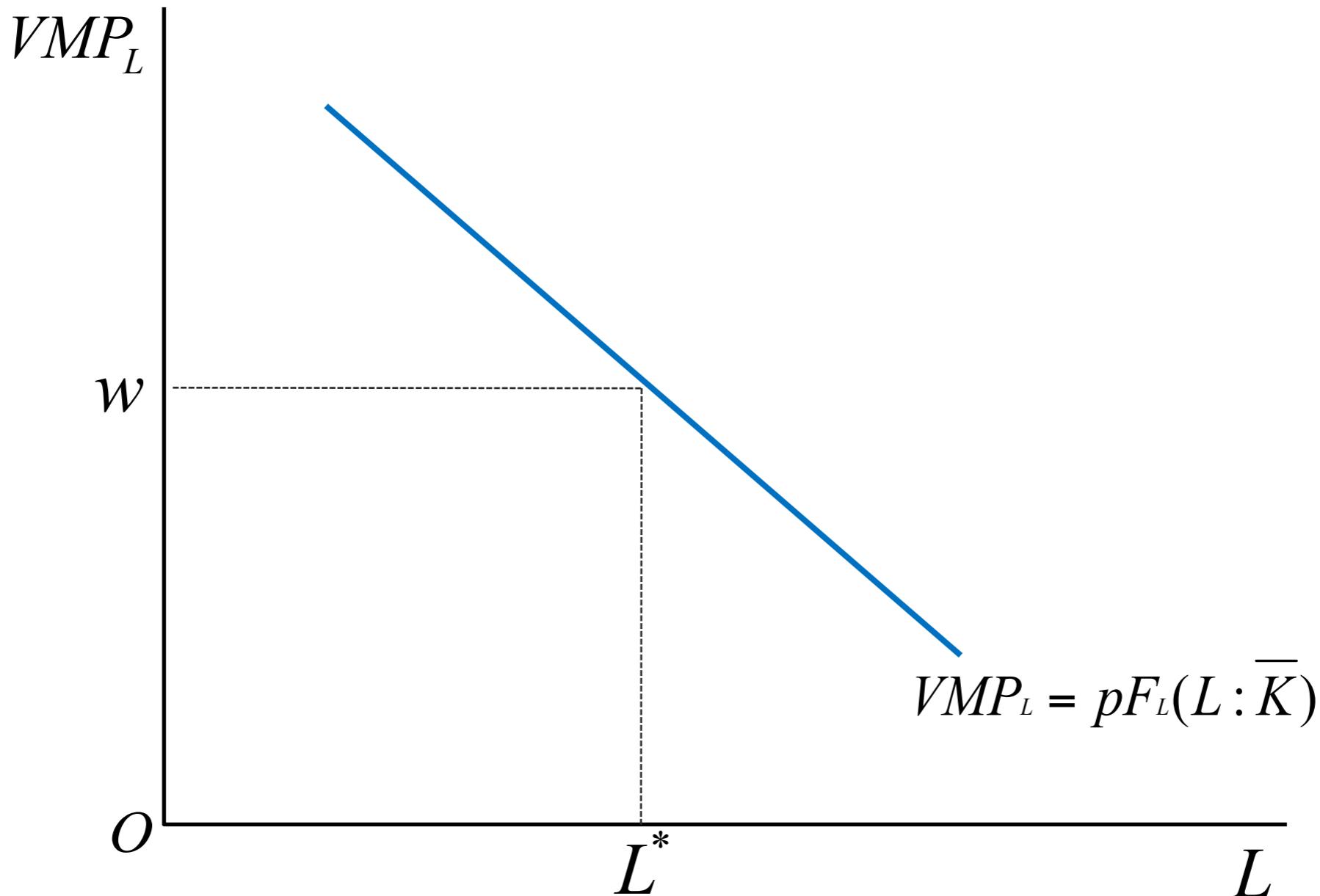
## 생산기술의 진보 - A배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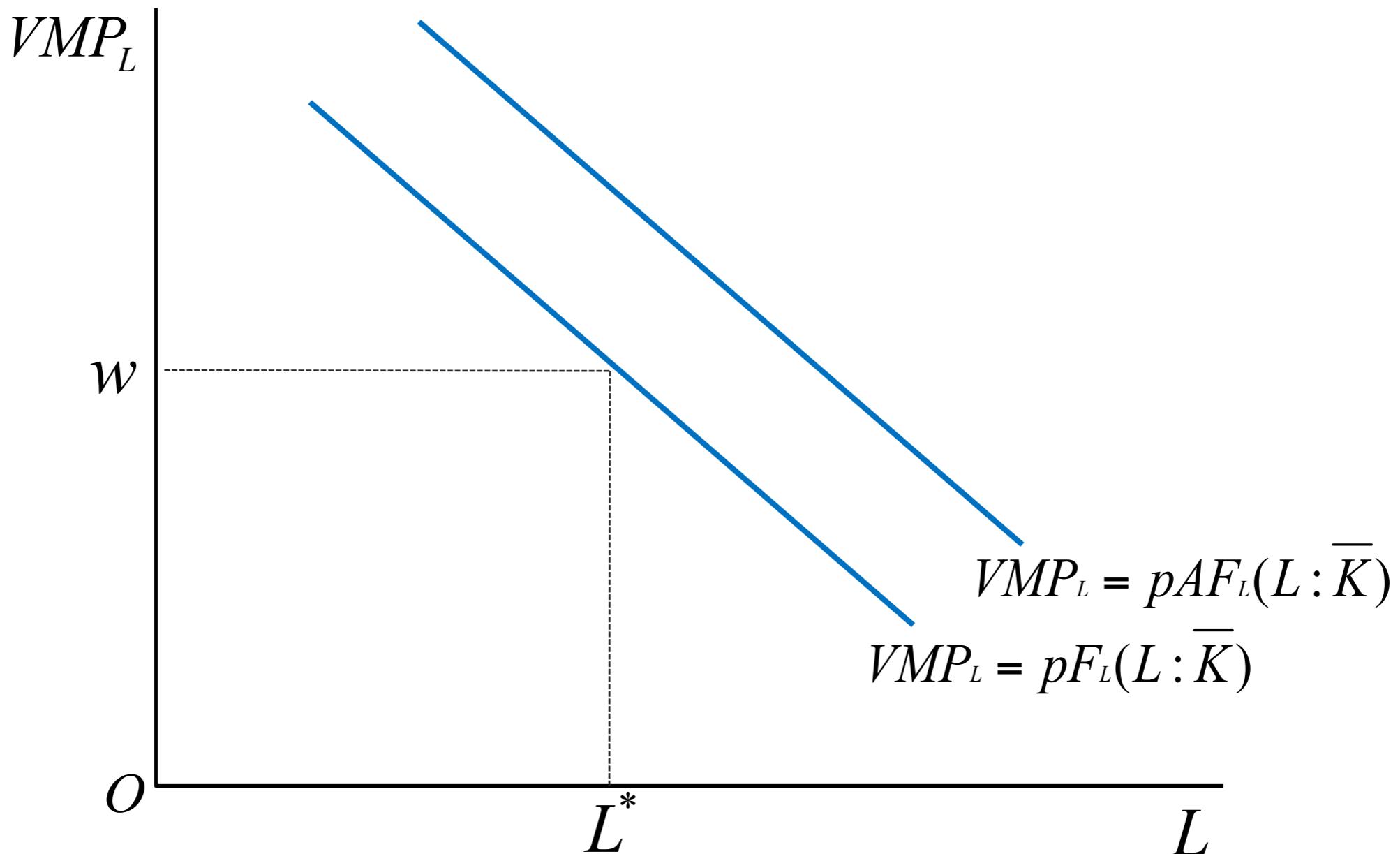
## 생산기술의 진보 - A배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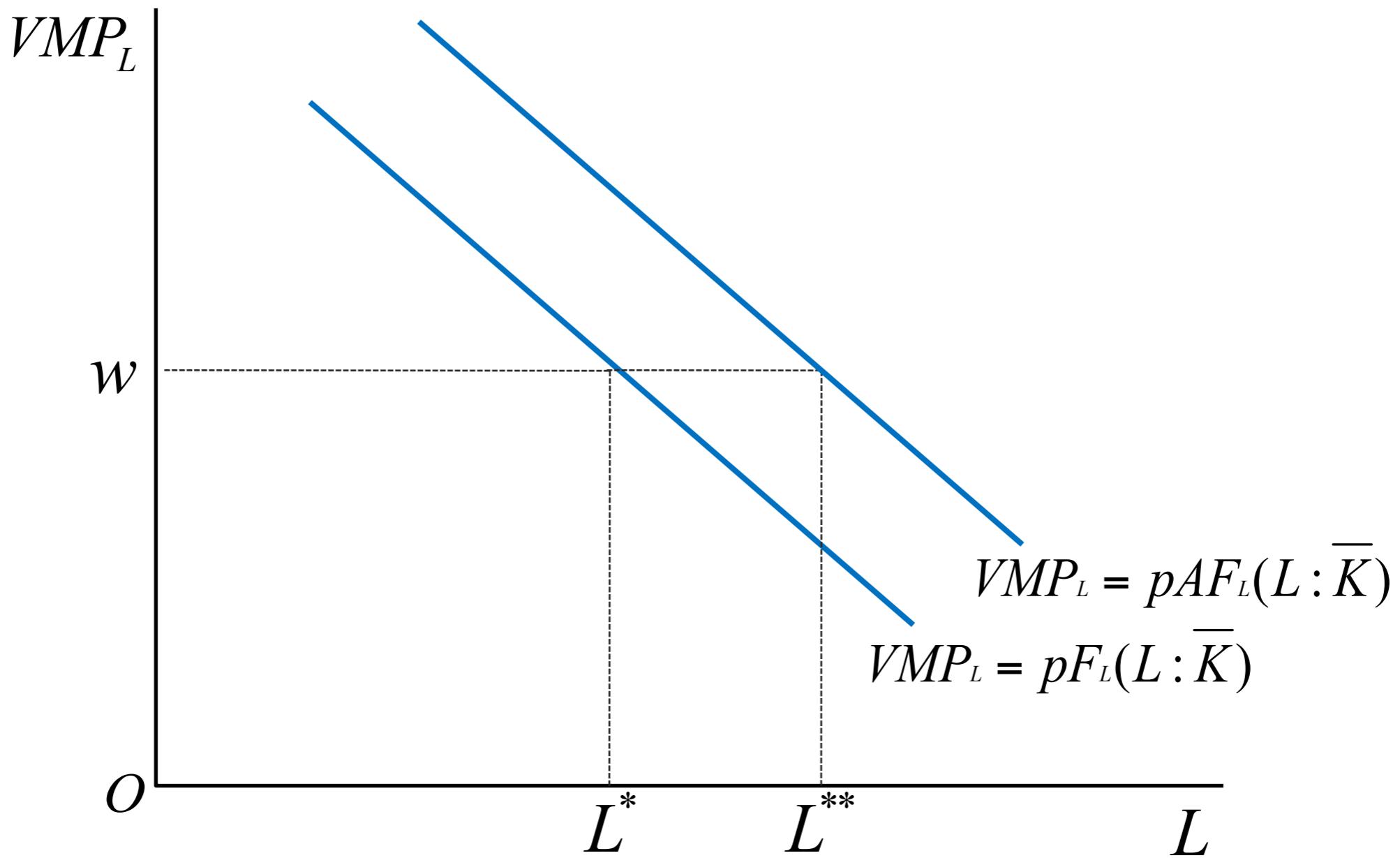
## 생산기술의 진보 - A배 증가



## 생산기술의 진보 - A배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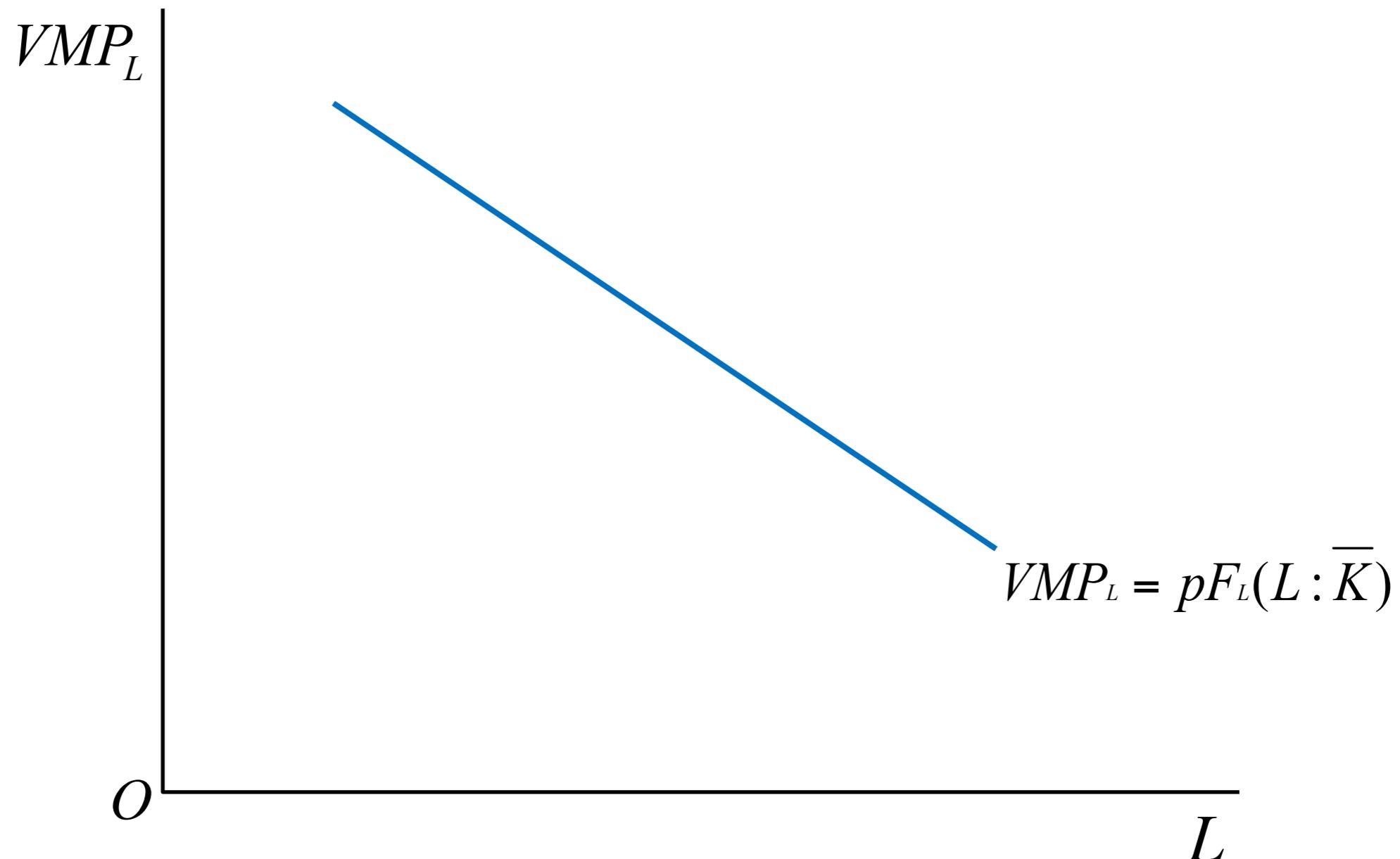
## 생산기술의 진보 - A배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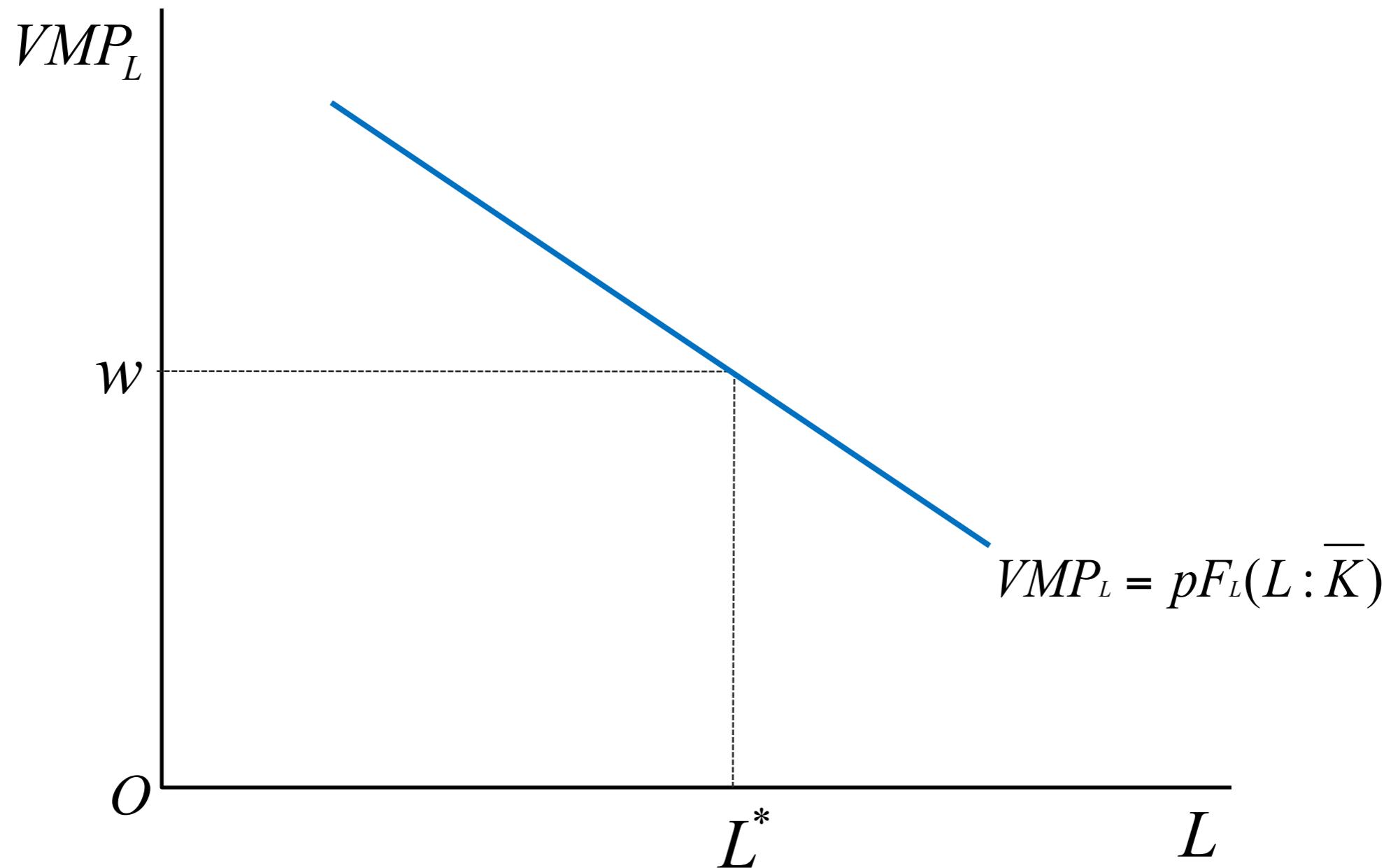
생산기술의 진보 - 한계생산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, 어떤 투입량 이후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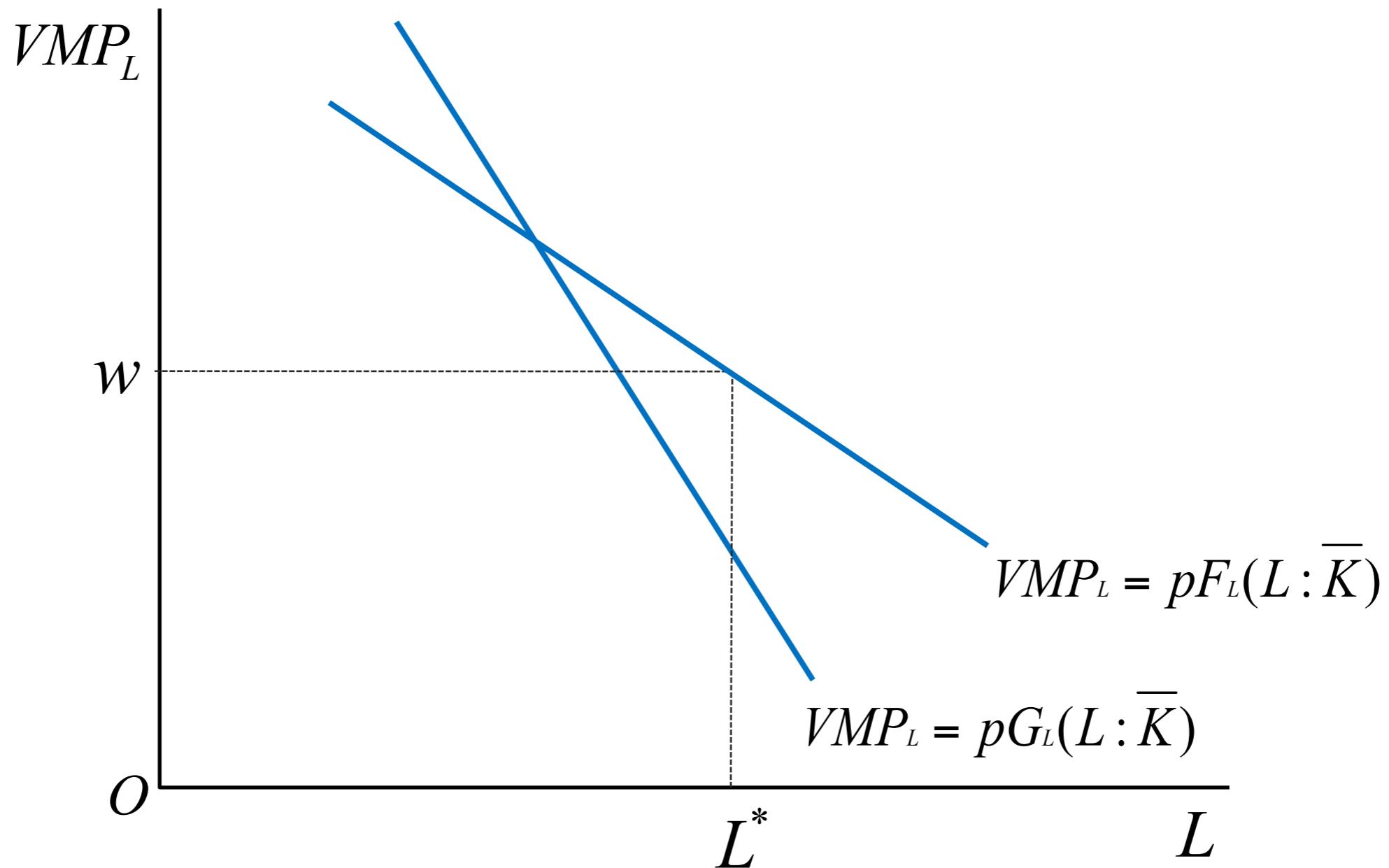
생산기술의 진보 - 한계생산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, 어떤 투입량 이후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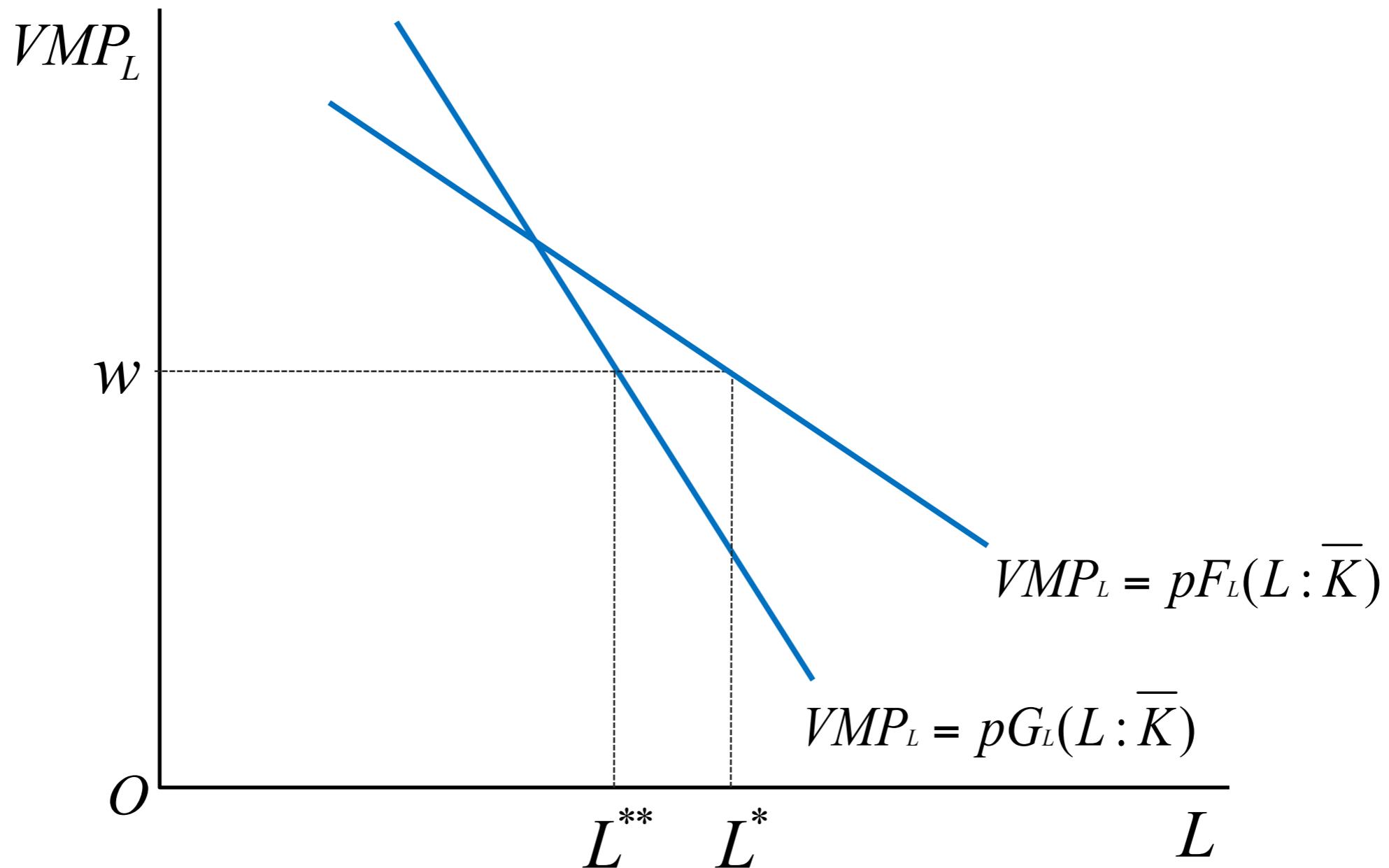
생산기술의 진보 - 한계생산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, 어떤 투입량 이후 감소



생산기술의 진보 - 한계생산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, 어떤 투입량 이후 감소



생산기술의 진보 - 한계생산이 초기에 급격히 증가, 어떤 투입량 이후 감소



# 기술진보의 성격

- 생산요소의 전체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간의 상대적 수요 비율도 변화
- 중립적 기술진보
  - 모든 생산요소 한계생산이 같은 비율로 증대
  - → 모든 생산요소 수요 증가
- 노동확장적 기술진보
  - 노동의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보다 더 많이 증대
-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  - 자본의 생산성이 노동의 생산성보다 더 많이 증대
  -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등량곡선이 안쪽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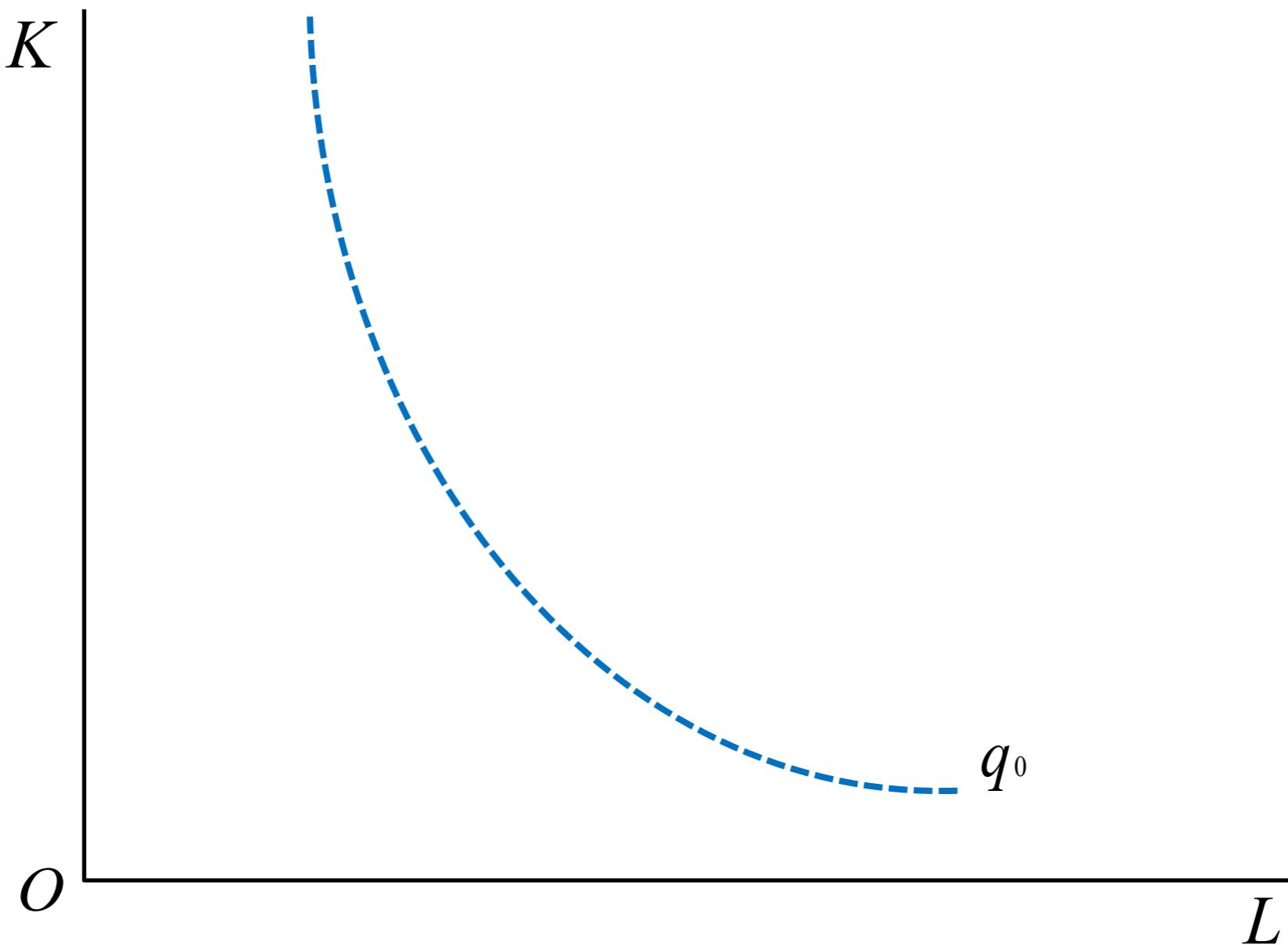
# 대체효과, 수량효과

- 대체효과
  - 생산요소를 덜 사용하고도 같은 산출량을 생산
  - 자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
  - 자본투입량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거나 상승
- 산출량 효과
  - 한계비용의 하락으로 산출량 증대
  - 자본, 노동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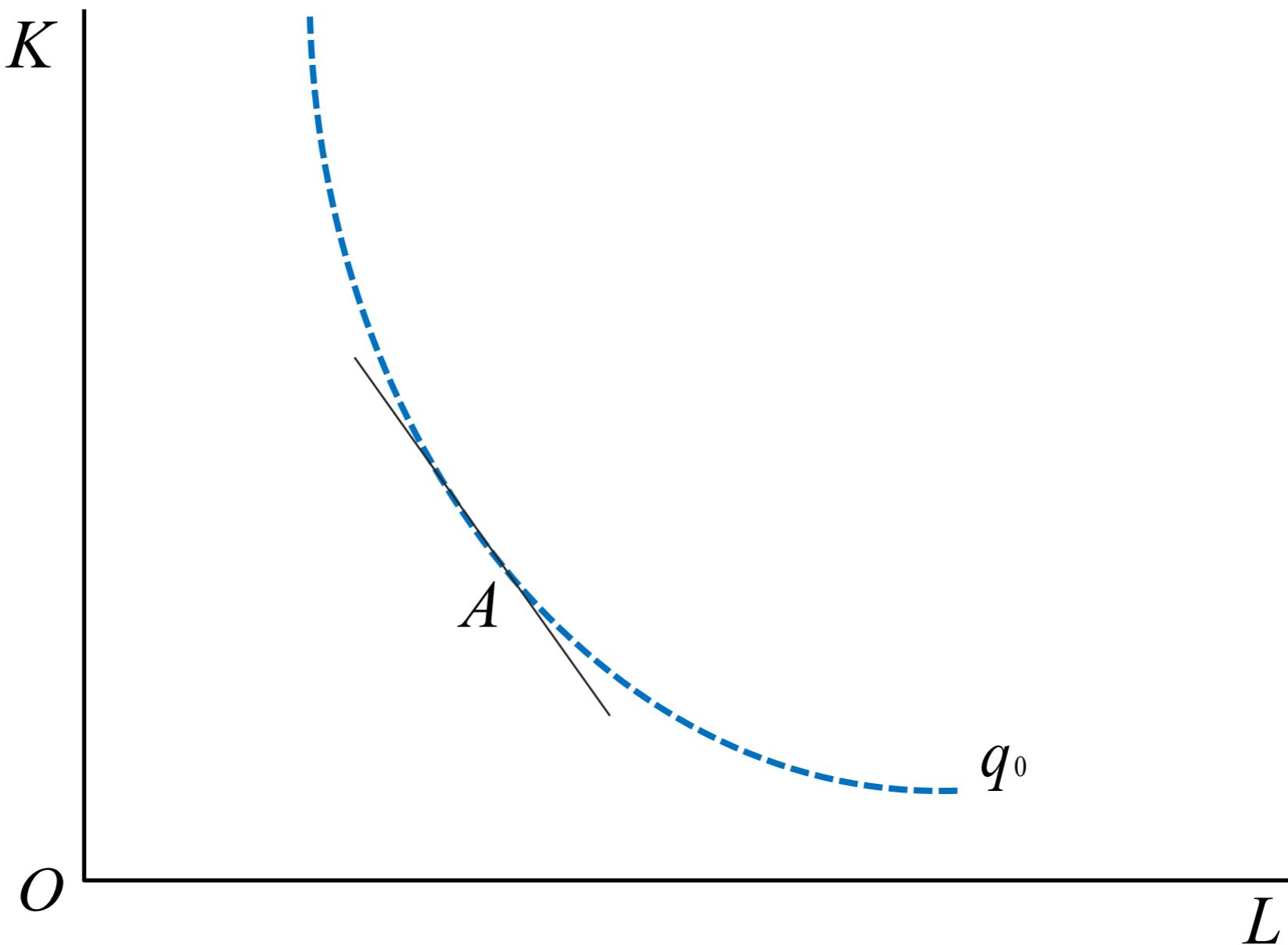
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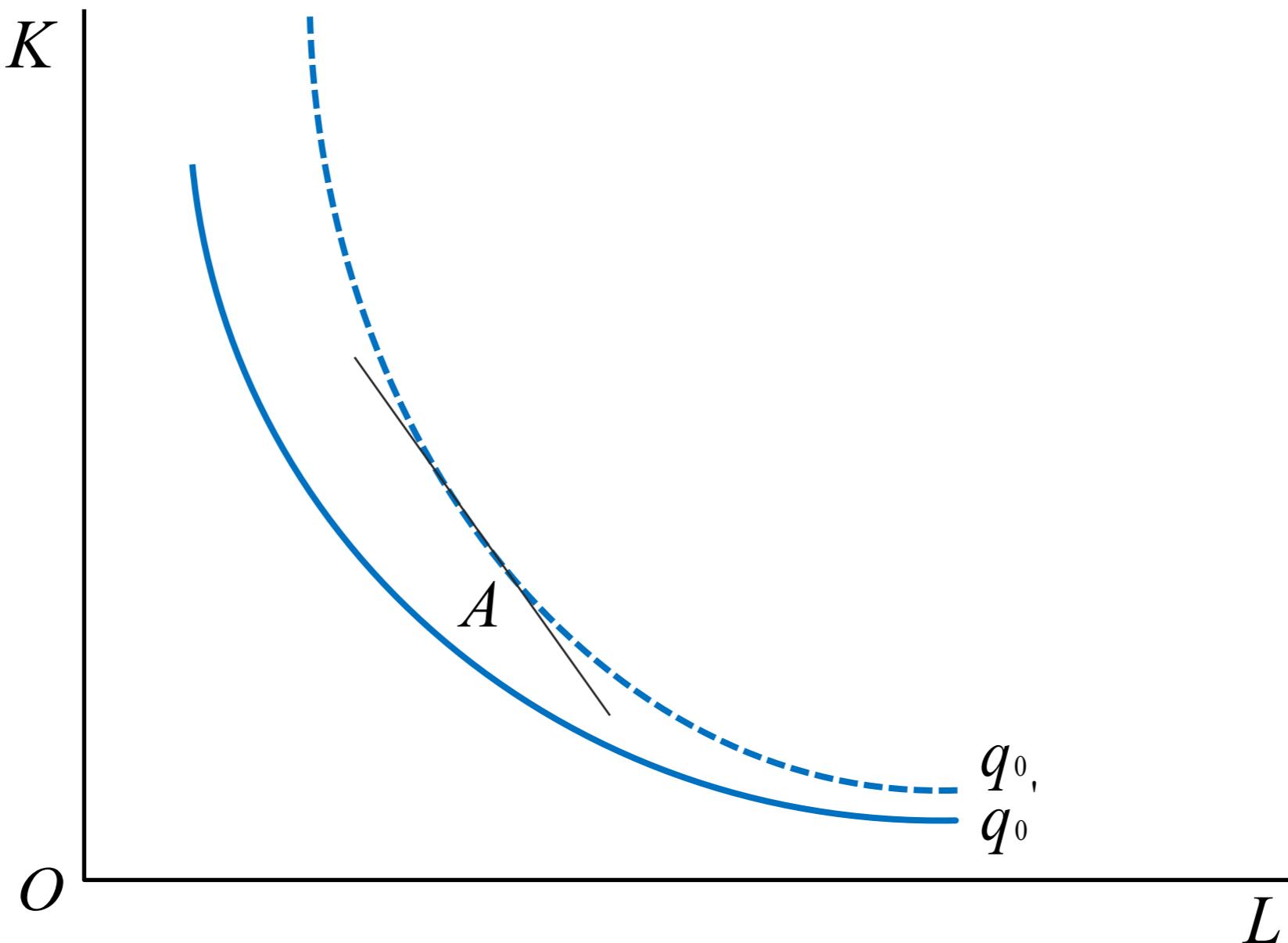
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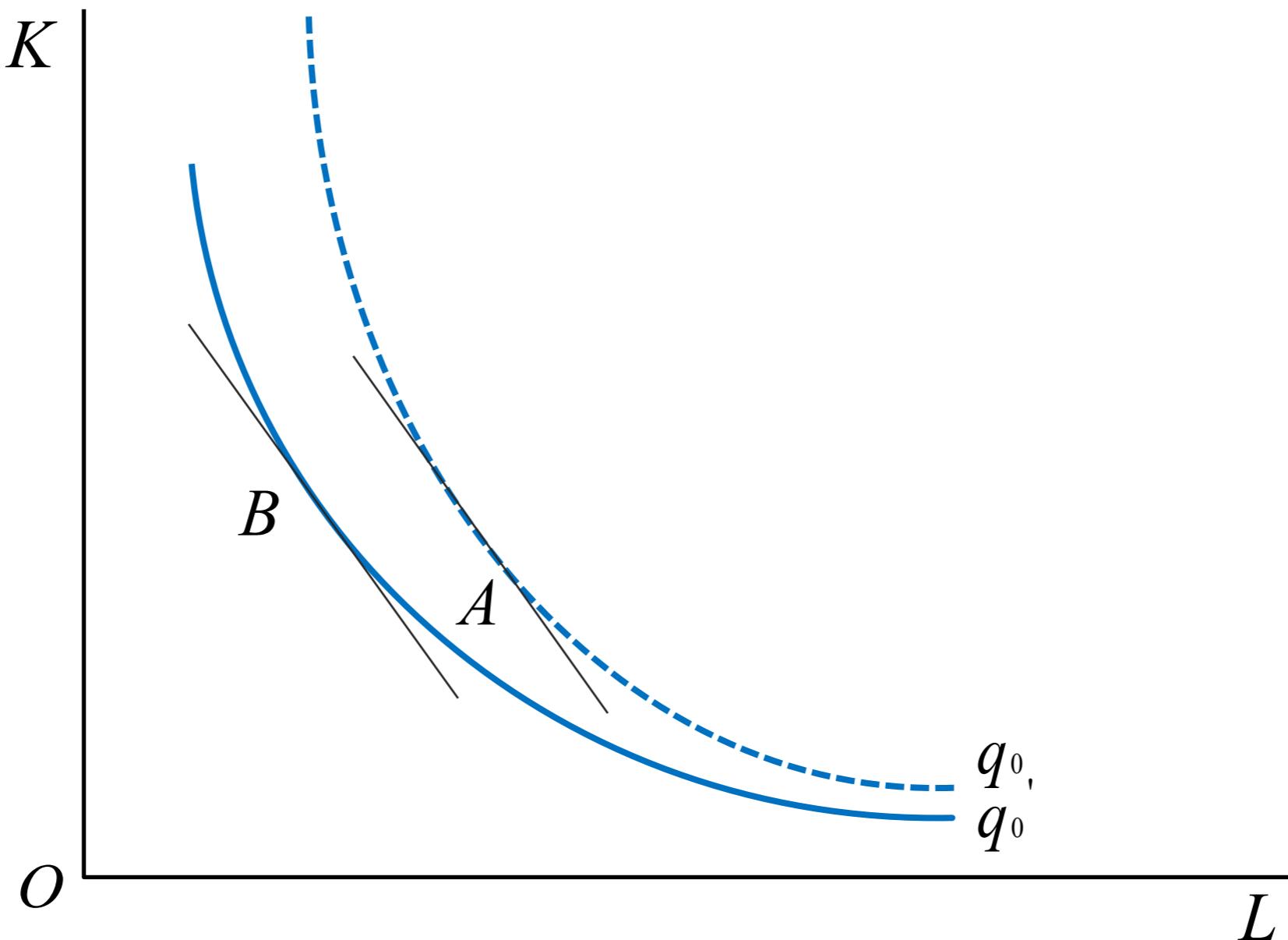
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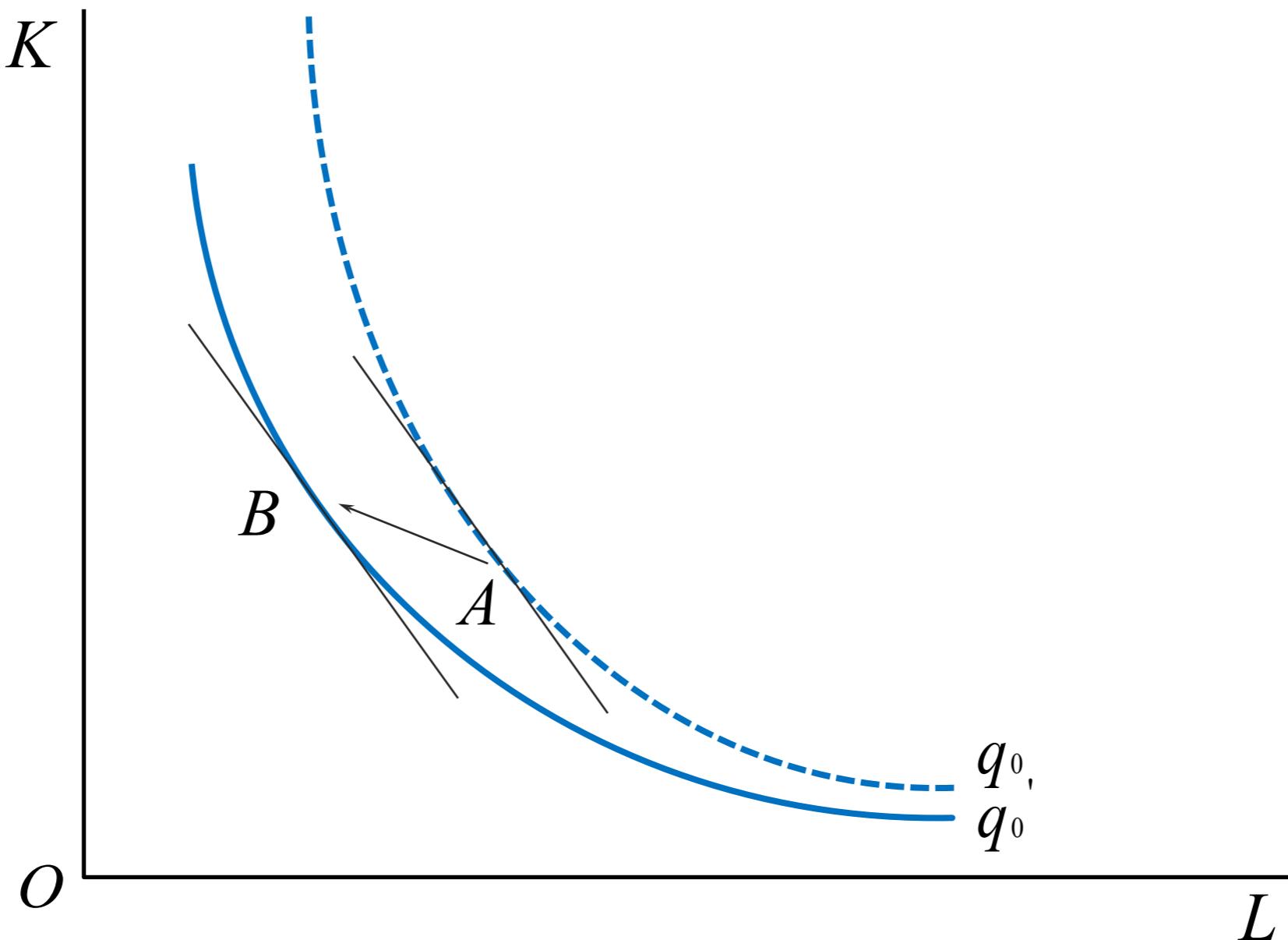
#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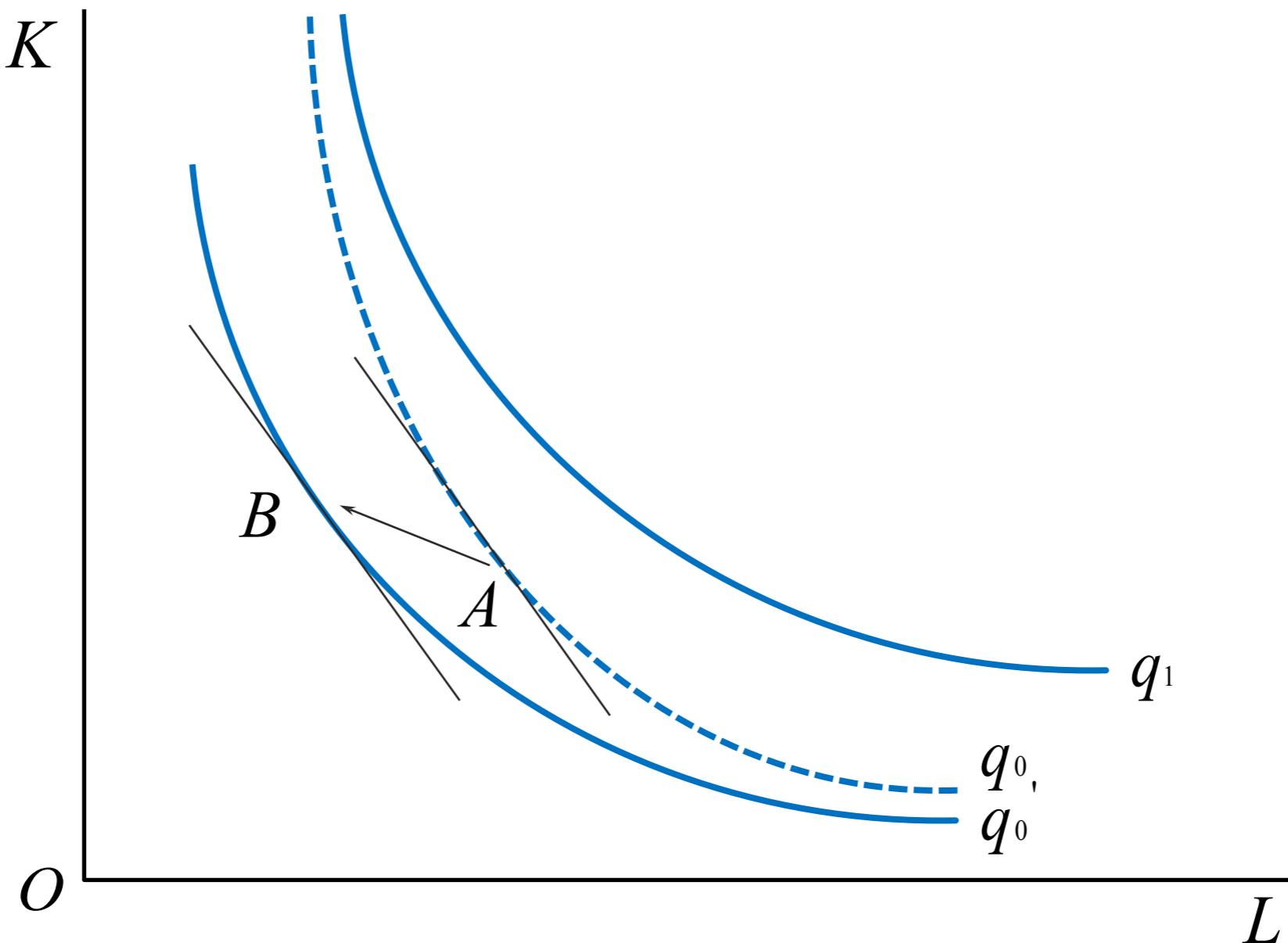
#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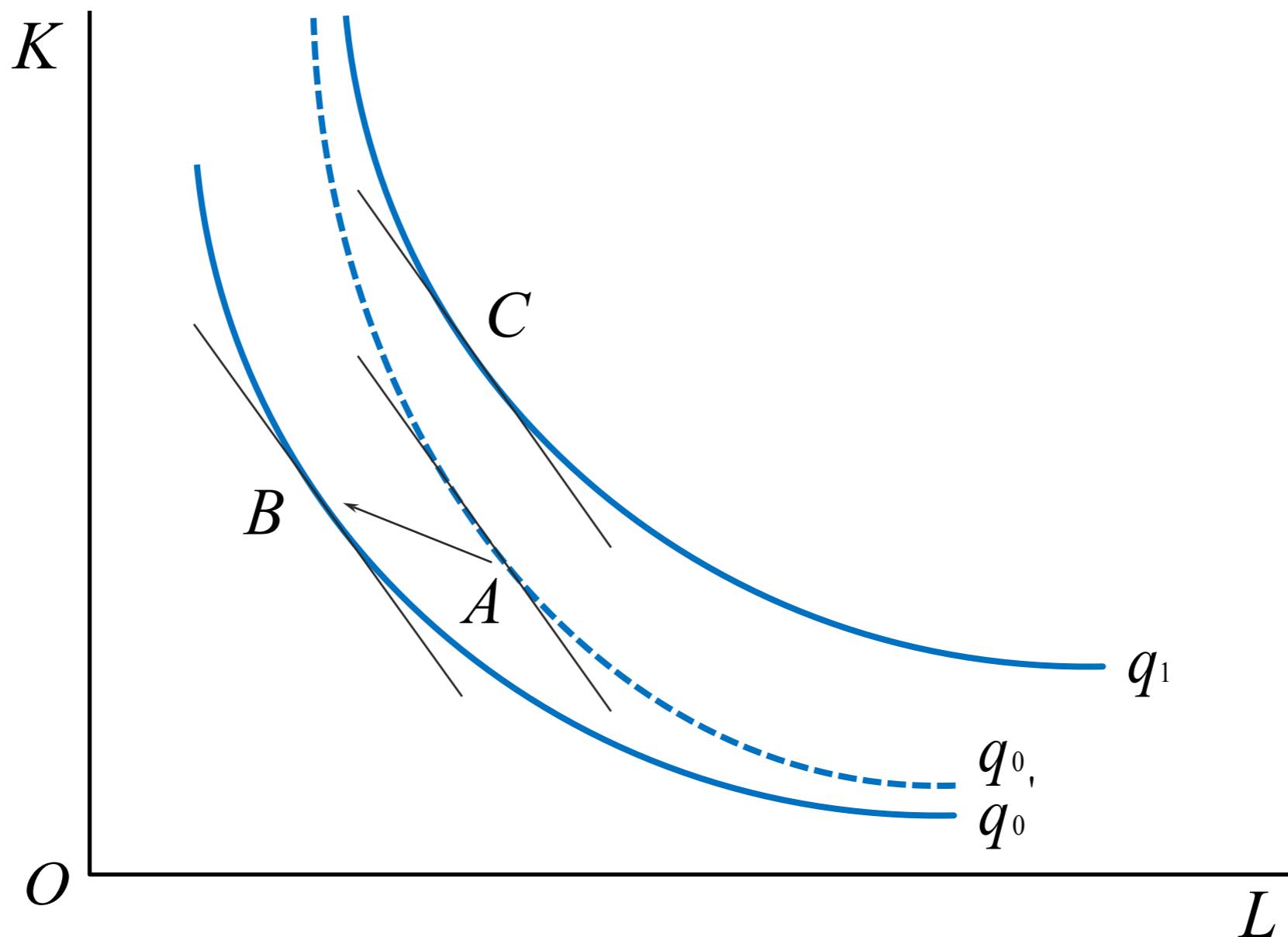
#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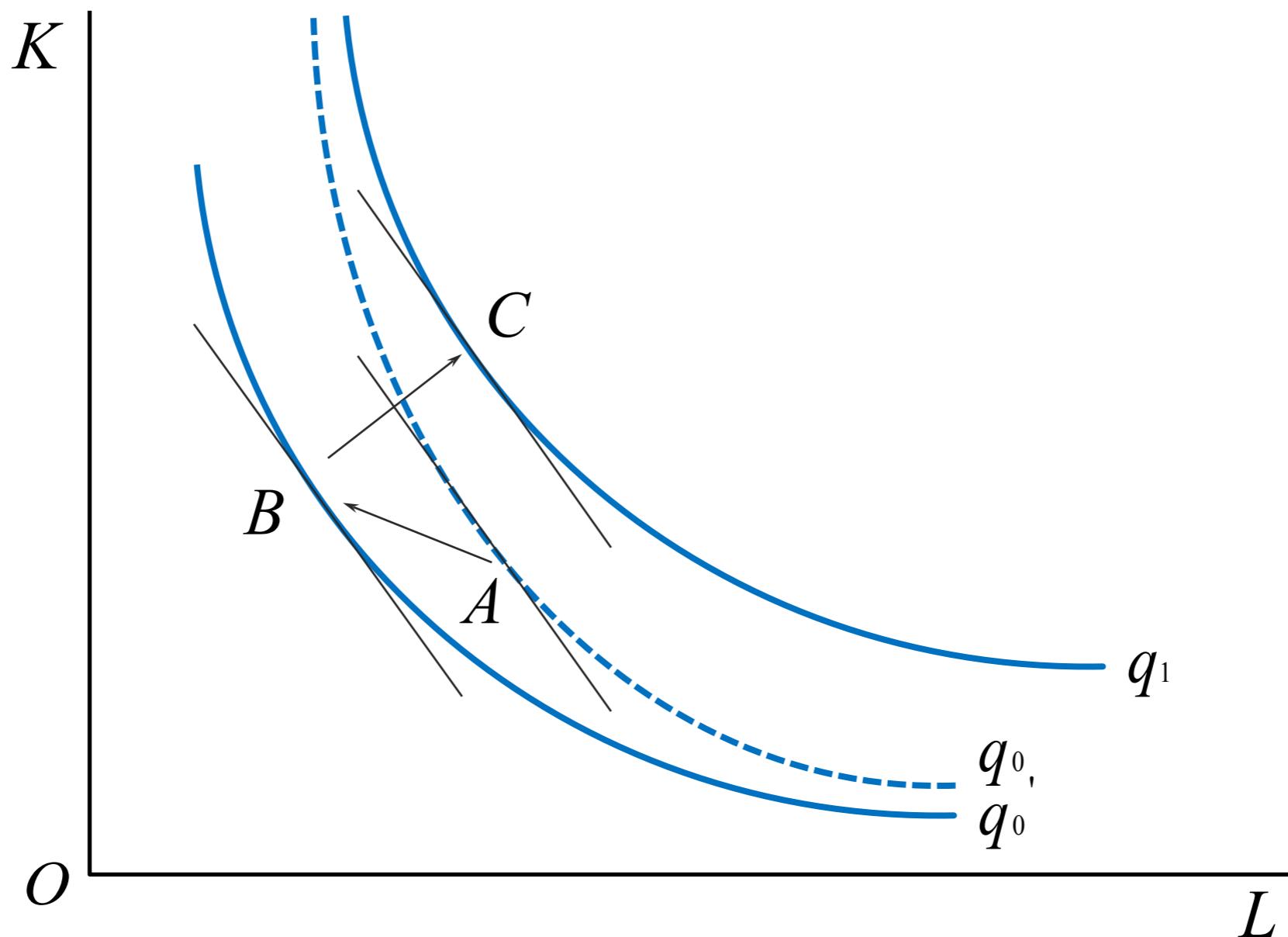
#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

#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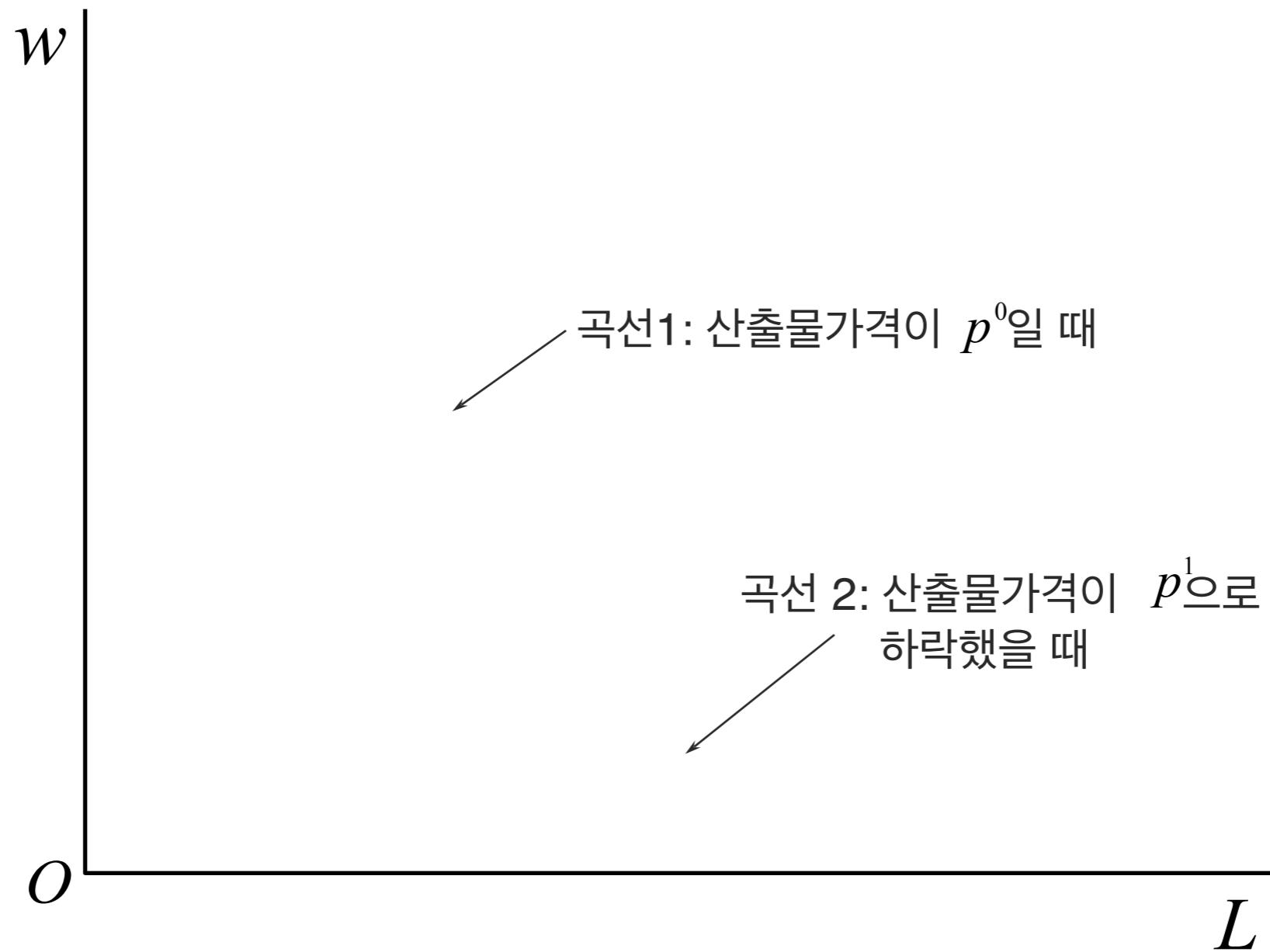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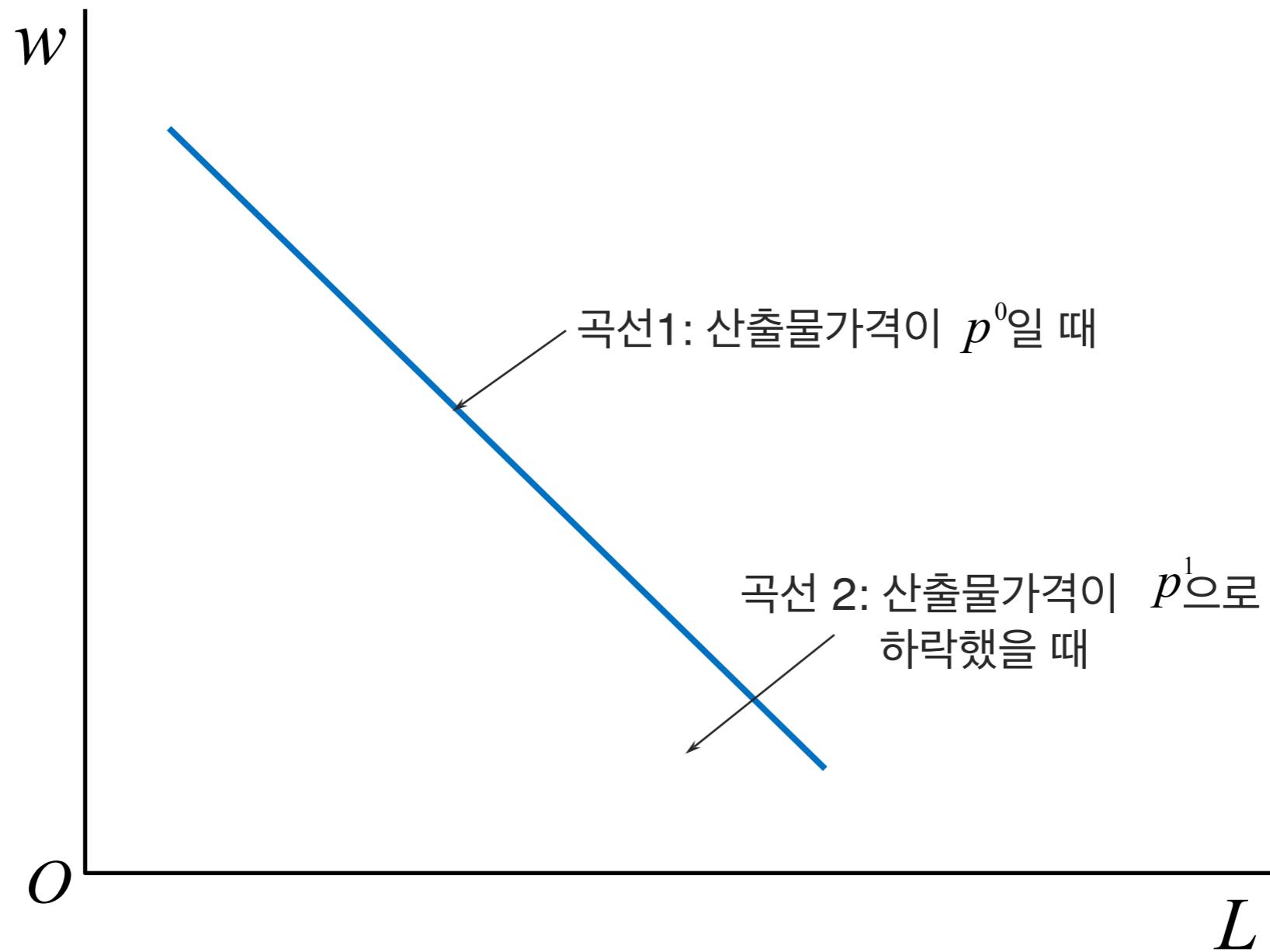
## 자본확장적 기술진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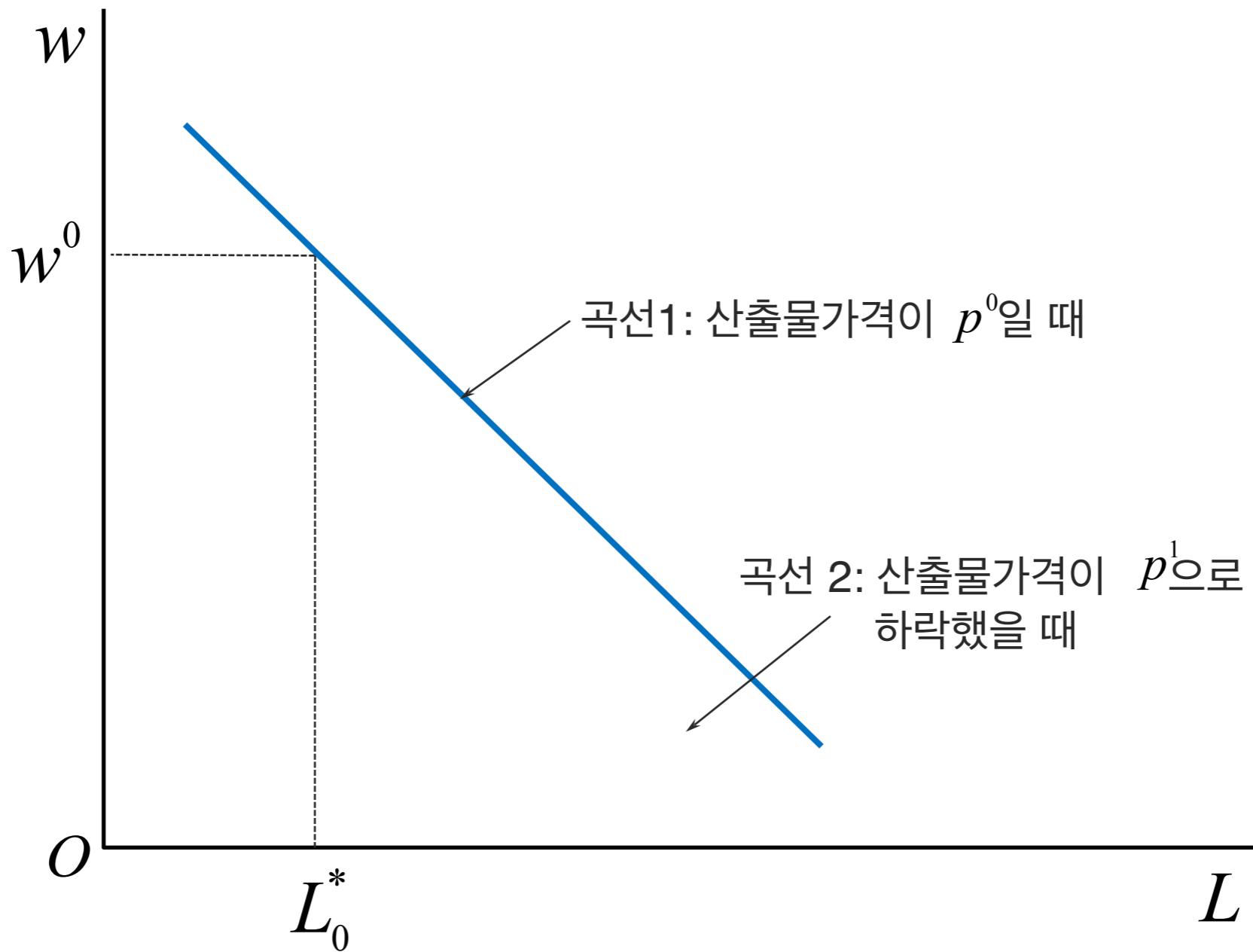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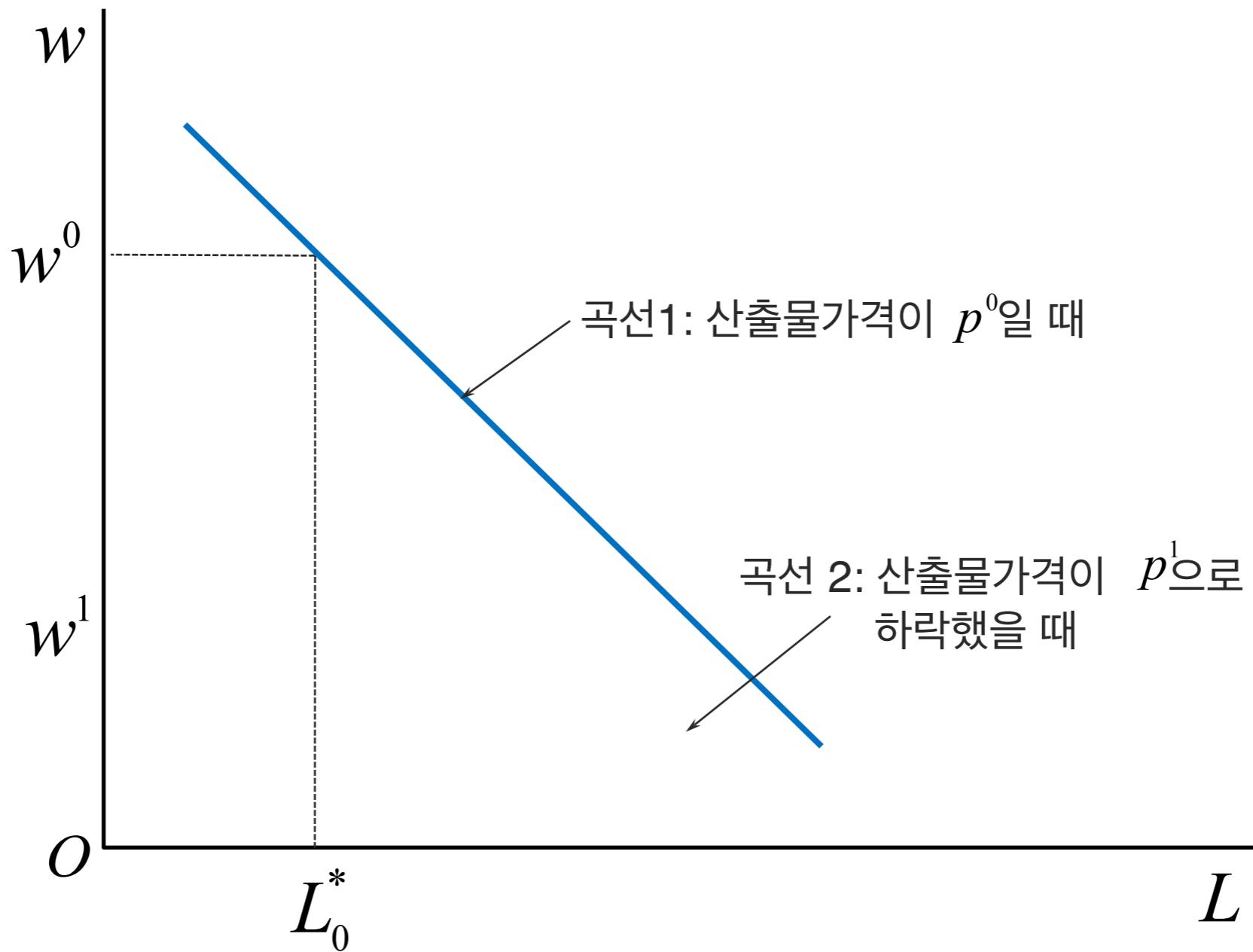
# 시장 요소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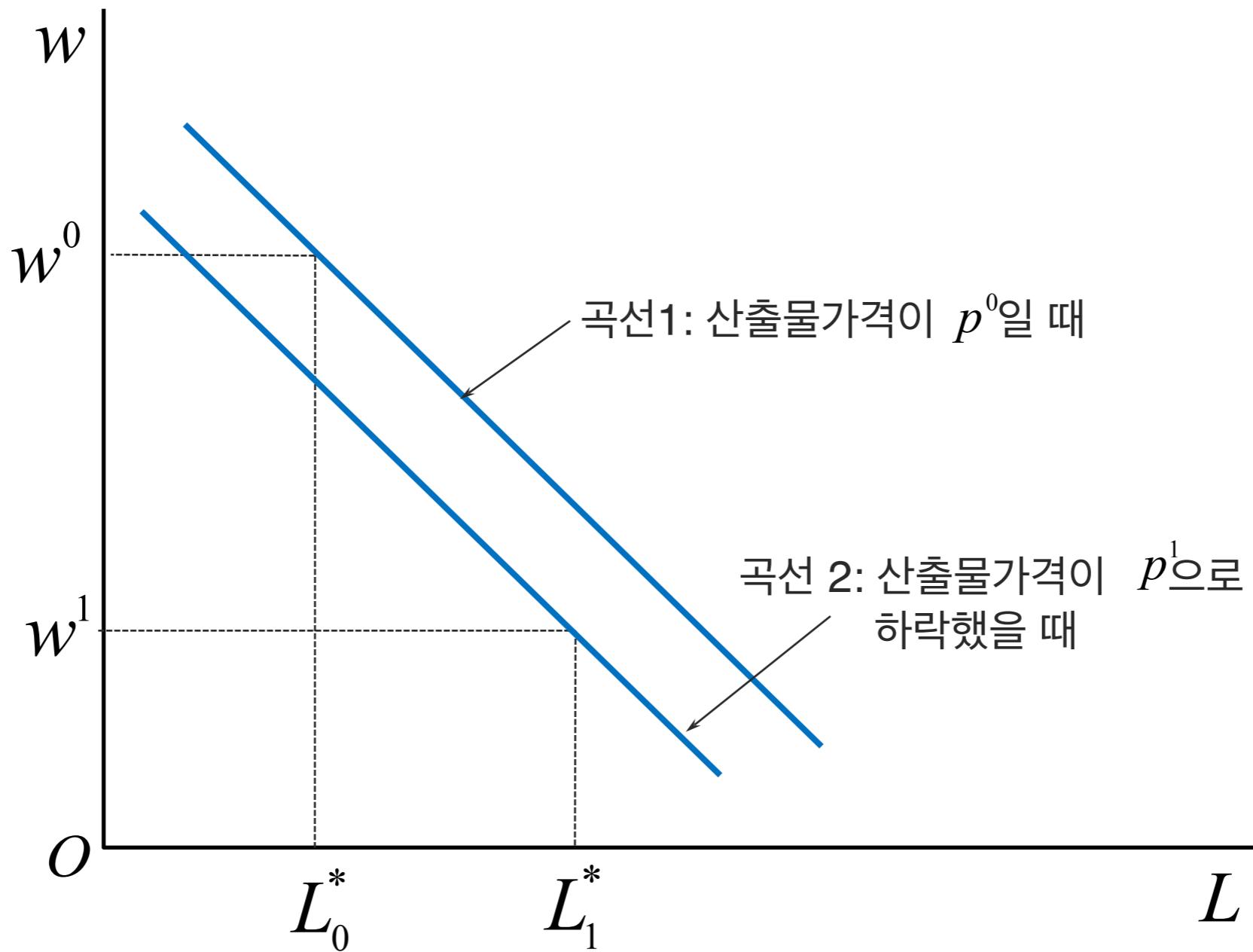
- 지금까지 개별 기업의 요소수요,
- 시장 요소수요는 개별기업 요소수요의 합만으로 표시하기는 복잡
- 시장 요소수요의 의미:
  - 개별기업의 요소수요 + 요소가격의 변화로 인한 산출물 가격의 변화
  -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요소인 경우 그 요소의 가격변화로 인한 다른 요소가격의 변화도 고려 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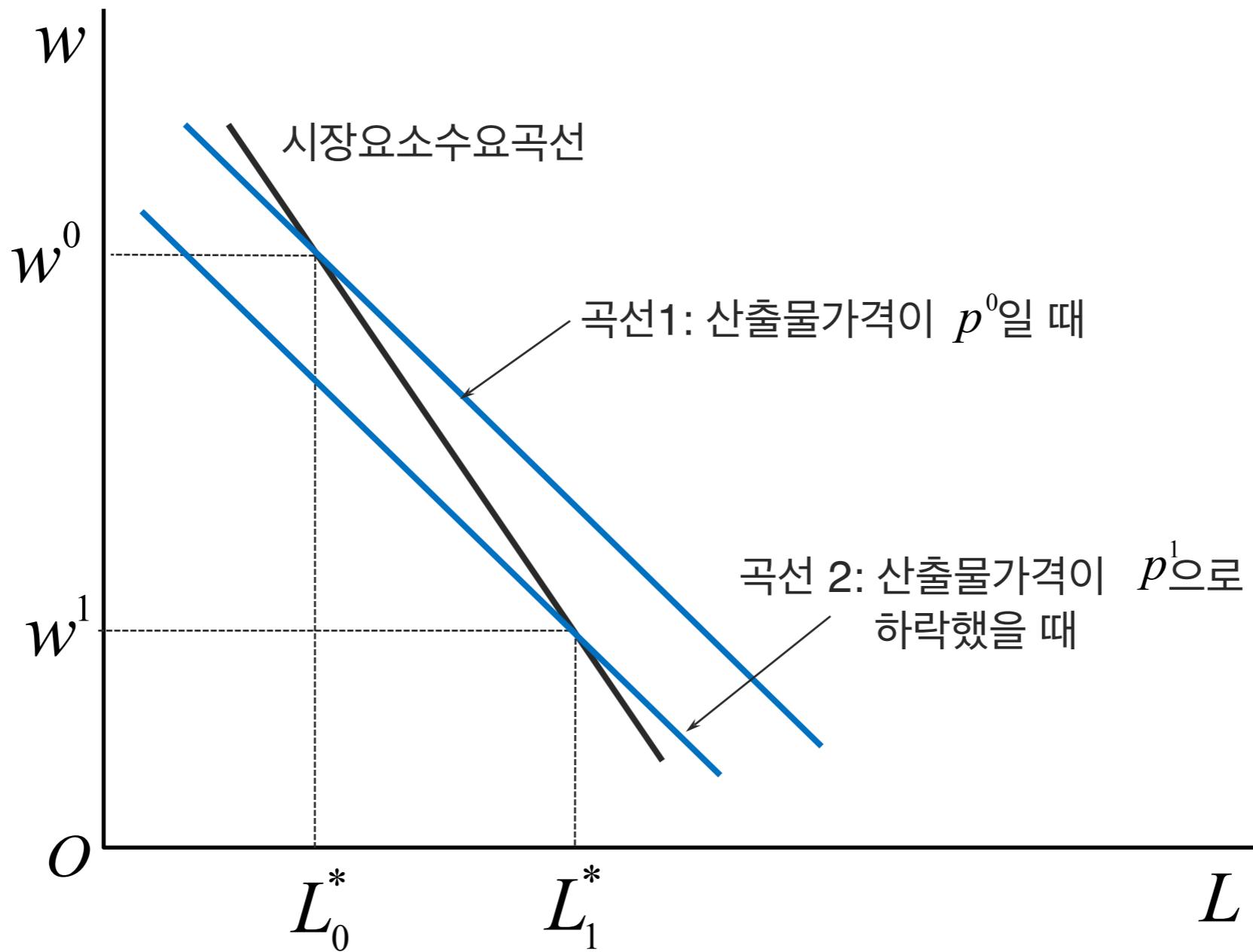












# 힉스-마샬 파생수요법칙

- 시장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: 힉스-마샬의 파생수요 법칙
- 요소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
  - 그 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일 수록
  -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관계가 클수록
  - 어떤 생산요소의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
  -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

# **요소공급: 노동**

# 개별노동력 공급 모델

## Individual Labor Supply Model

- 전제: 원하면 원하는 만큼 노동할 수 있음
  - 노동공급의 편익: 소득 증가
  - 노동공급의 비용: 여가의 포기
- 노동력 공급은 이 노동과 여가를 적절하게(효용을 최대화하도록) 분배하는 문제가 됨

# 여가, 소득에 대한 가정

## Leisure

- 이 모델에서 여가는 금전적 소비를 하지 않고 (돈이 들지 않는) 취미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(분석의 편의를 위해)
- 노동을 통한 소득은 자동으로 재화소비를 통해 편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



# 돈과 여가시간 사이의 선택

- 여가를 재화로 파악할 때의 예산제약식

$$wR + py = wh_0 + py_0$$

-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에서 노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가시간

$$R = h_0 - L$$

- 여가시간의 가격: 여가의 기회비용, 즉 임금  $w$

$$py = py_0 + w(h_0 - R)$$

- 좌변: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금액
- 우변: 원래 가지고 있는 금액 + 노동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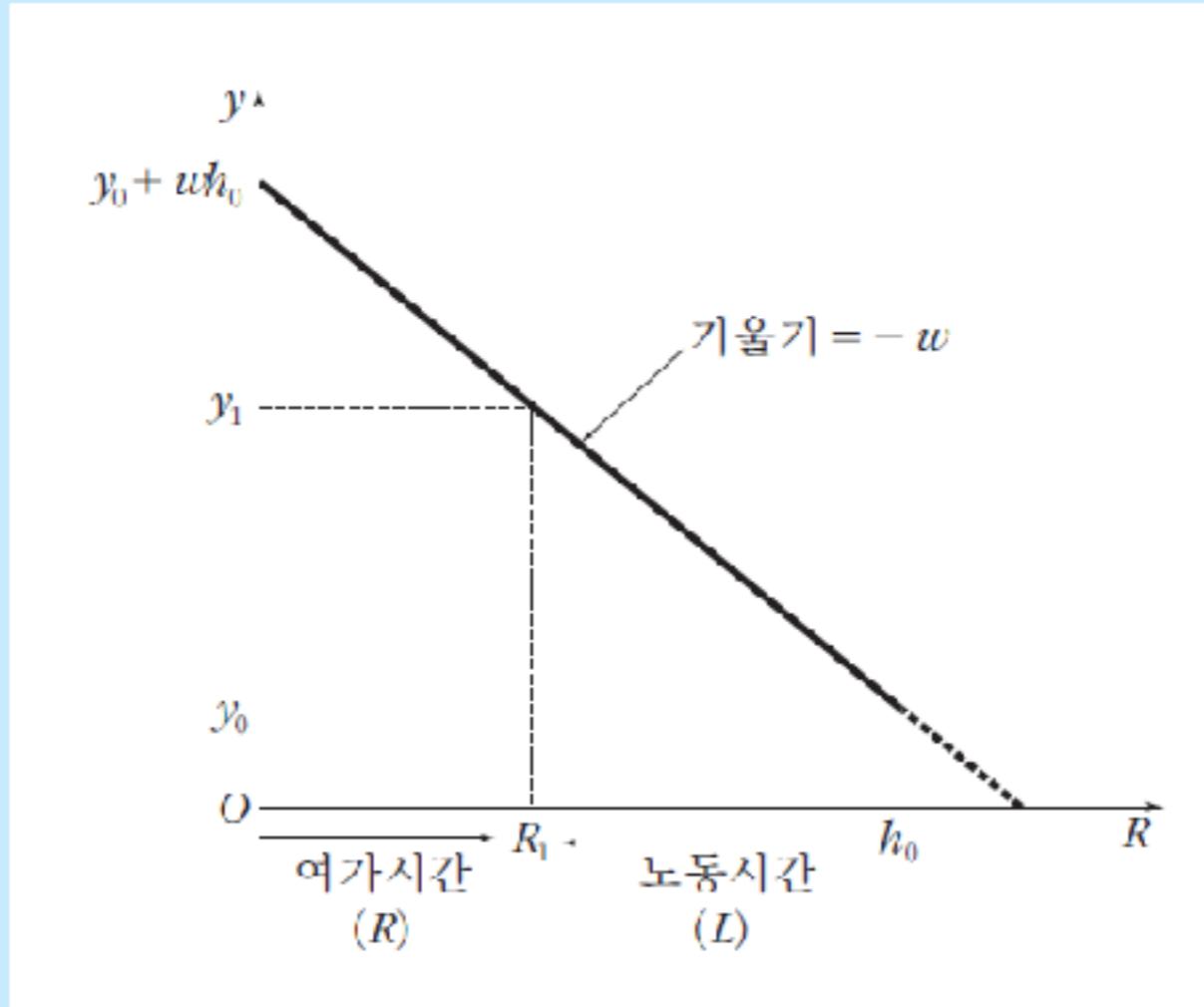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-9 노동공급 모형의 예산선 II

# 여가시간과 소비재에 대한 효용함수

$$U(R, y)$$

- 여가와 소비재 모두 재화이고,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고 가정
  - 즉,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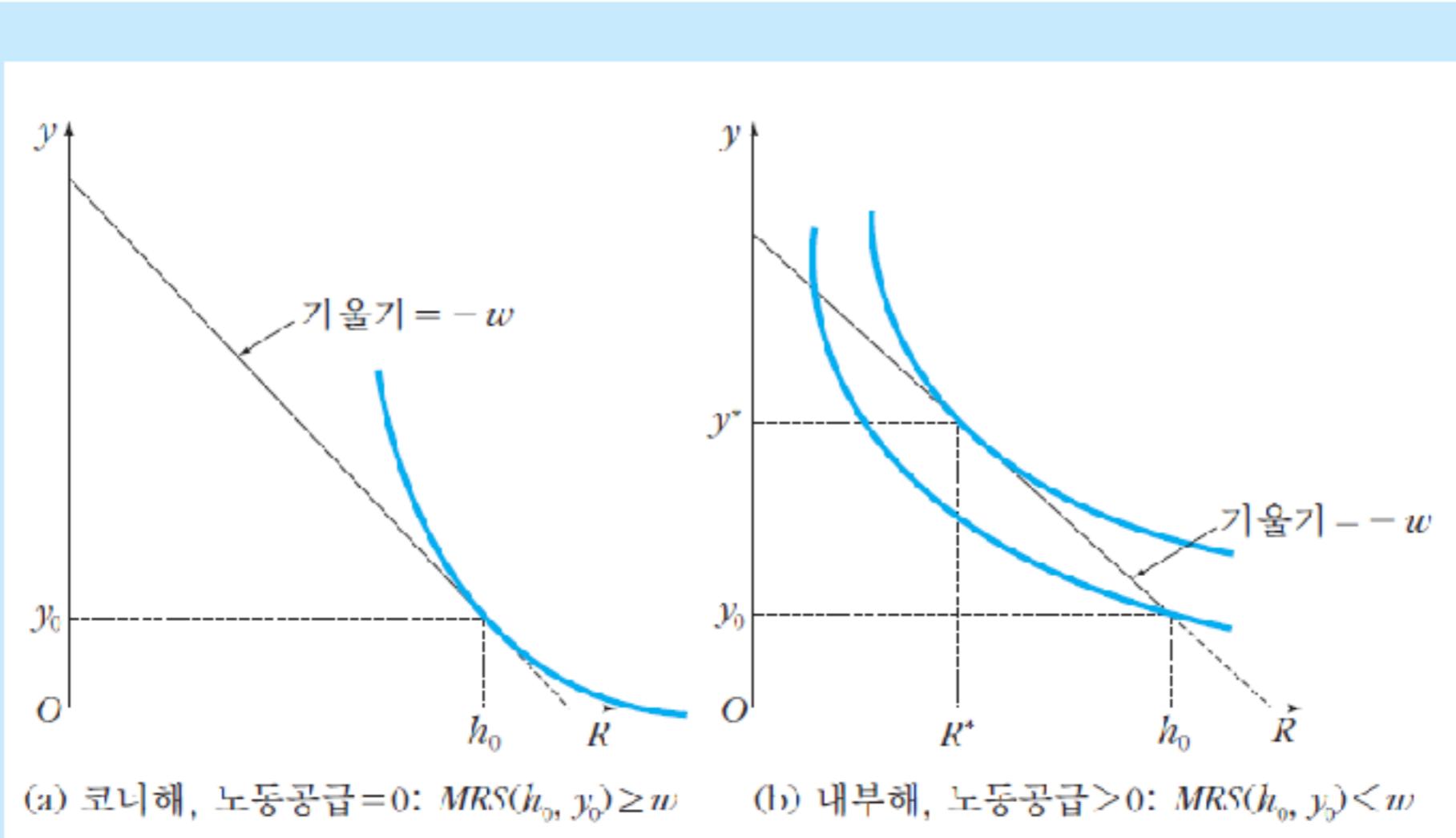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-10 두 종류의 소비자 균형

# 균형

- 소비자균형  $(R^*, y^*)$ 
  - 노동공급을 하지 않음  $R^* = h_0$
  - $MRS(h_0, y_0) \geq w$
  - 여가 한 단위를 줄일 때 보상받아야 할 최소 금액 보다 임금이 낮음
  - 여가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
- 노동공급을 함  $R^* < h_0$ 
  - $MRS(h_0, y_0) < w$

# 임금변화가 소비자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

- 임금 상승 → 효용 증가
- 임금 하락 → 효용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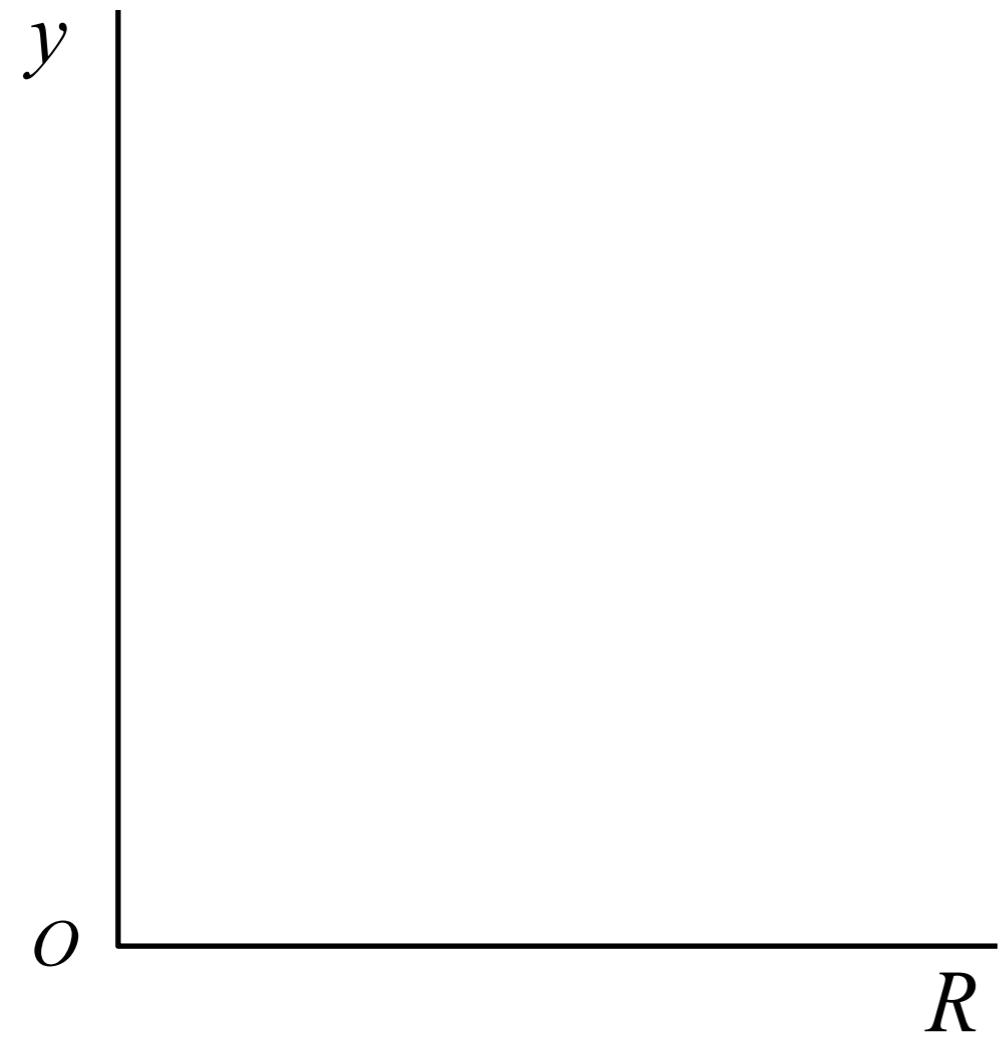
# 임금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

- 임금 상승 → 노동공급?
  - 대체효과: 여가소비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방향
  - 소득효과: 여가소비를 늘이는 방향
  - 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다름
- 임금 하락 → 노동공급?
  - 임금상승의 경우와 마찬가지
  -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노동공급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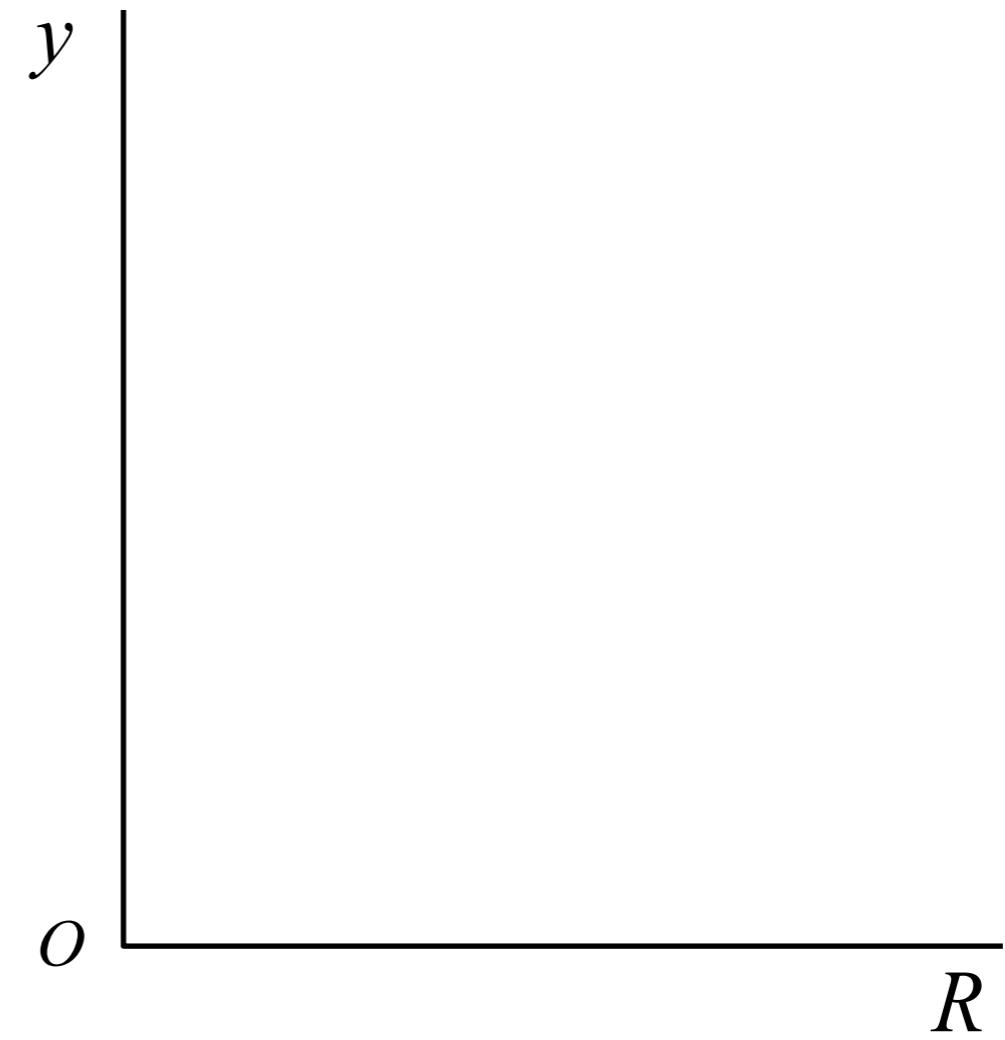
# 열등재로 써의 노동시간

## Labor as Inferior Goo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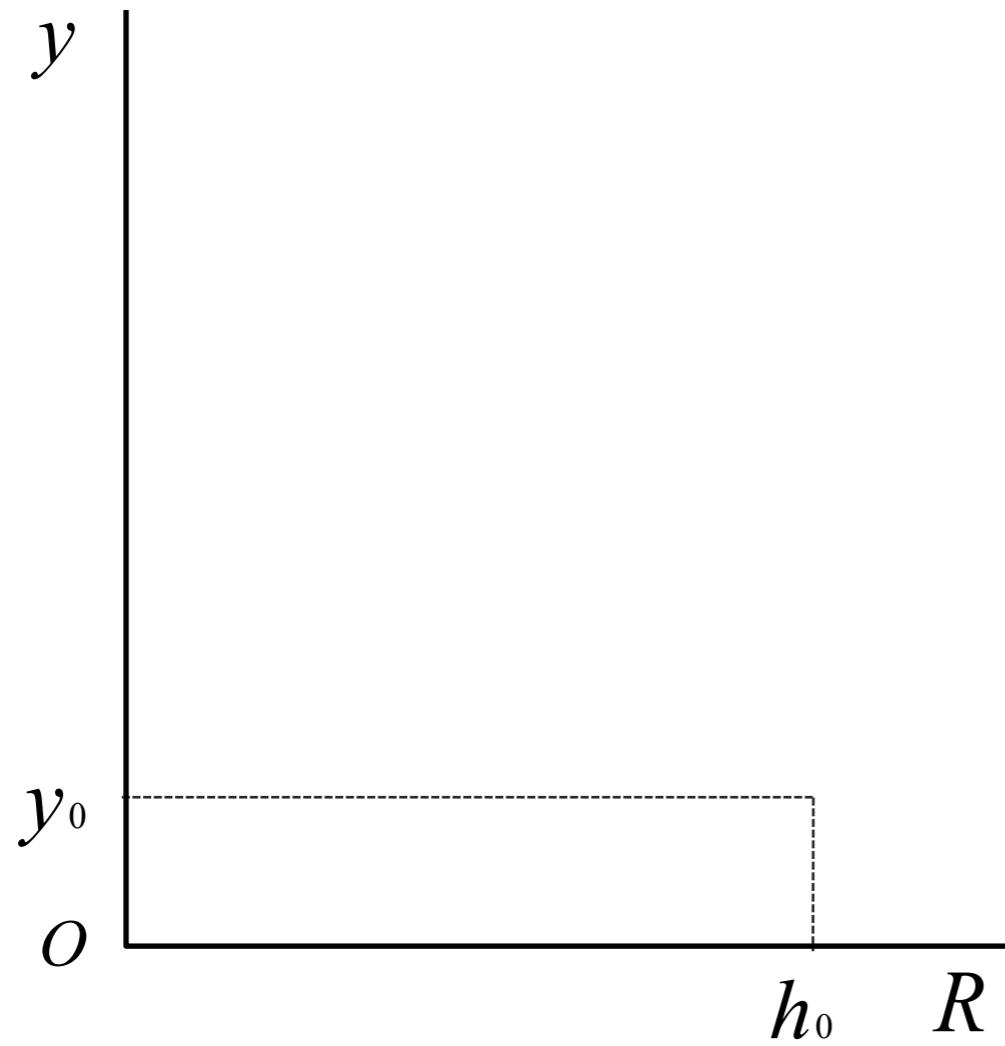
-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 ⇒ 노동시간은 열등재
- (사고실험) 월급이 낮은 수준일 때와, 충분히 높은 수준일 때:
  - 대체효과(+)가 더 큰 경우: 노동시간 
  - 소득효과(-)가 더 큰 경우: 노동시간 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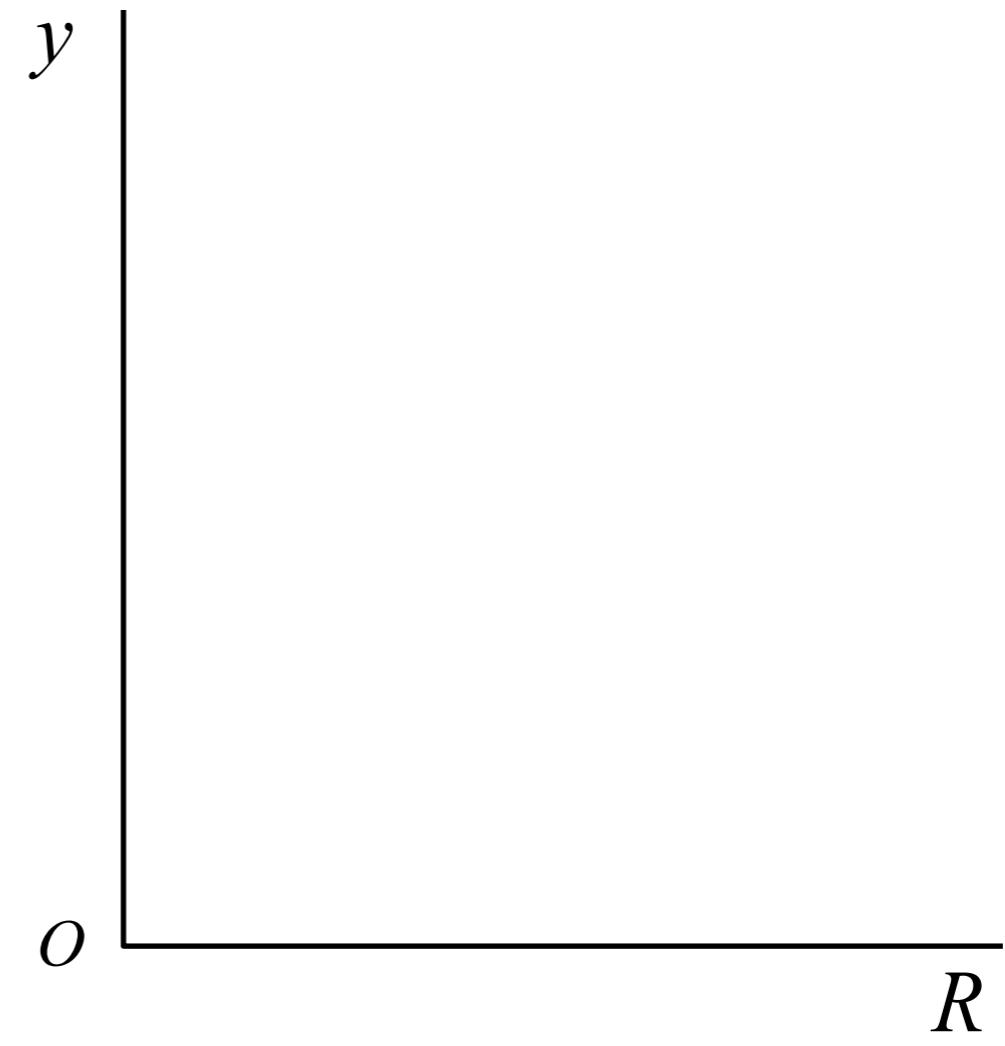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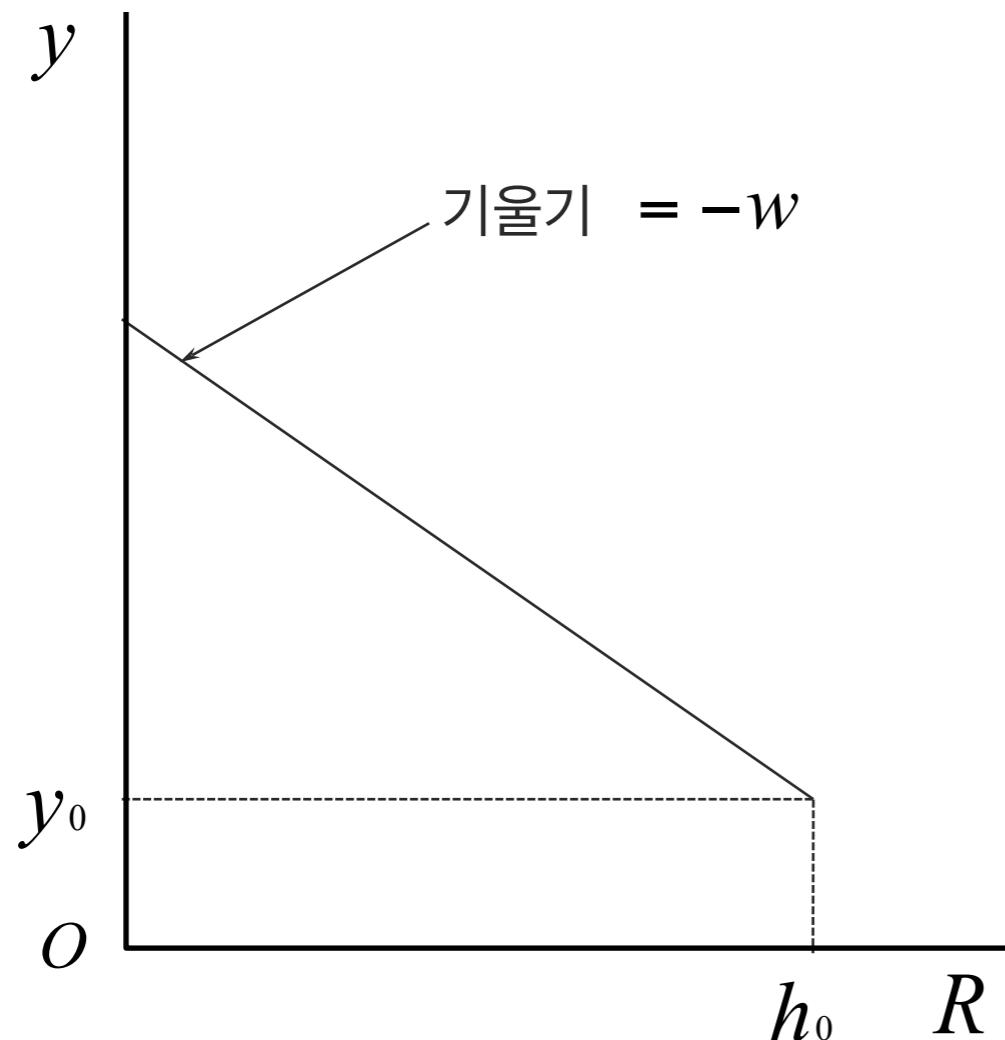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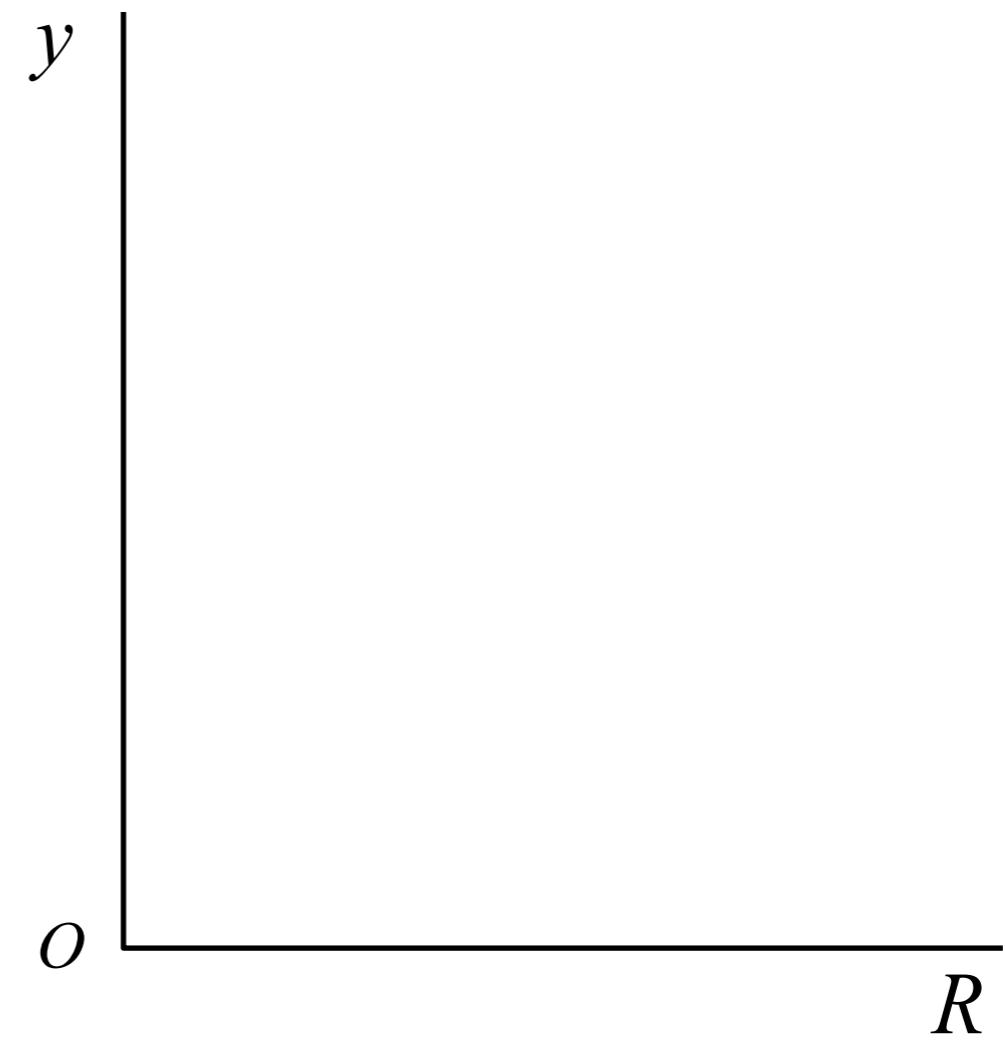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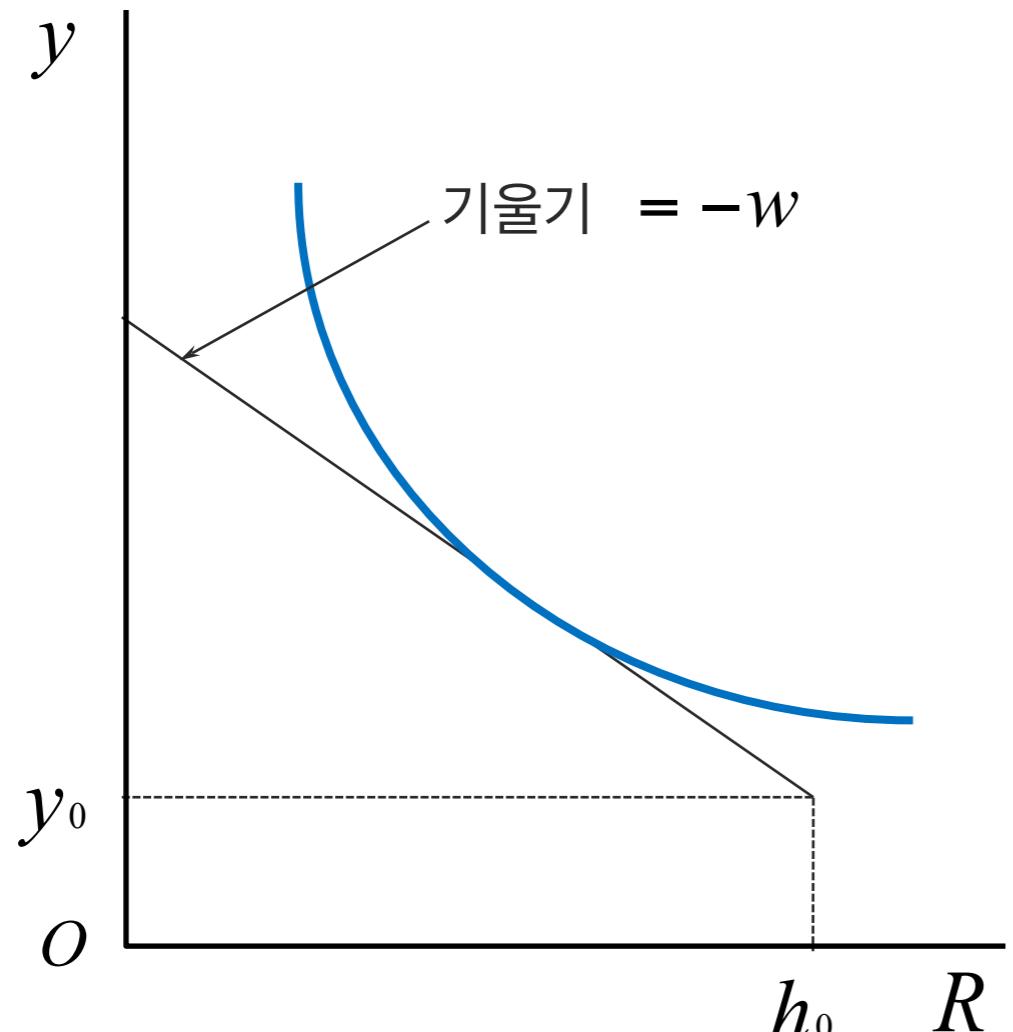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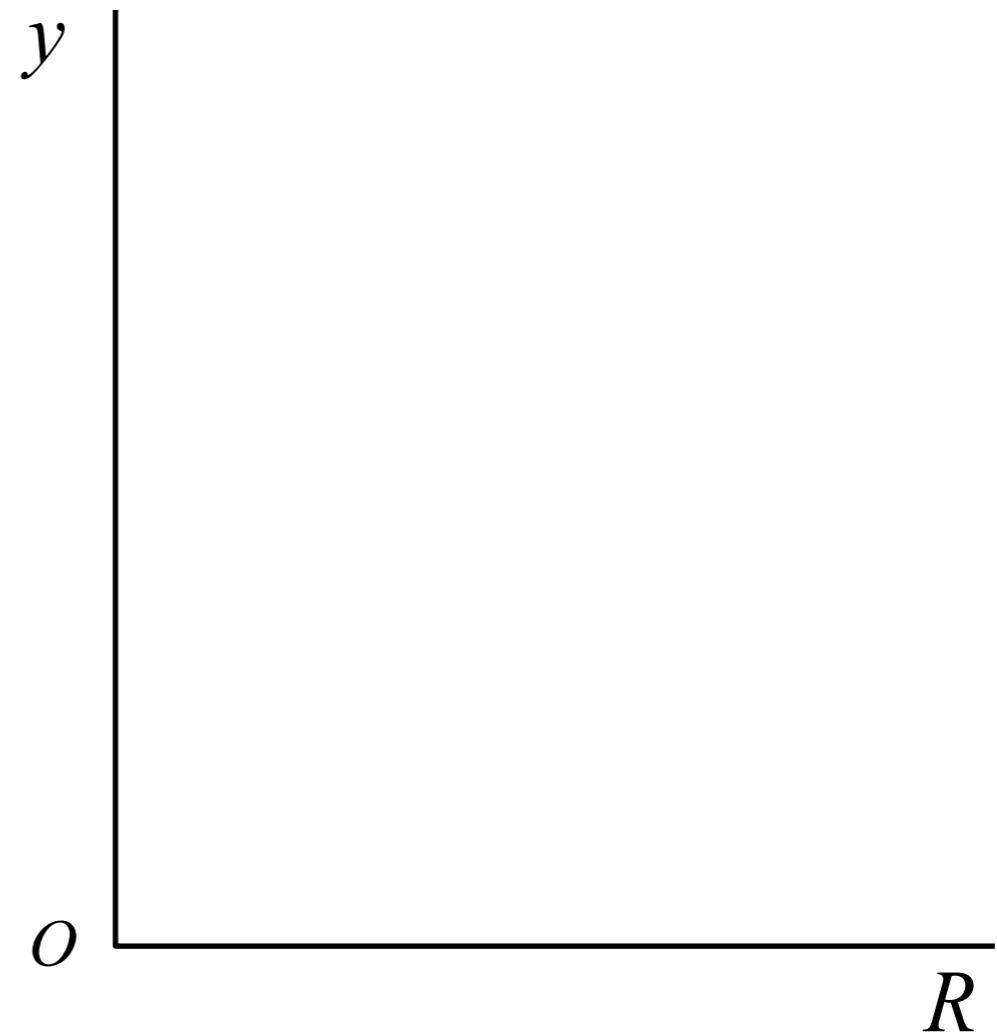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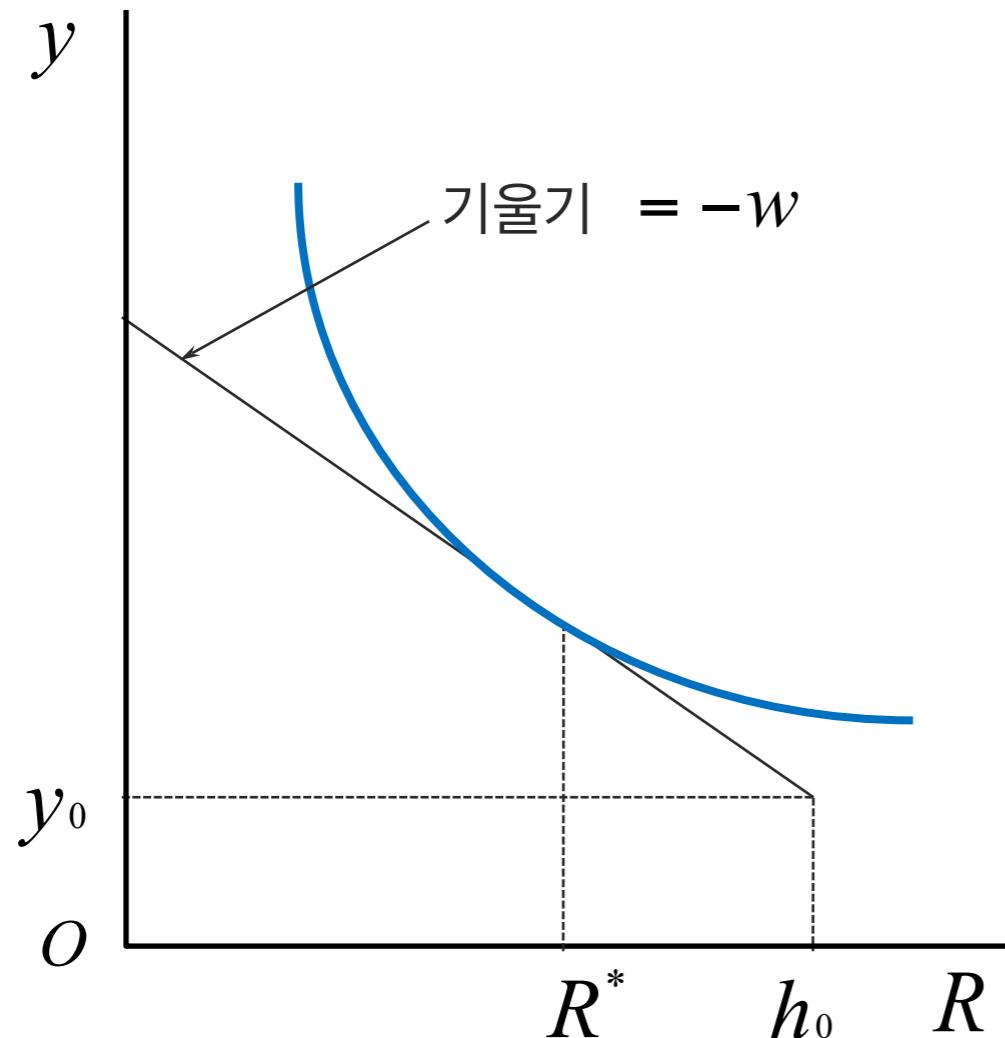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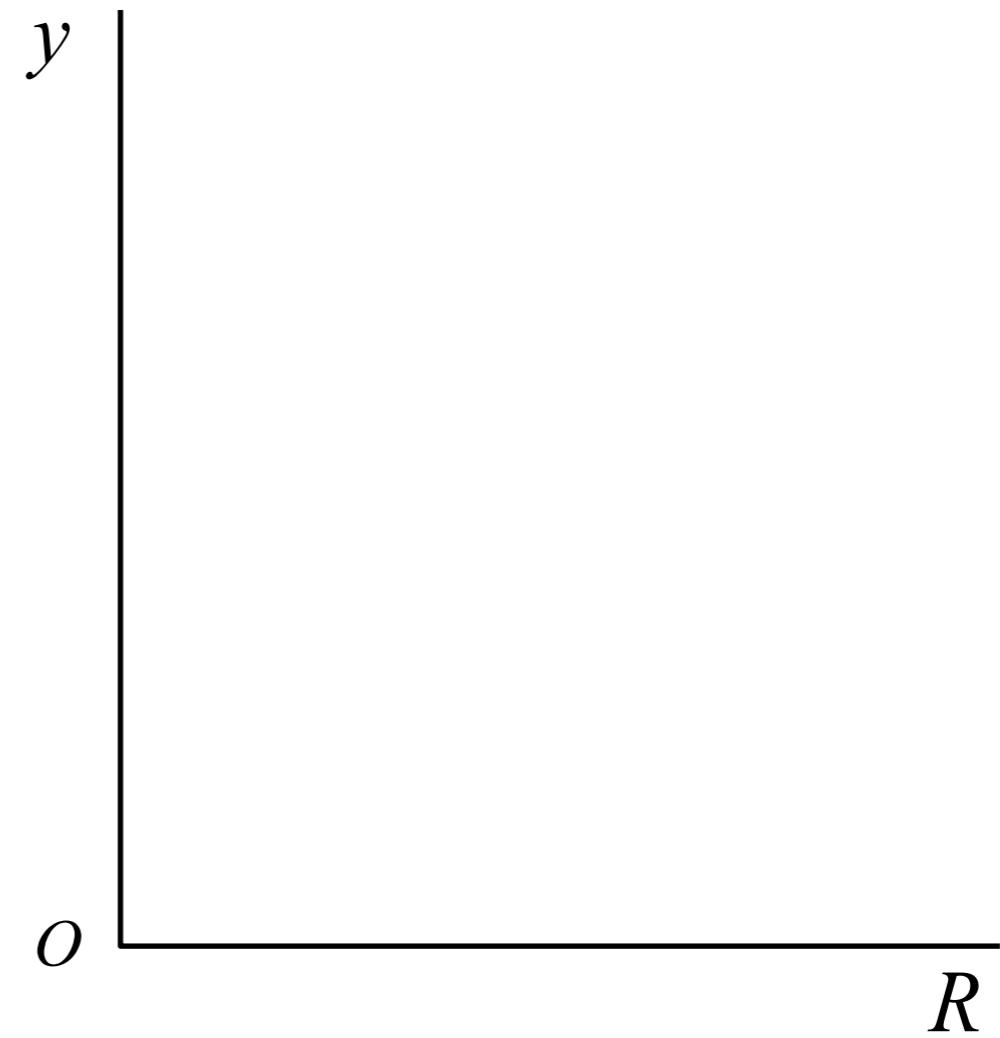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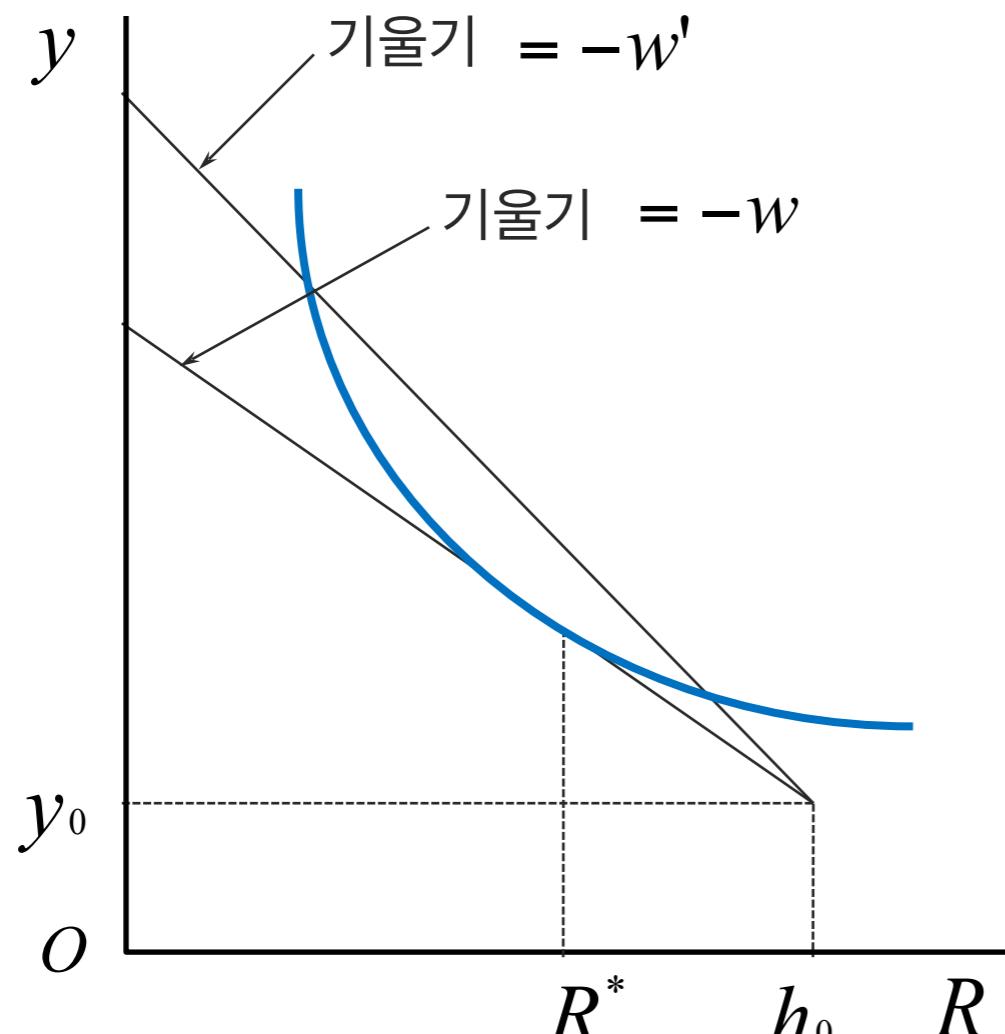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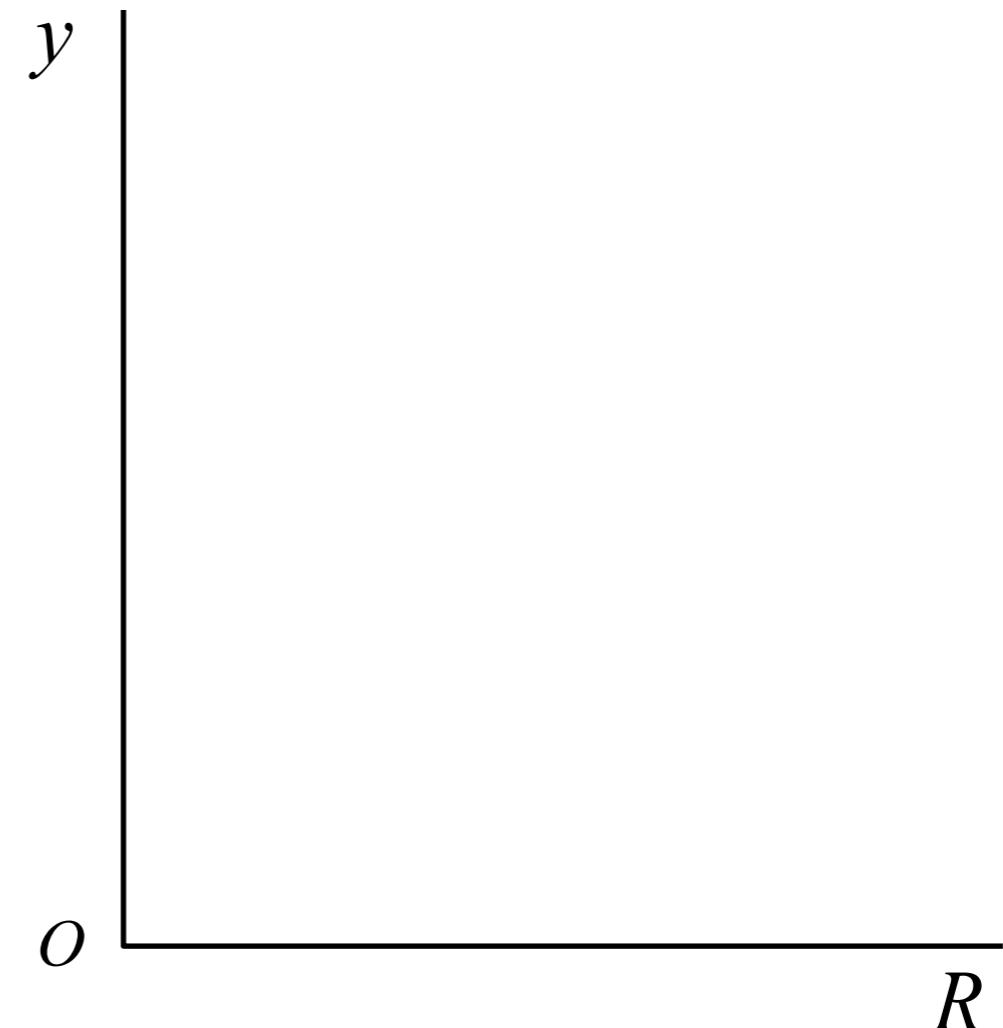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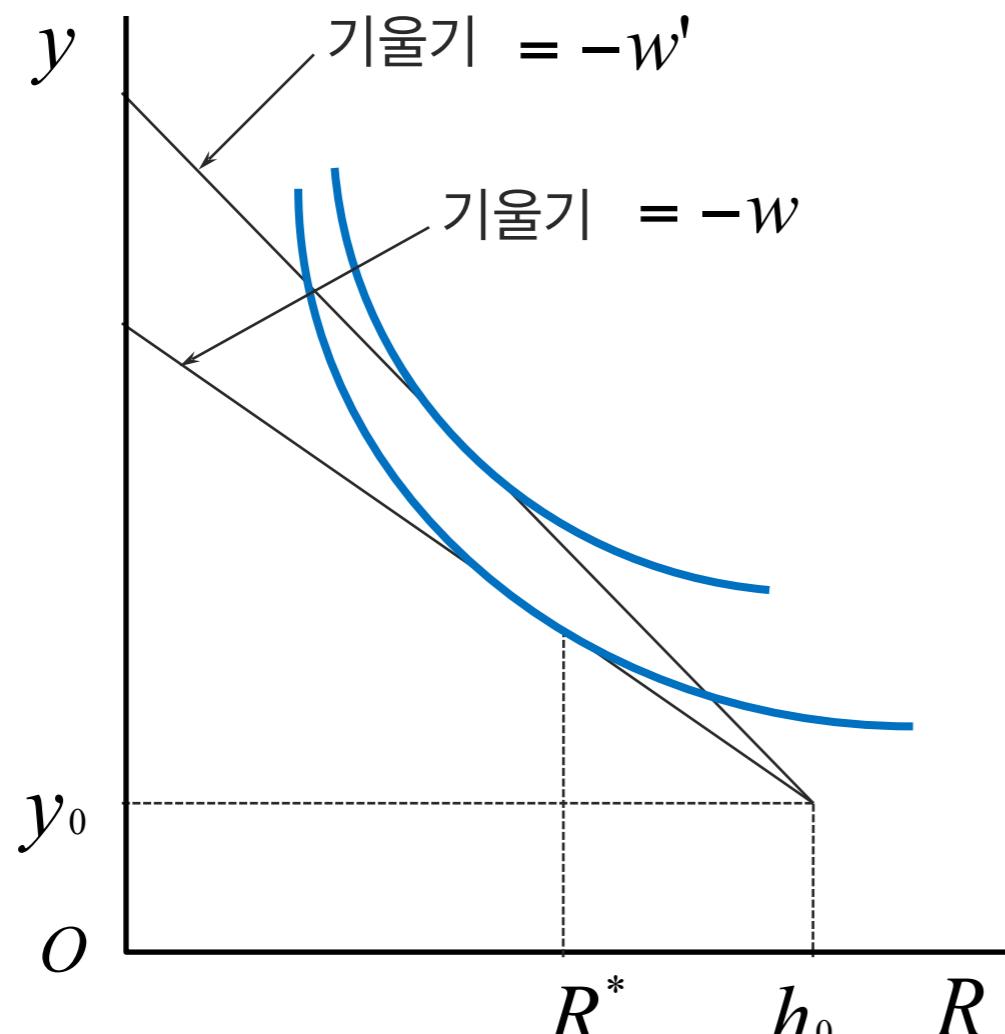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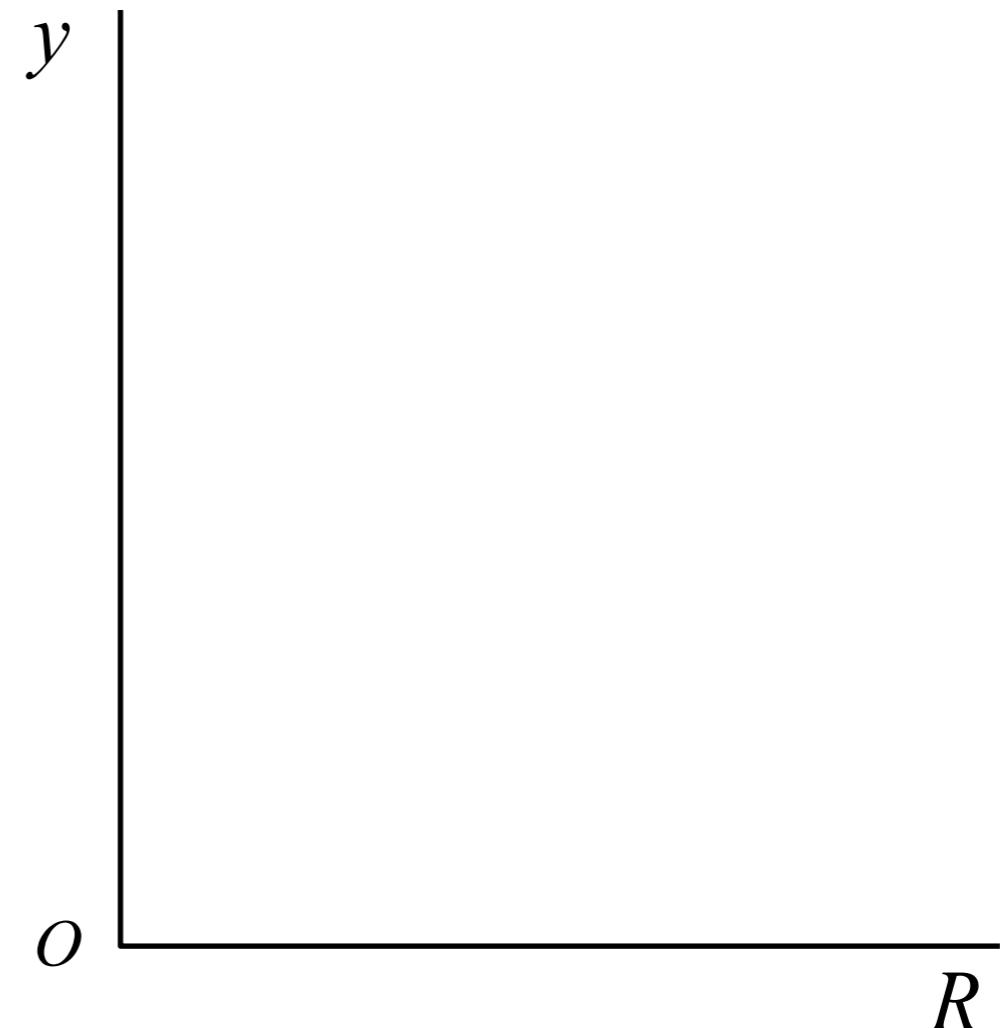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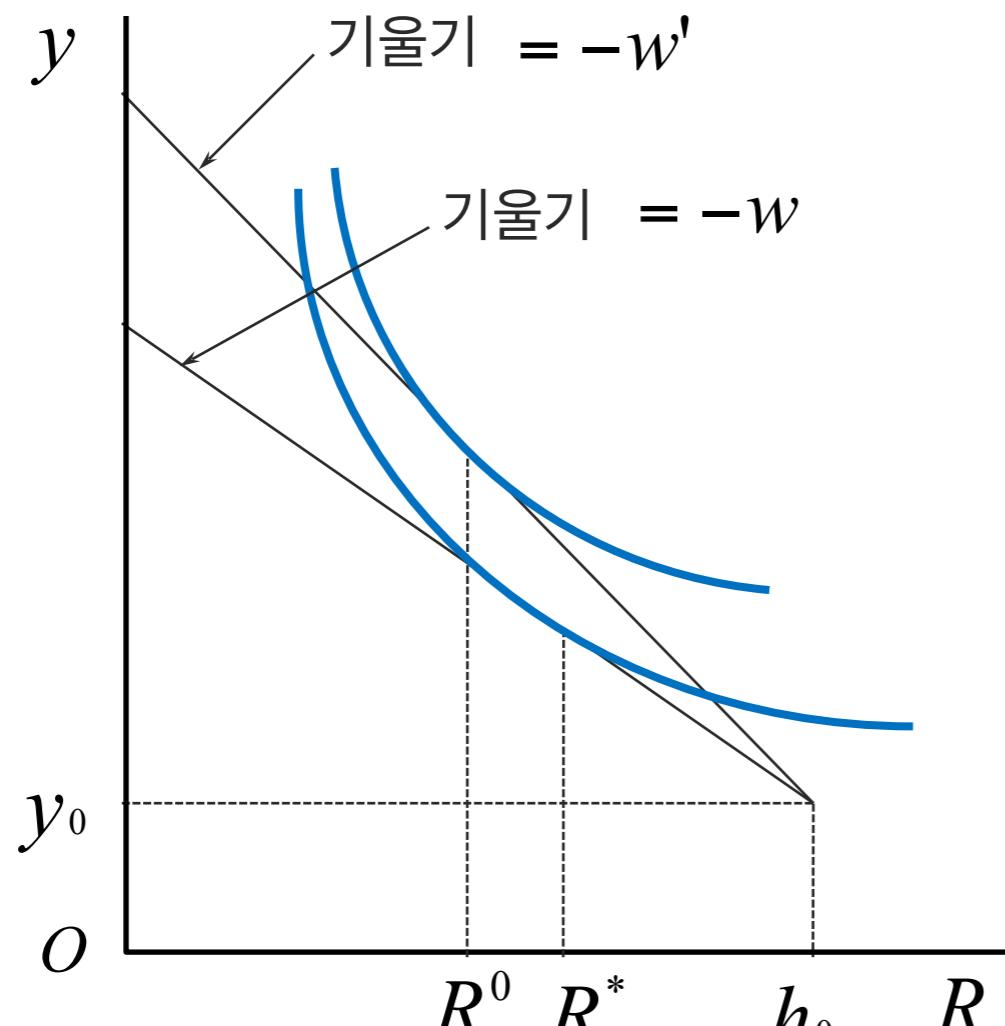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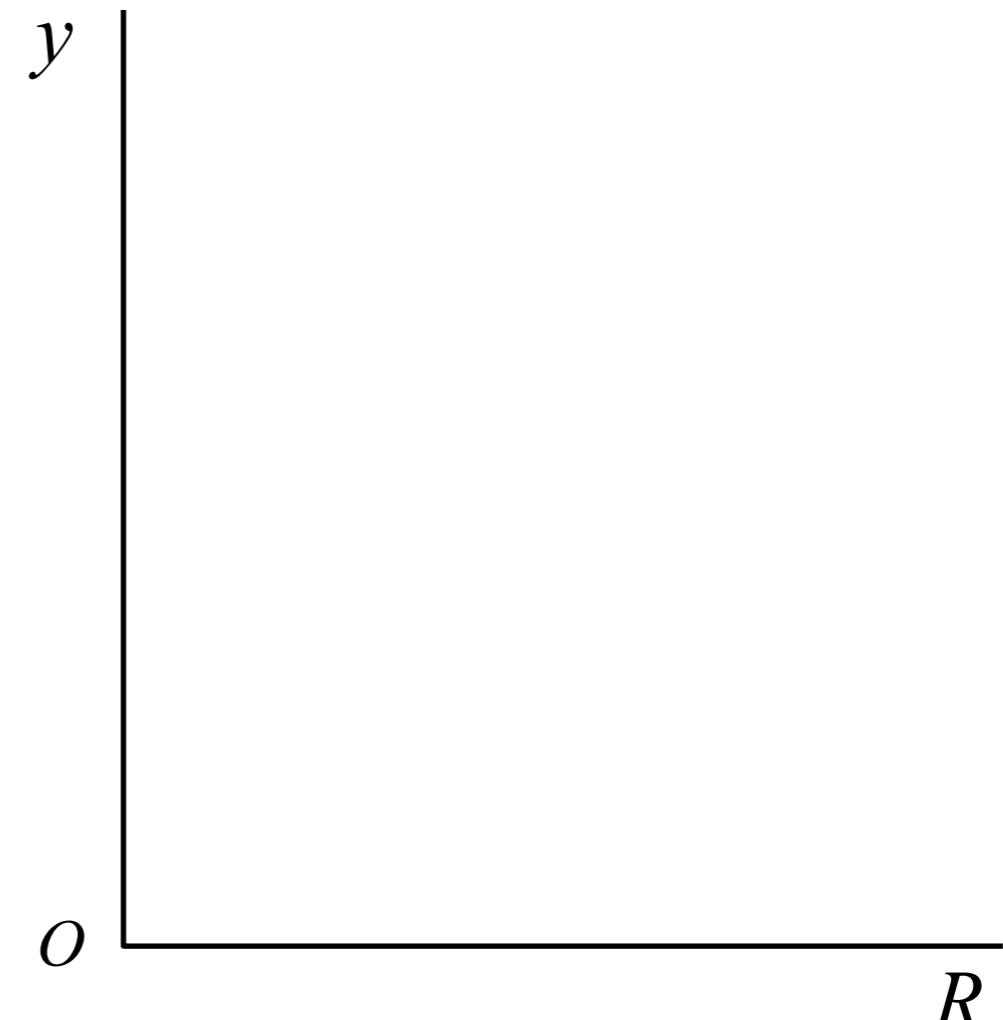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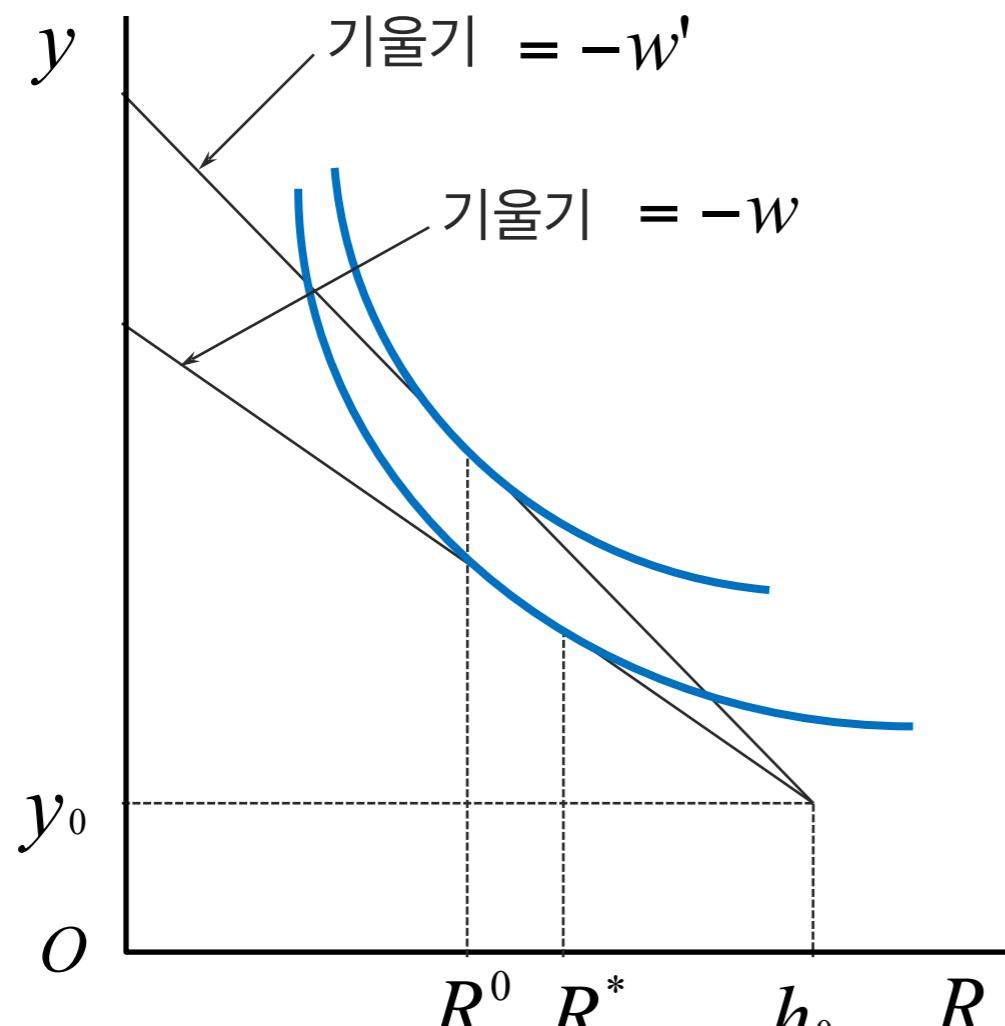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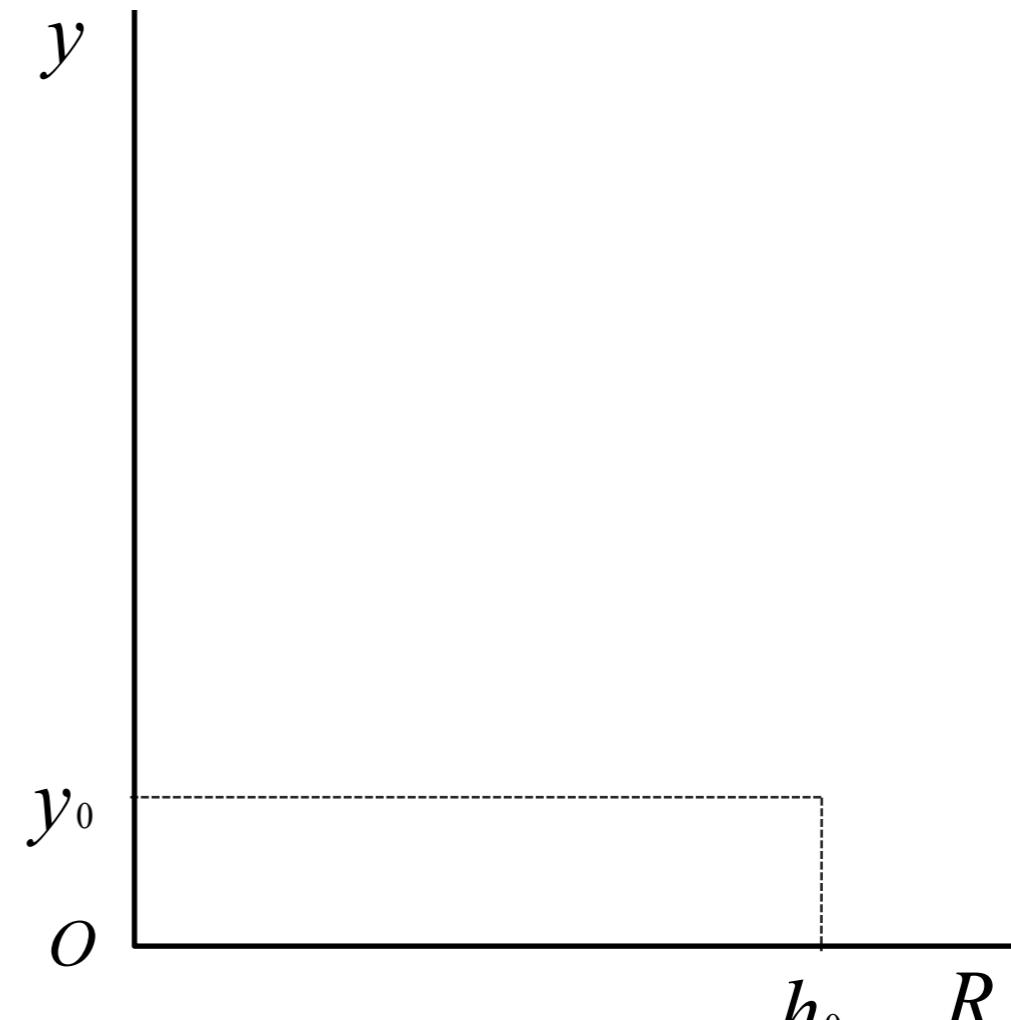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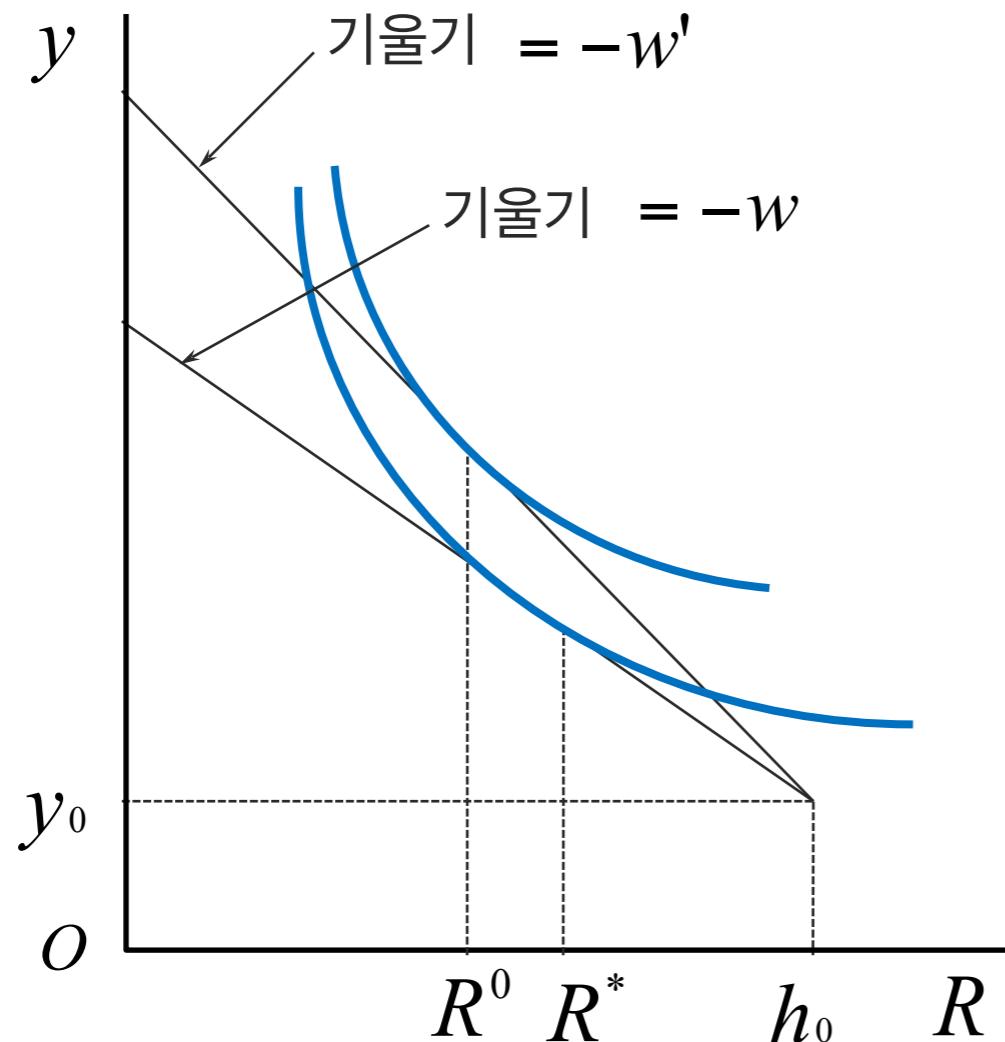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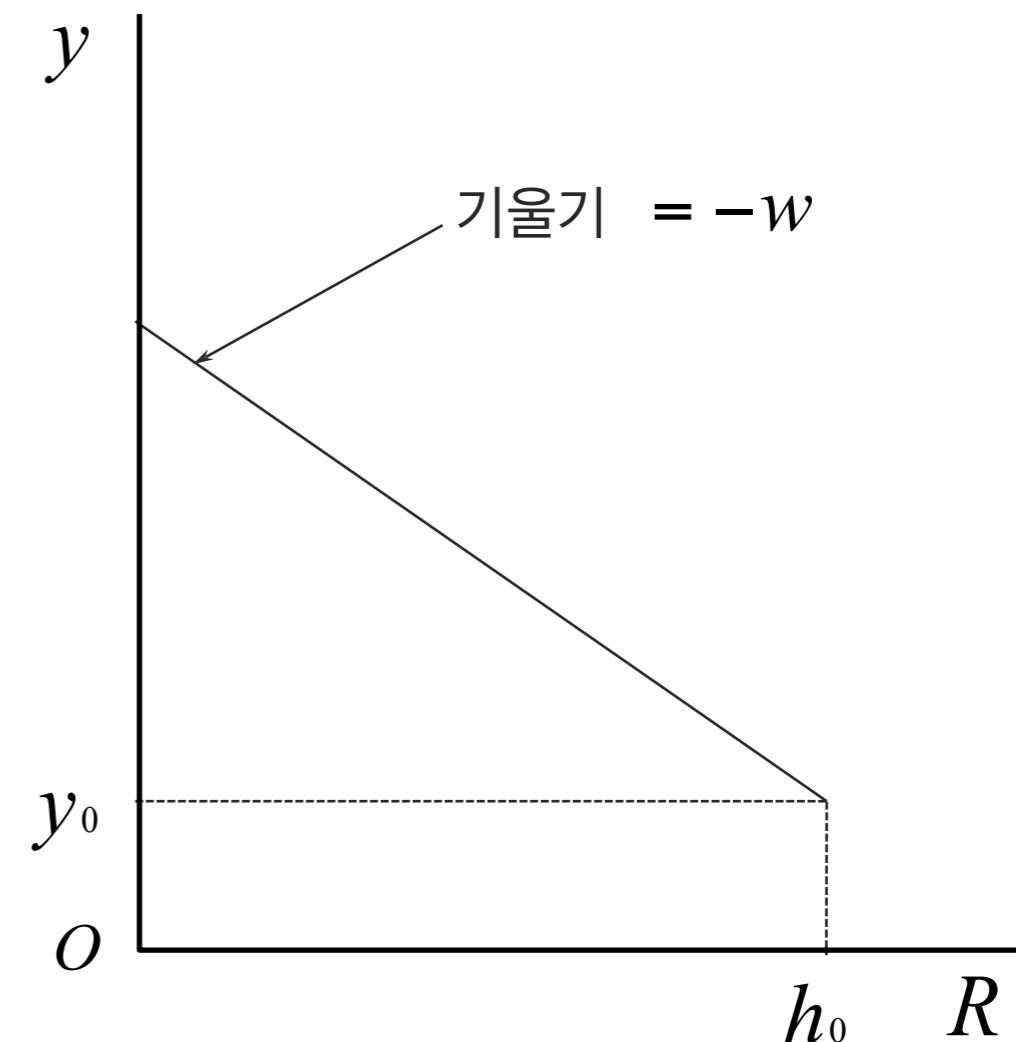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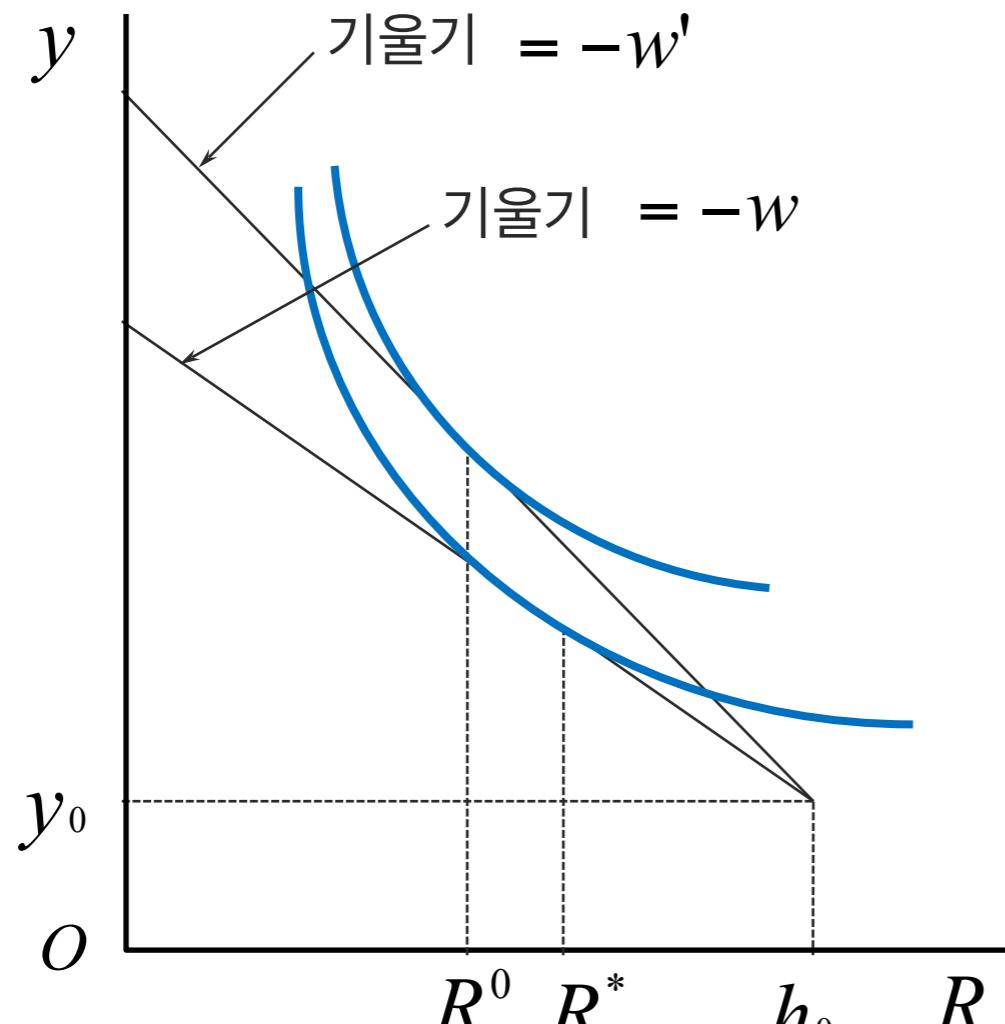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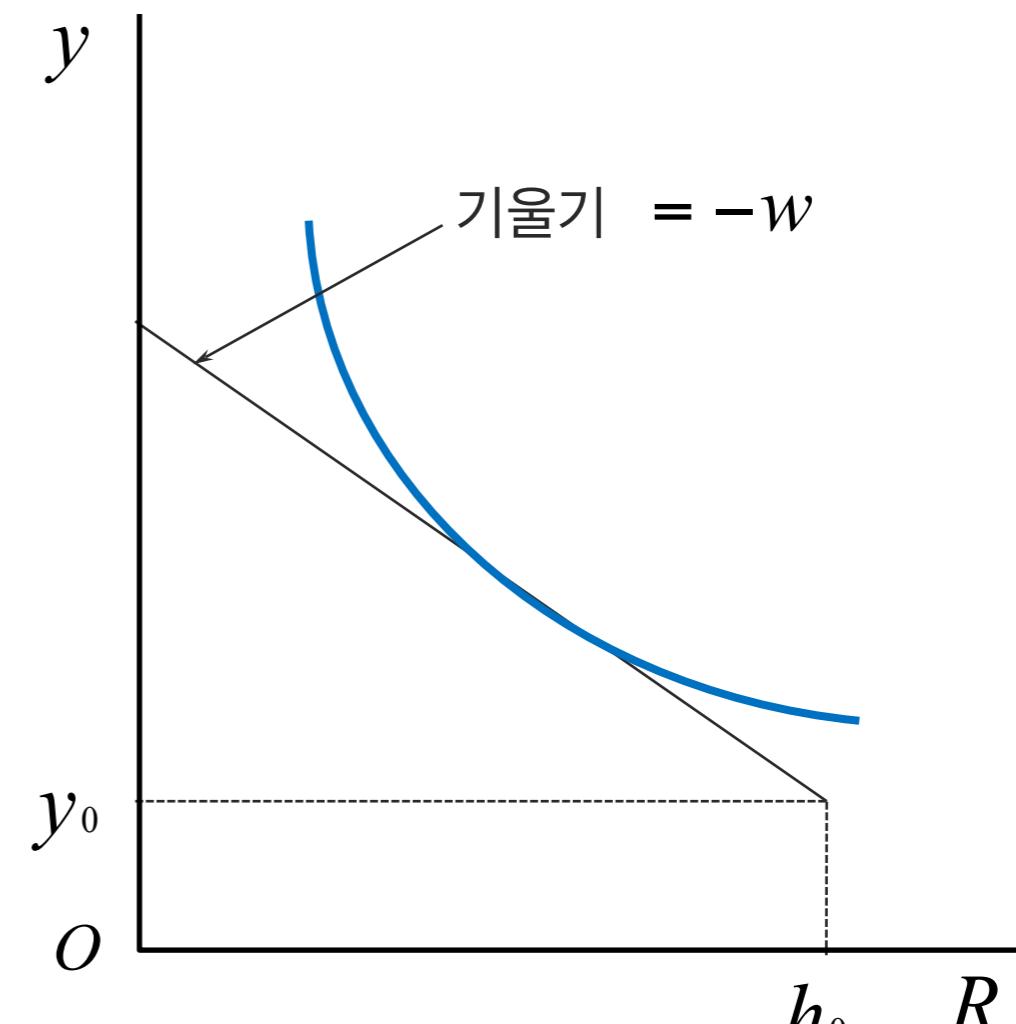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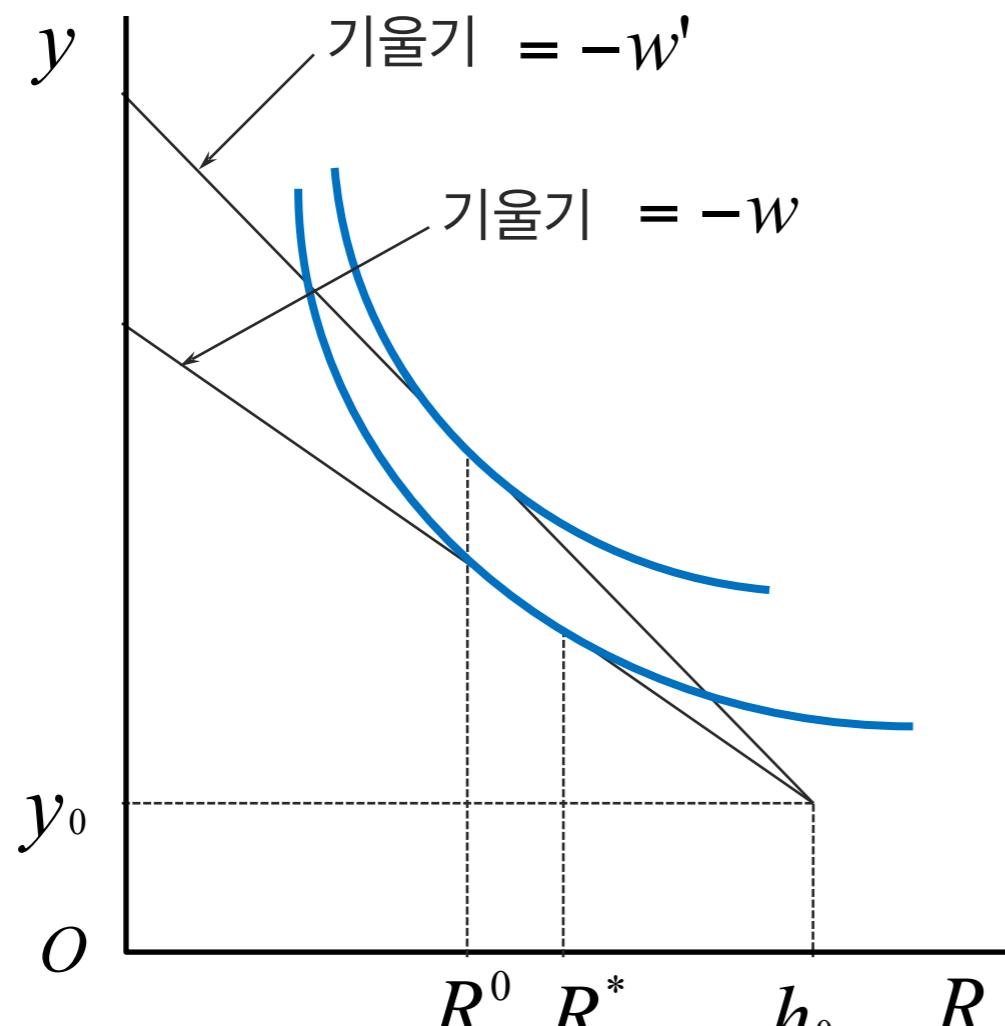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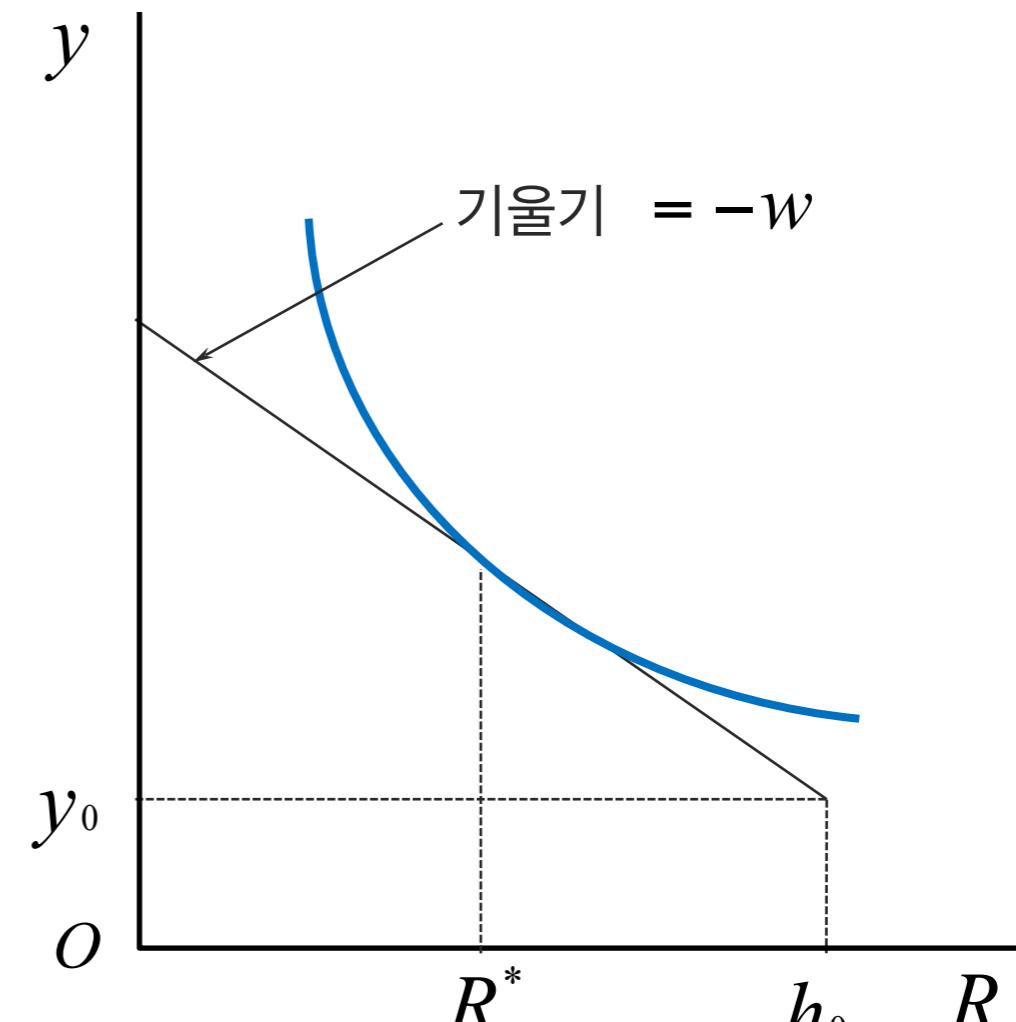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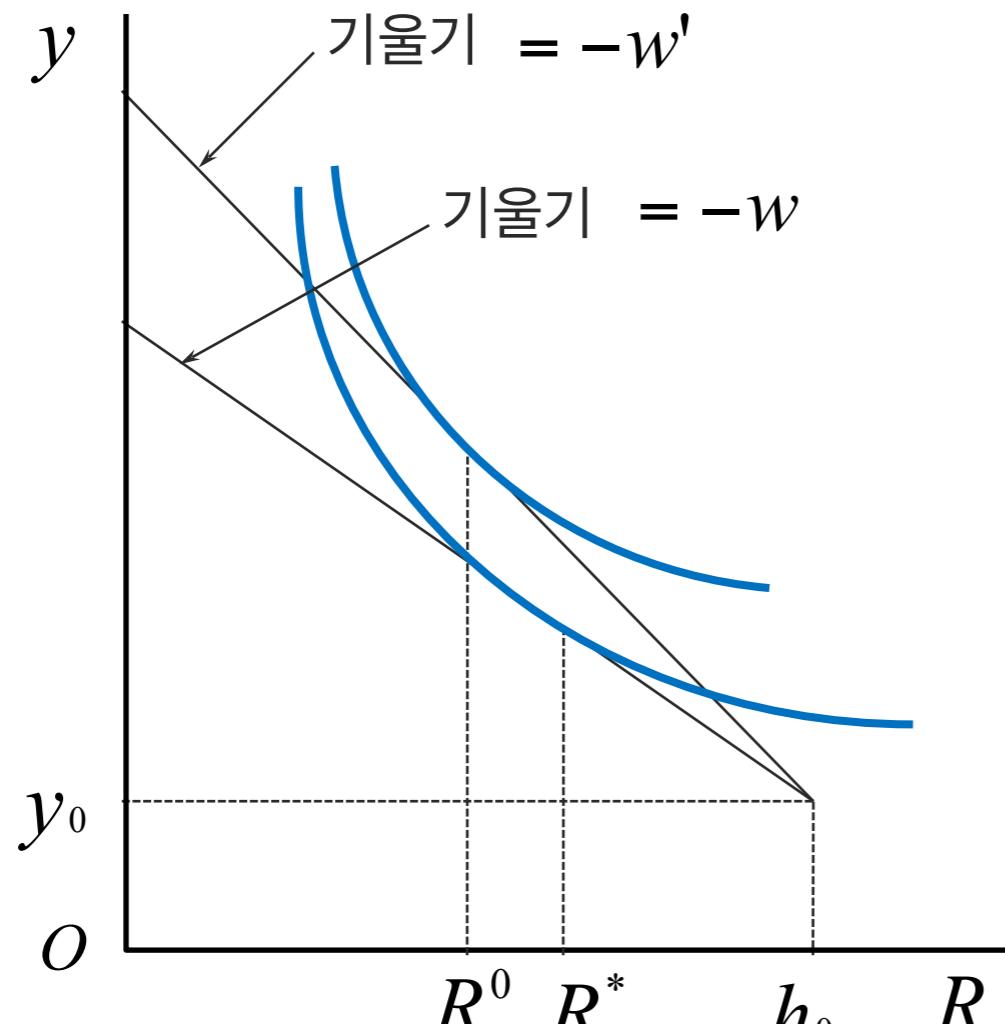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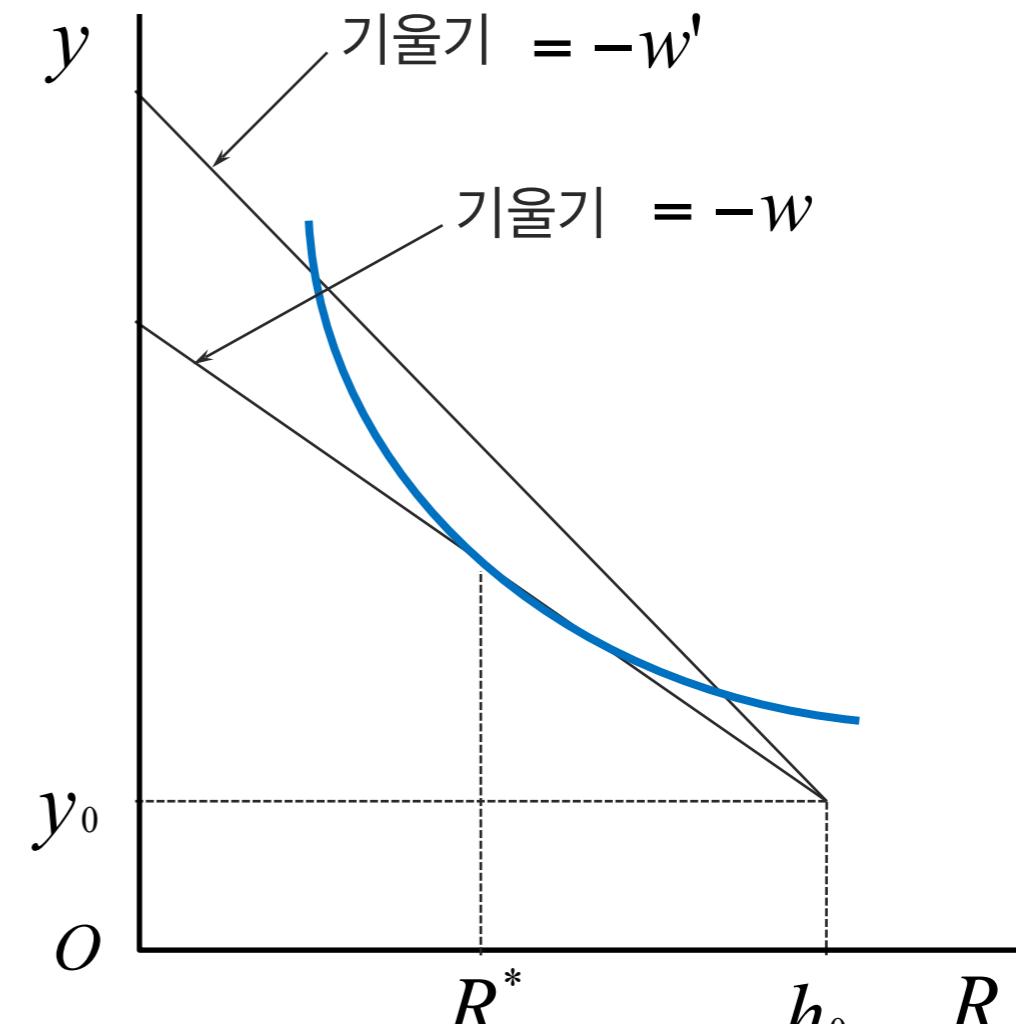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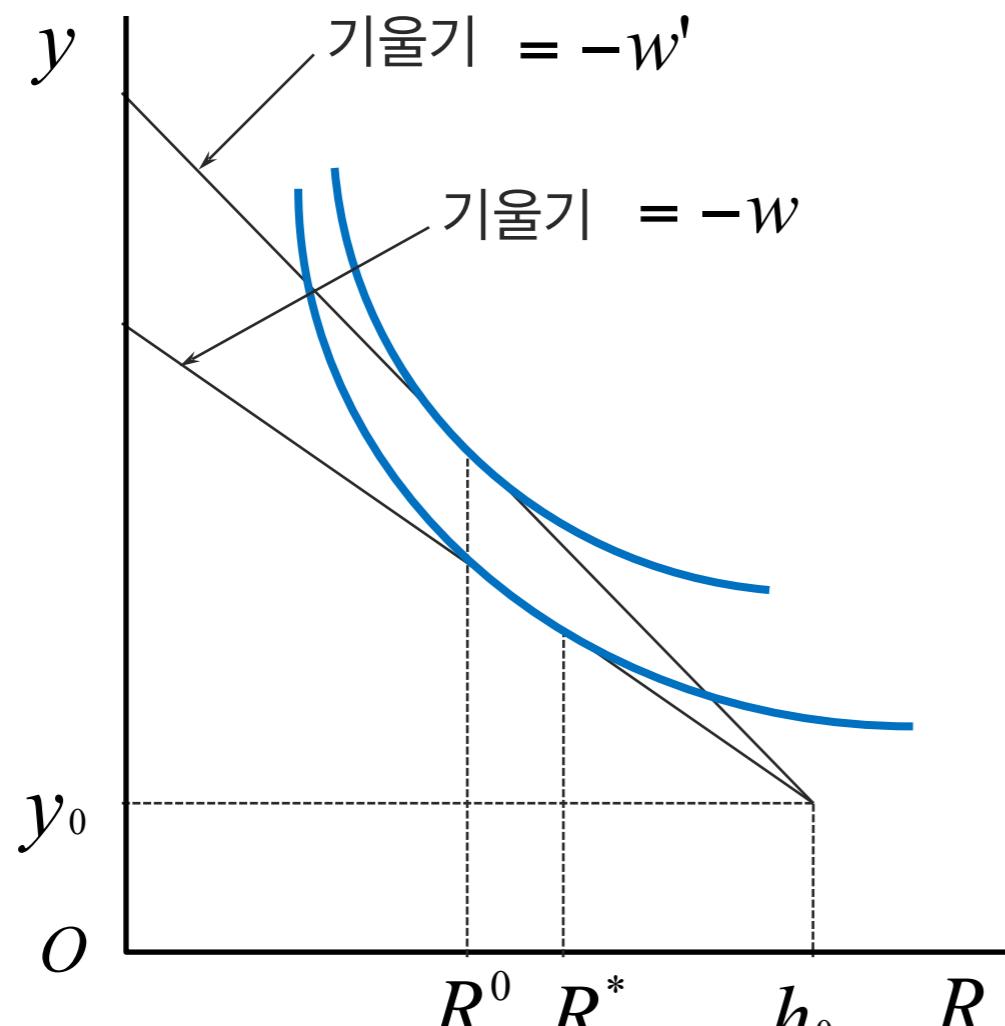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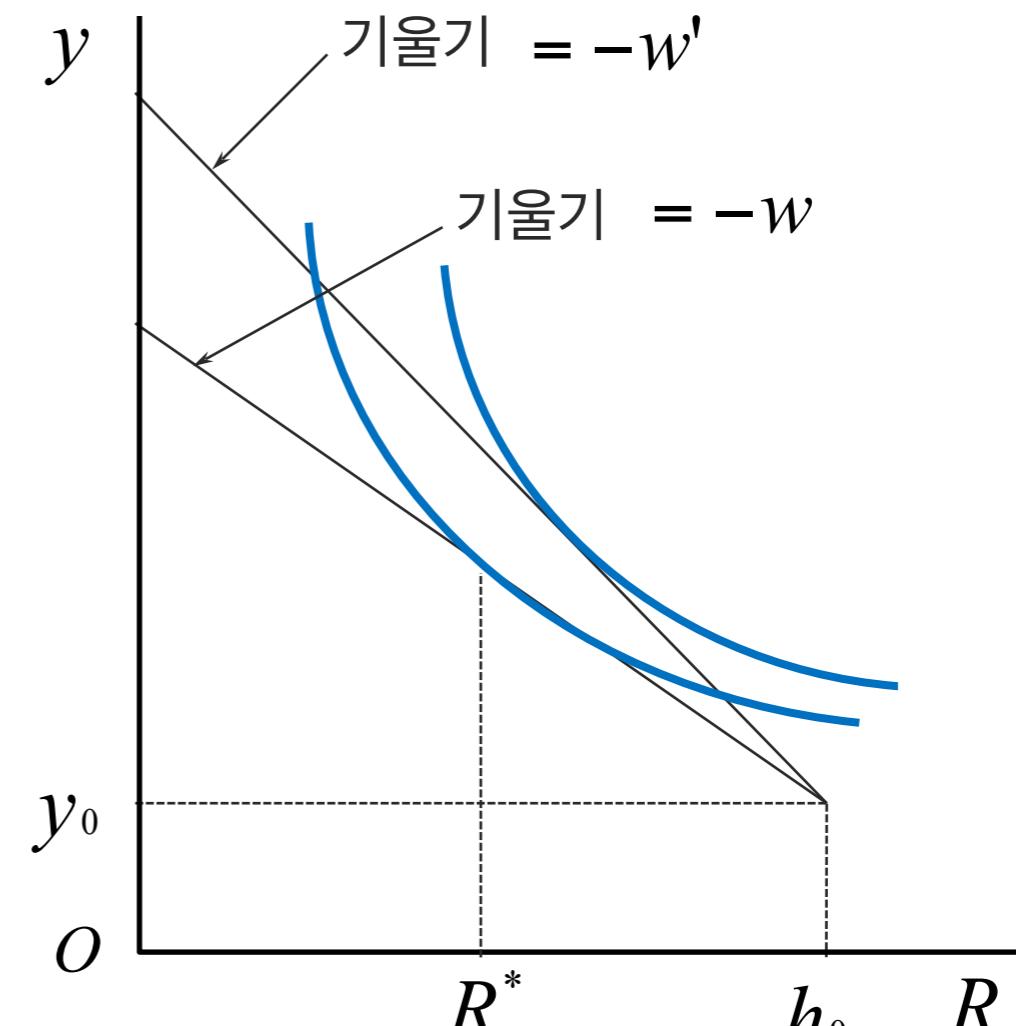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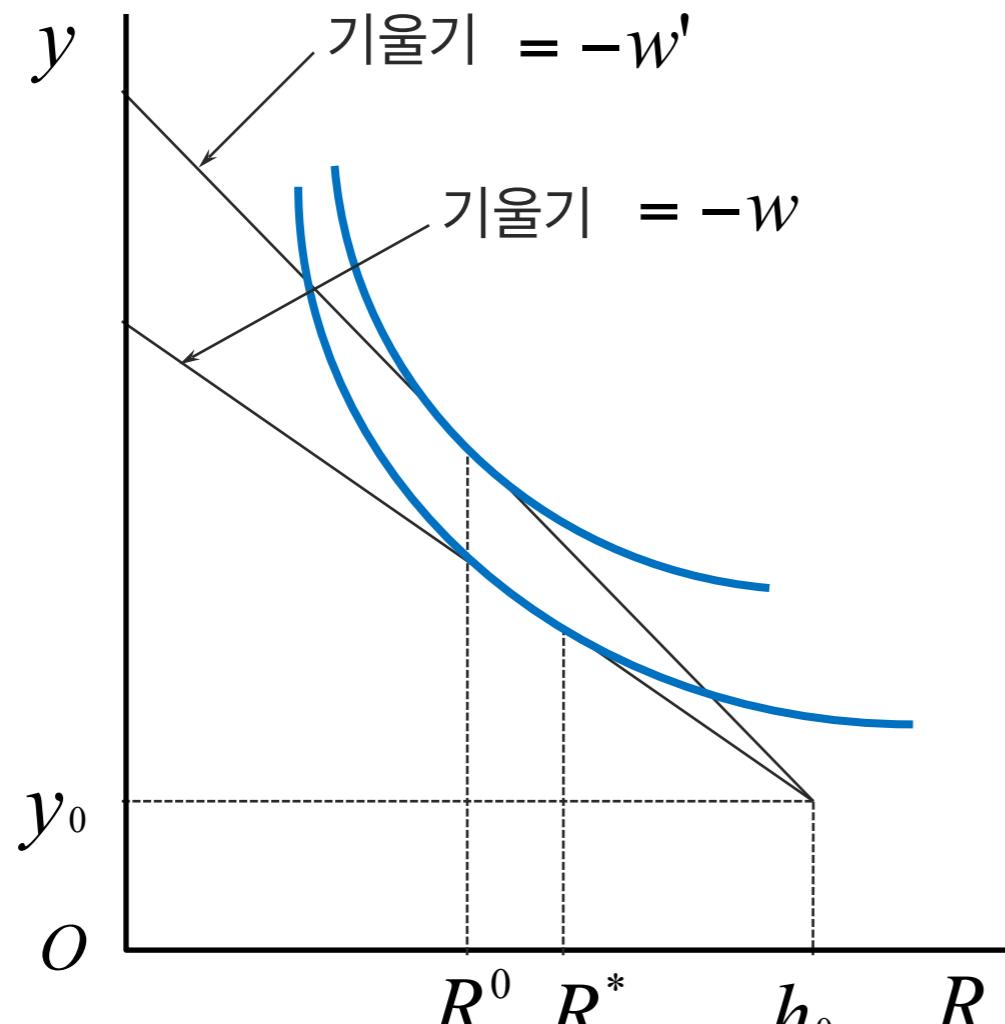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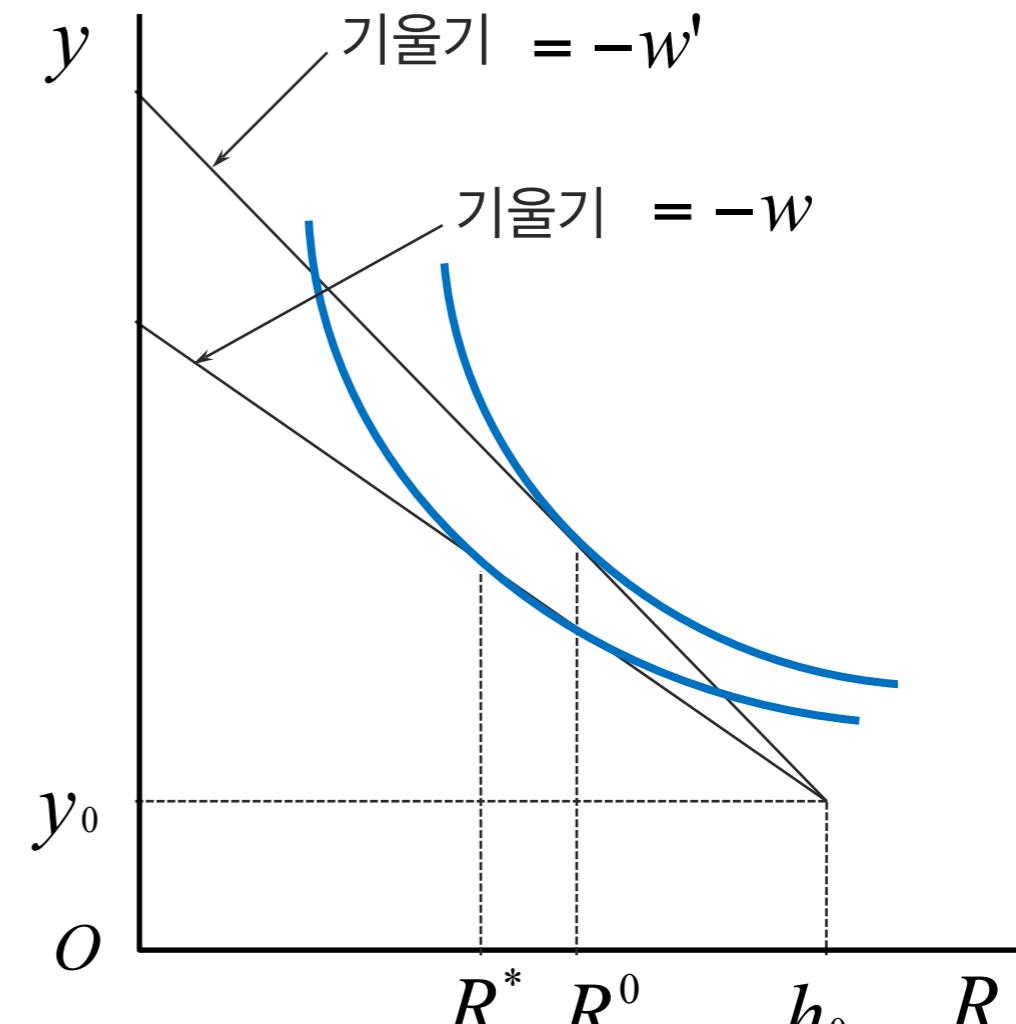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(b) 노동공급의 감소



(a) 노동공급의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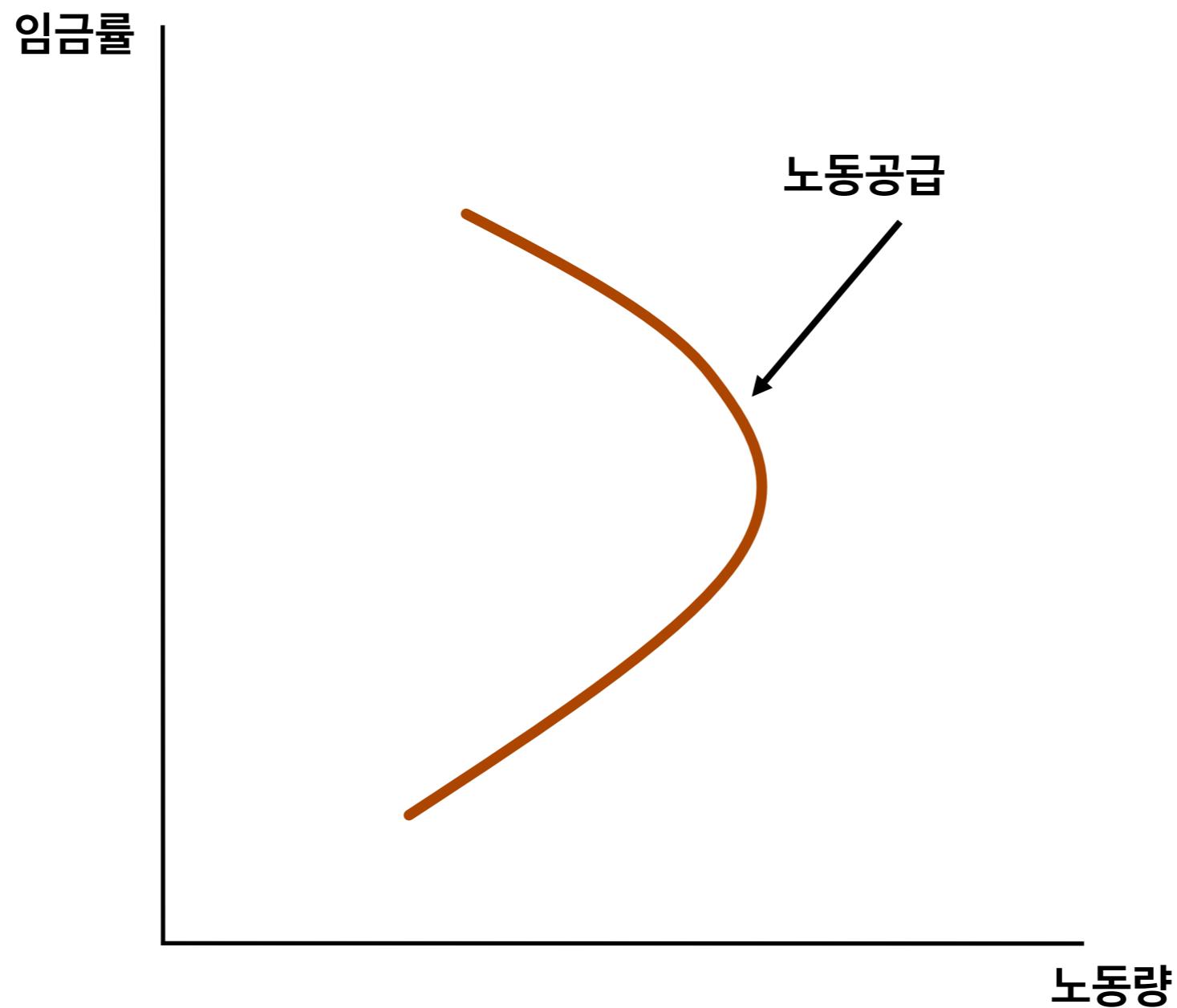
(b) 노동공급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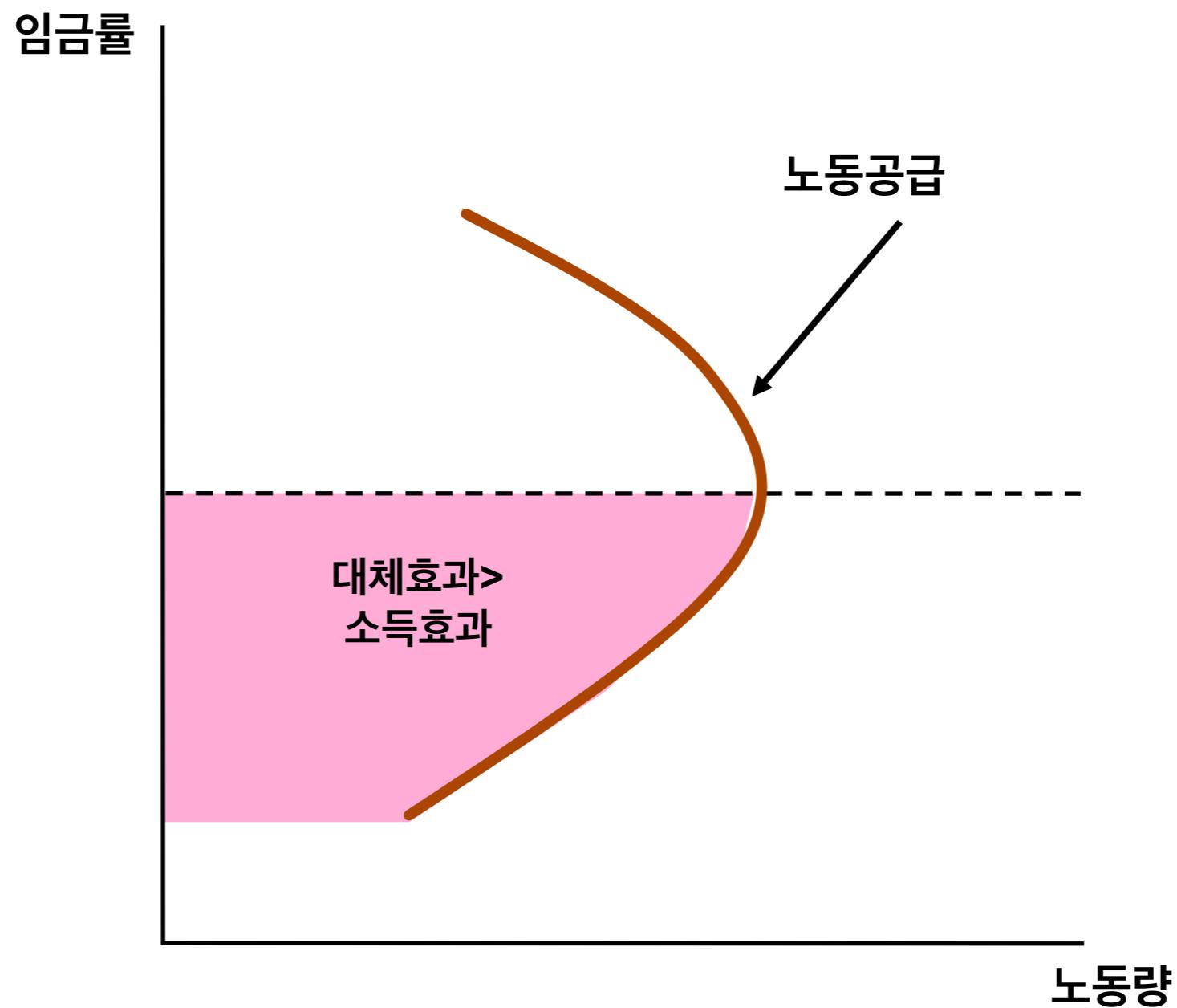
# 개별노동공급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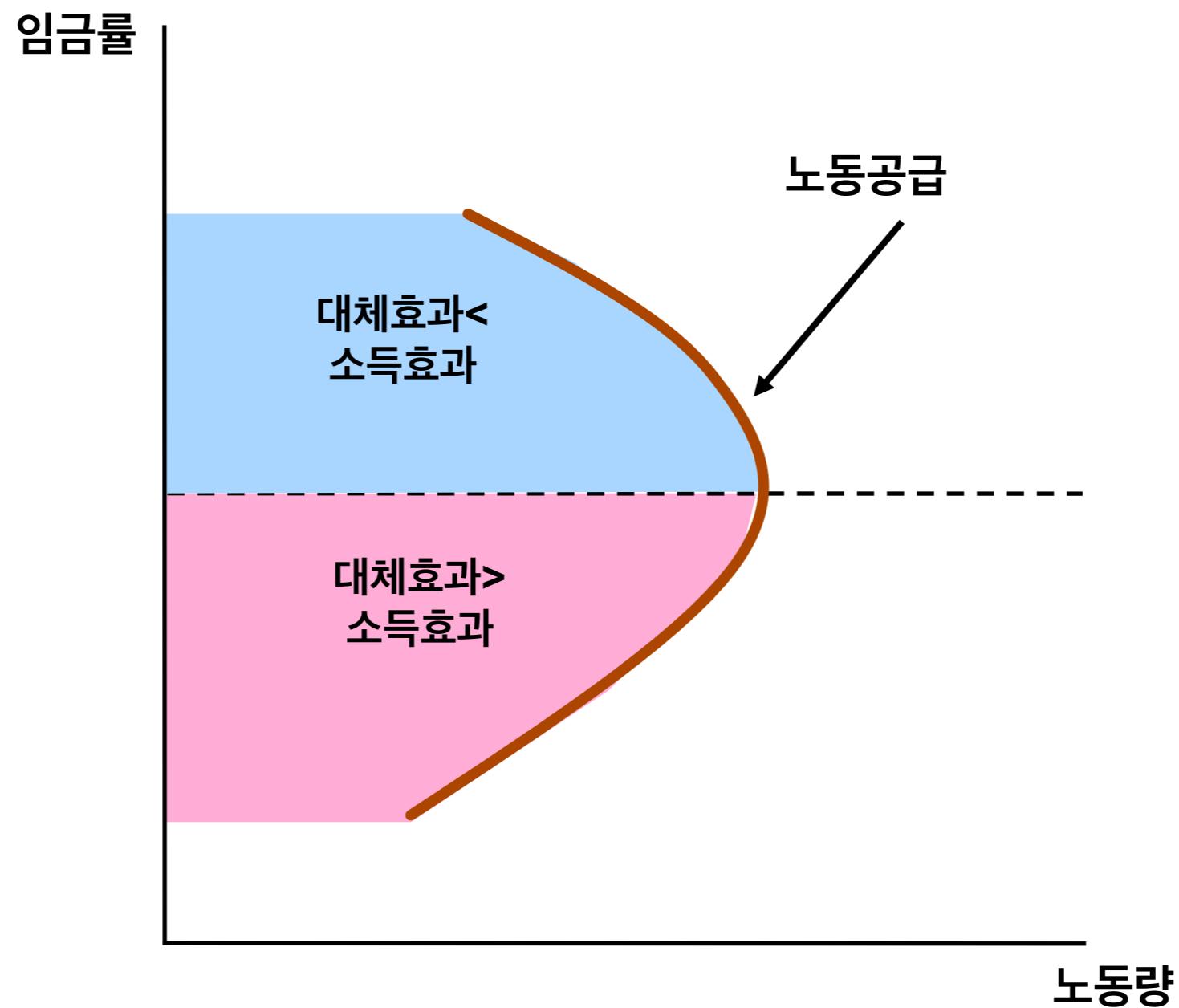
-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
  - 임금이  $w^*$ 까지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 증가,  $w^*$ 를 넘어서면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감소
  - 임금이 너무 낮으면 노동을 전혀 공급하지 않음

임금률

노동량







# 현실에서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

- 현실에서 측정해보면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높은 편:
  - 즉, 임금률이 높아지면,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경우가 더 일반적
  - $W \uparrow \Rightarrow L \uparrow$

# 시장노동공급곡선

- 시장 노동공급곡선: 개인 노동공급곡선의 합
- 임금상승에 따른 시장 노동공급량의 변화
  -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장 변화
    - 현재 임금 수준에서 후방굴절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전체 노동 공급의 변화가 달라짐
  - 새로운 노동자의 시장 진입
  - 항상 노동 공급은 늘어남

# 시장노동공급곡선

# Market Labor Supply Cv.

- 노동공급곡선의 이동: 임금( $W$ ) 이외의 요인으로 노동공급 변화가 생길 때 발생
  - 선호, 사회규범변화
  - 인구변화
  - 기회/부의 변화

# 선호, 규범 변화 Change in Preference&Norm

- 노동에 대한 선호나 문화가 변화할 경우 노동공급에 대한 변화 발생
- ex)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기존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계층이 노동에 참여(혹은 그 반대)
  - 노동참여증가 ⇒ 노동공급 ↑

# 인구 변화

# Population Change

- 인구가 증가[감소]하면 노동공급곡선은 오른쪽[왼쪽]으로 이동
  - 인구  $\uparrow \Rightarrow$  노동자  $\uparrow$   
 $\Rightarrow$  노동공급  $\uparrow$



# 기회/부의 변화 Change in Opportunity&Wealth

- 기회변화: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숙련 노동 등도 쉽게 노동시장에 참여가능해질 경우 노동공급곡선 우측이동
  - 탈숙련화: 생산기계 발전으로 미숙련자도 쉽게 복잡한 생산 가능
- 자산가격 상승[감소]로 인한 부의 변화
  - 자산가격(주가, 부동산 등) ↑ ⇒ 노동유인 ↓  
⇒ 노동공급 ↓

# 수요 독점

# 수요 독점

- 수요독점
  - 구매자가 한 명만 있는 시장
  - 특정 지역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경우
- 수요독점기업은 임금 설정
- 모든 임금을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, 노동공급곡선 상의 점 중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을 선택
- 요소가격을 설정하므로, 요소수요함수는 존재하지 않음

# 수요독점기업의 단기이윤

$$\begin{aligned}\Pi &= pF(L, \bar{K}) - (wL + r\bar{K}) \\ &= [pF(L, \bar{K}) - wL] + r\bar{K}\end{aligned}$$

- 기업의 노동 투입량 변화에 따라 수입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

# 한계노동비용

$$\begin{aligned}\frac{dw(L)L}{dL} &= w(L) + w'(L)L \\&= w(L) \left[ 1 + w'(L) \frac{L}{w(L)} \right] \\&= w(L) \left[ 1 + \frac{dw(L)}{dL} \frac{L}{w(L)} \right] \\&= w(L) \left[ 1 + \frac{1}{\epsilon_L} \right]\end{aligned}$$

# 수요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

- 산출물시장에서 가격수용자
  - $VMP_L = MLC$
- 산출물시장에서 독점
  - $MRP_L = MLC$
- 산출물시장과 요소시장 모두에서 가격수용자
  - $VMP_L = w$
- 산출물시장에서 독점, 요소시장에서 가격수용자
  - $MRP_L = w$

# 최저 임금제와 수요 독점

-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
  - 최저임금제는 임금을 높이면서 고용량을 늘릴 수 있음

# 산출물 시장에서도 독점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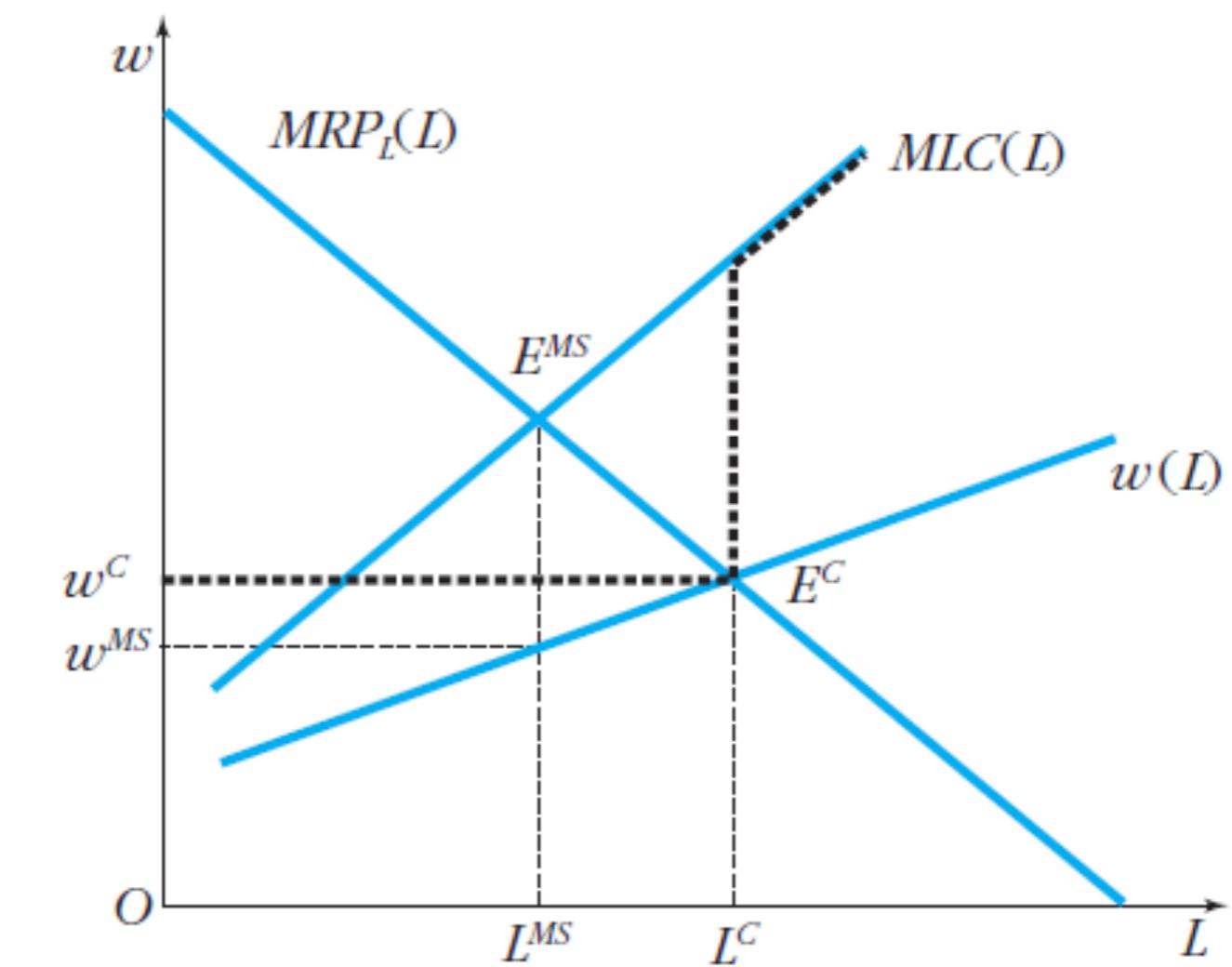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-18 수요독점 시 최저임금제의 효과

# 쌍방독점

- 쌍방독점
  - 공급독점과 수요독점
  - 생산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요자가 구매할 수 없으므로 높은 가격을 받고자
  - 소비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수요자가 구매할 수 없으므로 낮은 가격을 받고자
- 시장보다는 쌍방의 협상력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 결정

# 소득분배

# 소득의 종류

- 소득
  -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
  -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
  -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

# 생산요소별 소득

- 개인이 기업에 제공하는 생산요소
  - 노동, 실물자본(부동산 포함), 금융자본(주식 제외)
- 기업의 이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
  -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이윤 배당
  - 개인기업의 경우 이윤이 기업의 소유주에게 직접 귀속

# 노동 수요의 결정요인

-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  - 국내산업의 발전정도
  - 국내 기술수준과 생산성
  - 기술발전의 방향
  - 경기

#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- 인구와 연령구조
- 경제활동 참여 수준
- 교육
- 이민
- 허가, 자격증

# 노동 관련 제도, 노동 외 소득

- 노동 관련 제도
  - 최저임금제 시행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
  - 노동조합
- 노동 이외 소득
  - 각 요소 시장의 수요-공급 상황에 따라 다름
  - 기업 이윤으로부터의 소득 역시 기업의 사업성, 경기 상황에 따라 차이

# 소득불평등 지표

- 5분위 배율
  - 소득분포 상의 최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을 취하고 20퍼센트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
  - 장점
    - 이해하기 쉬움
  - 단점
    -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소득의 분포를 반영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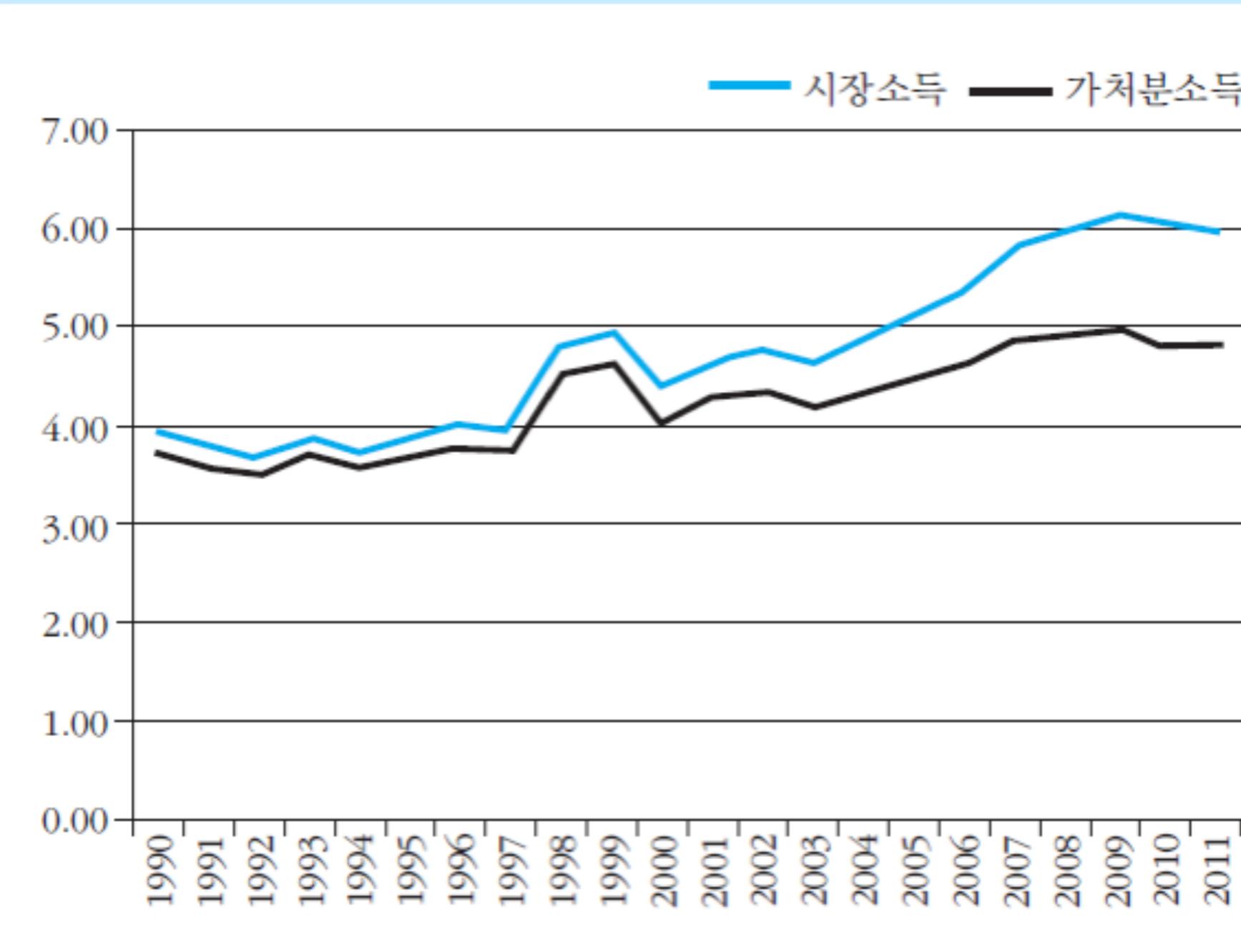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-23 우리나라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

# 지니계수

- 로렌츠 곡선
  - 소득 순위 백분위 그룹의 누적소득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
  - 로렌츠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증가
  - 완전균등선에서 멀리 벗어날 수록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
- 지니계수

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

완전균등선 아래 면적

- 소득이 완전히 균등한 경우 0
- 이론적 최대값은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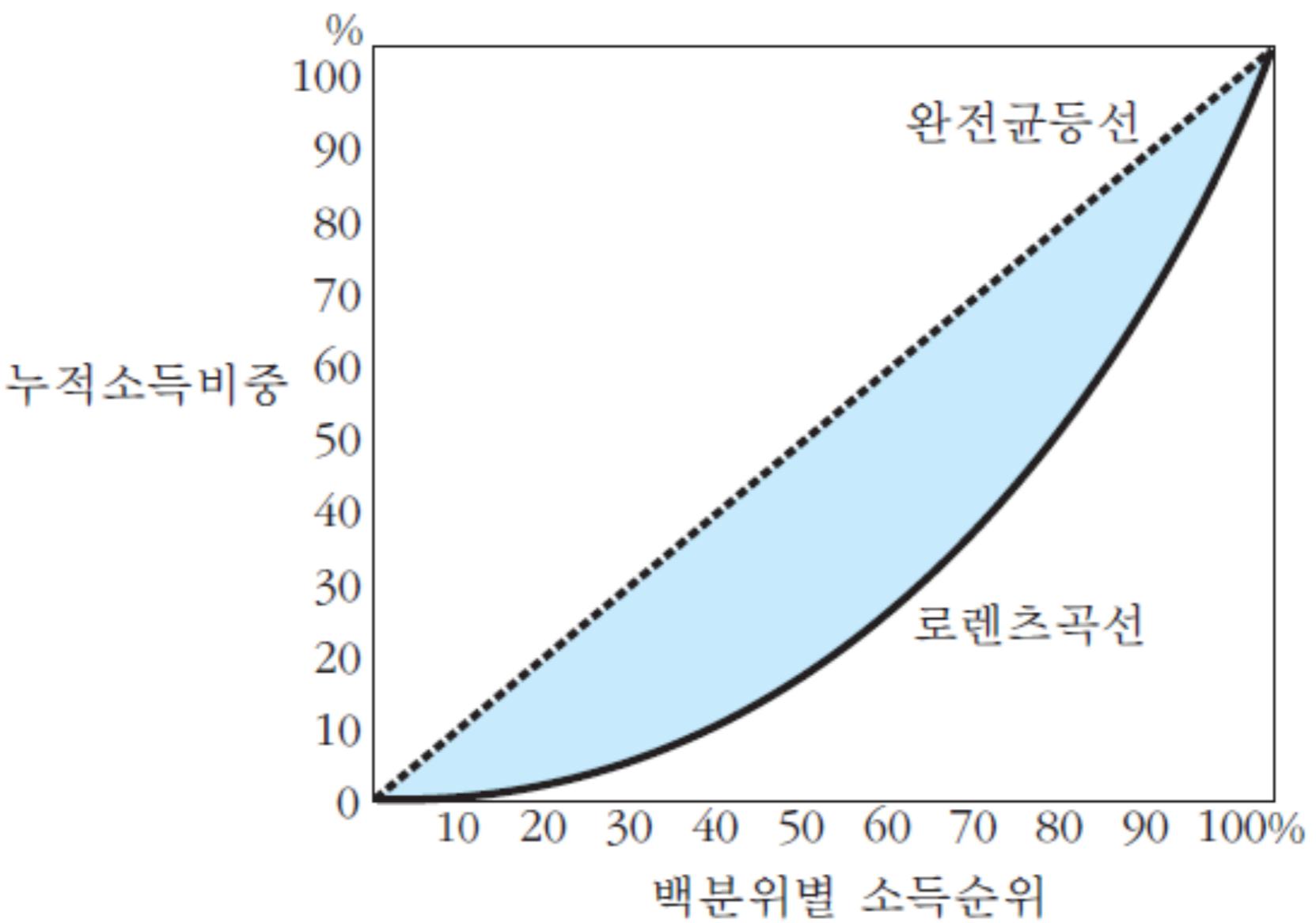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-24 로렌츠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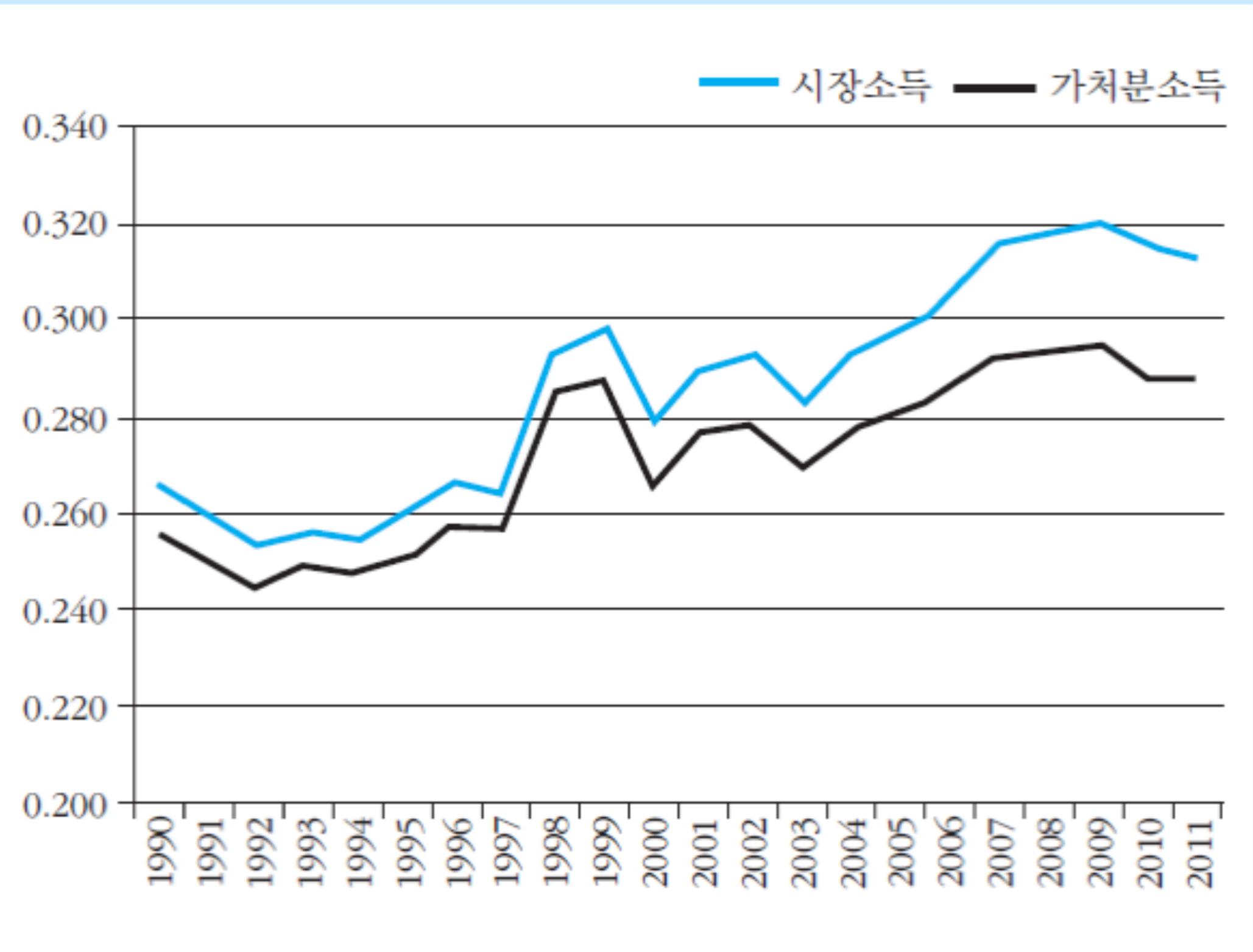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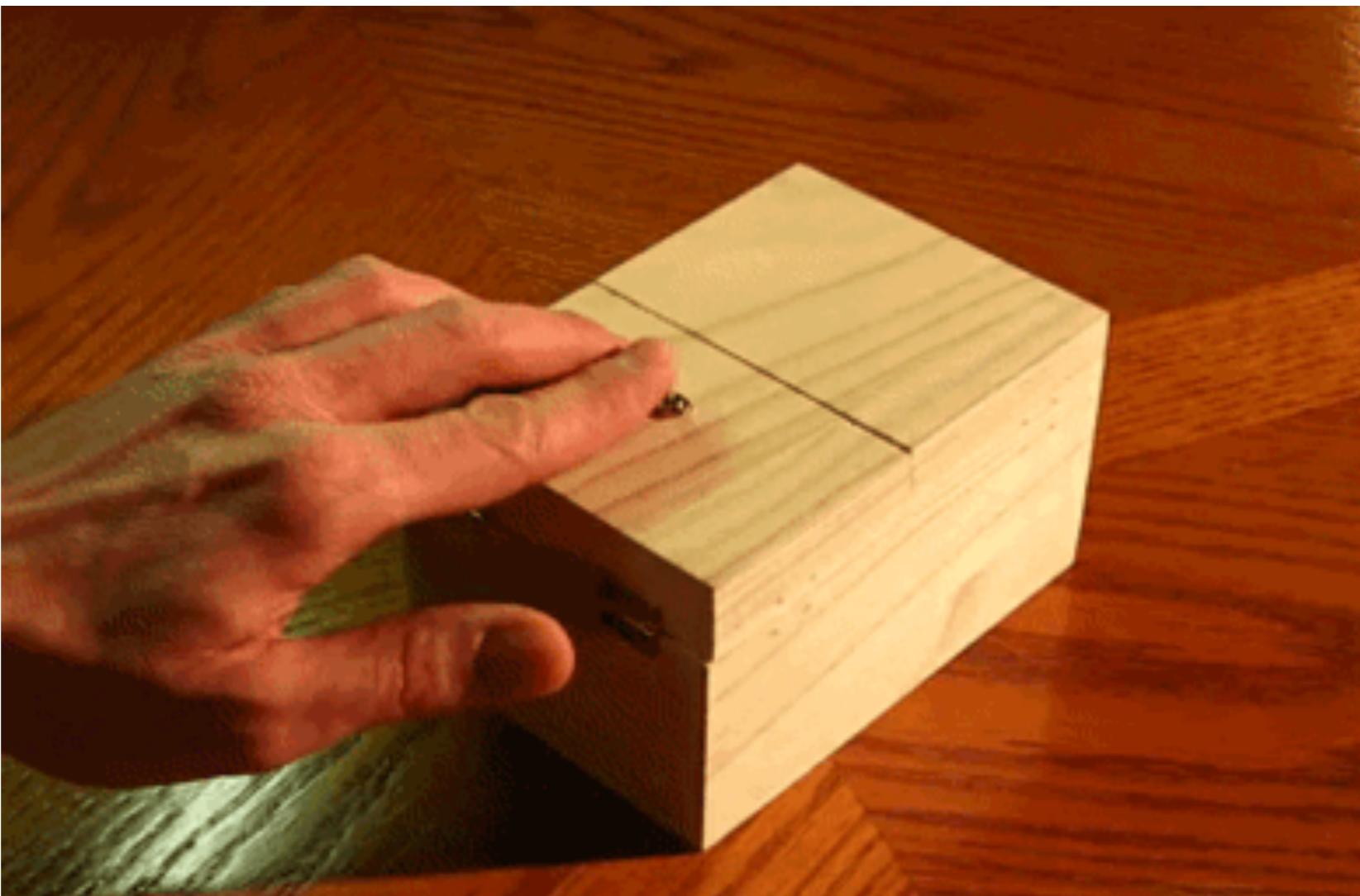


그림 17-25 우리나라 지니계수의 변화

# 수고하셨습니다!



# 수고하셨습니다!

